

지속가능한 농업의 사회성 평가

편저	김 창 길	선임연구위원
	정 학 균	연구위원
책임	윤 순 진	교수
참여	최 지 훈	연구위원
	백 종 학	연구위원
	양 수 연	연구위원
	이 윤 혜	연구위원
	조 주 은	연구위원

머 리 말

지속가능한 농업(Sustainable Agriculture)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개념 정의가 있지만 환경적 지속가능성, 경제적 지속가능성,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지금까지 지속가능한 농업에 대한 연구는 주로 환경성과 경제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기 때문에 종합적인 관점에서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지속가능 농업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초로 적절한 지속가능 농업 추진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를 수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 보고서는 「지속가능한 농업시스템 구축 연구」에 관한 2년 연구과제의 1년차 연구 결과물 중 외부 위탁을 통해 얻은 결과물이다. 연구진들이 추가적인 작업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의 사회성 평가 결과를 제시하였다. 여기서는 지속가능한 농업을 지향하고 있는 지역들을 선정하여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들과 농촌에 거주하면서 지속가능한 농업을 실현하기 위한 활동을 해나가고 있는 인사들에 대해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지속가능한 농업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요소와 사회적 조건을 도출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또한 전문가들로 좌담회를 열어 포커스 그룹 인터뷰 방식으로 지속가능한 농업의 사회성, 지속가능한 농업의 사회적 요소와 이를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조건들에 대해 토론하고 의견을 수집하고 별도로 간략한 설문조사 방식으로 전문가 의견을 서면으로도 수집하고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아무쪼록 이 연구가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농업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바쁜 가운데에도 이 연구의 수행에 연구자문위원으로 수고해 준 한밭대학교 조용탁 교수와 농촌진흥청 이덕배 과장 등 관계자들께 감사드린다.

2013.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최 세 군

요 약

이 연구는 지속가능한 농업의 사회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지속가능한 농업을 지향하고 있는 지역들을 선정하여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들과 농촌에 거주하면서 지속가능한 농업을 실현하기 위한 활동을 해나가고 있는 인사들에 대해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지속가능한 농업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요소와 사회적 조건을 귀납적 방법으로 도출하였다. 또한 농업분야 전문가들로 좌담회를 열어 포커스 그룹 인터뷰 방식으로 지속가능한 농업의 사회성, 지속가능한 농업의 사회적 요소와 이를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조건들에 대해 토론하고 의견을 수집하고 별도로 간략한 설문조사 방식으로 전문가 의견을 서면으로도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인터뷰를 통해 농민들의 의견을 취합 정리한 후, 전문가들의 검토를 통해 귀납적으로 도출한 결과, 지속가능한 농업을 구성하는 사회적 요소는 생산자의 가치/인식/태도, 조직의 다양성, 내부 네트워크, 외부 네트워크, 지도력, 생산자에 대한 교육, 농민 충원, 농법, 판로(소비자와의 관계), 지역공동체이다. 지속가능한 농업을 구현하는 데 요구되는 사회적 조건은 소비자의 가치/인식/태도, 소비자에 대한 교육, 정책/제도, 유통구조, 농촌사회서비스로 정리할 수 있다.

지속가능한 농업의 사회적 요소와 조건에 대해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생산자와 소비자의 농업에 대한 ‘가치/인식/태도’와 ‘사회적 관계’가 중요하다는 의견이었다. 구체적으로는 사회적 요소에서는 생산자의 가치/인식/태도, 생산자에 대한 교육, 농민 충원을, 사회적 조건에서는 소비자의 가치/인식/태도와 소비자에 대한 교육, 농촌사회 서비스를 상대적으로 중요하다고 평가하였다. 생산자나 소비자 모두 생명을 중시하면서 생명을 살리는 농업과 농민을 존중하는 가치/인식/태도가 가장 중요하며 이러한 가치/인식/태도를 형성하기 위해 생산자와 소비자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또한 사회적 조건인 농촌사회서비스가 형성되는 것은 농민 충원의 윤택유가 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지속가능한 농업을 구성하는 사회적 요소들과 이를 구현하는 사회적 조건들

이 충분히 충족되지 않을 경우, 지속가능한 농업으로의 진행과 전환은 이루어지기 어렵다. 현재 지속가능한 농업에 관련된 정부 정책인 농림축산식품부의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사업’은 친환경농업지구, 친환경비료, 친환경농업직불제에 대한 지원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확인한 지속가능한 농업의 핵심적 요소인 생산자의 생명 중시와 자긍심을 함양할 수 있는 가치/인식/태도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고 농민층원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였다.

각 지자체와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 민간 단체에서 농업민과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나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가치/인식/태도를 확산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였다. 지속가능한 농업의 실현을 위해서는 지도력 또한 중요한 사회적 요소로 작용하였다. 덕망 있는 개인만이 아니라 양평이나 완주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지자체장의 리더십 또한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이 경우 지자체장의 교체로 인해 지원정책이 중단되거나 축소되지 않도록 제도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지역의 문화로 정착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 아울러 농업만이 아니라 농촌의 지역공동체성이 회복되고 농촌의 교육, 문화, 의료 서비스가 구비됨으로써 농촌이 지속가능할 수 있어야 한다.

차 례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1
2. 연구 목적과 범위	2
3. 연구 방법	3

제2장 선행연구 검토

1. 농업의 지속가능성	5
2. 지속가능한 농업의 등장 배경과 유사 개념	7
3. 지속가능한 농업의 정의	10
4. 지속가능한 농업의 사회성 평가요소 도출	12

제3장 국내 친환경농업 현황

1. 친환경농업 관련 법제	19
2. 친환경농산물 생산 추이	21
3. 농업인구와 귀농 정책	25
4. 농업·농촌에 대한 인식	28
5. 친환경농산물 판로	33
6. 친환경농업 교육	37

제4장 사례조사

1. 개요	41
2. 두물머리	45
3. 제주도	51
4. 홍성	64

5. 완주	87
6. 종합 분석	95
제5장 전문가 좌담회/인터뷰	103
제6장 결론	117
참고 문헌	121
부록 1: 사례조사 인터뷰(원본)	
2: 사례조사 인터뷰(녹취)	
3: 사례조사 인터뷰(요약)	
4: 사례조사 분석표	
5: 전문가 의견서	

표 차 례

제2장

표 2-1. OECD AEIs 구성 요소	15
표 2-2. 지속가능한 농업의 사회성 요소 도출(예)	17

제3장

표 3-1. 연도별 친환경농산물 인증실적 변화 추이	22
표 3-2. 품목별 인증 단계별 친환경농산물 출하량(2012년)	24
표 3-3. 농가인구의 변화 추세	25
표 3-4. 귀농인 지원 사업	27
표 3-5. 현재 중요한 농업·농촌 역할에 대한 인식	29
표 3-6. 농업·농촌 관련 의견들에 대한 동의 여부	30
표 3-7. 우리나라 식량공급 사정에 대한 전문가 전망	31
표 3-8. 농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인식	31
표 3-9. 주요 생협 소비자 및 매출 현황	35
표 3-10. 한살림 생산자연합회 현황	36
표 3-11. 두레생협 생산단위 현황	36
표 3-12. 전국 농업기술센터 현황	38

제4장

표 4-1. 지속가능한 농업 주요 개념과 주요 하위 구성 요소	42
표 4-2. 지속가능한 농업 조사 대상 지역	43
표 4-3. 지역별 피면접자들	44
표 4-4. 두물머리 사회성 분석(한국 BM 협회 A)	49
표 4-5. 두물머리 사회성 분석(팔당생명살림 협동조합 B)	49

표 4-6. 제주도 사회성 분석(제주시 한림읍 유기농가 C)	60
표 4-7. 제주도 사회성 분석(고천농원 D)	61
표 4-8. 제주도 사회성 분석(한울공동체 E)	62
표 4-9. 홍성 사회성 분석(홍성유기농영농조합 F)	75
표 4-10. 홍성 사회성 분석(마을활력소 G)	79
표 4-11. 홍성 사회성 분석(귀농인 H)	82
표 4-12. 홍성 사회성 분석(여성농업인센터 I)	83
표 4-13. 홍성 사회성 분석(폴무학교 전공부 졸업 J)	84
표 4-14. 홍성 사회성 분석(젊은협업농장 K)	86
표 4-15. 완주 사회성 분석(인덕마을 두레농장 L)	93
표 4-16. 완주 사회성 분석(완주 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 M)	94
표 4-17. 지속가능한 농업의 사회적 요소	97
표 4-18. 지속가능한 농업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조건	101

제5장

표 5-1. 지속가능한 농업의 사회적 요소와 사회적 조건	106
표 5-2. 지속가능 농업의 사회적 요소와 사회적 조건 (지역별, 면접자별 키워드 언급 빈도)	109
표 5-3. 지속가능 농업의 사회적 요소와 사회적 조건 (지역별, 면접자별 총 언급 내용 중 각 키워드의 언급 비중)	110
표 5-4. 전문가들의 항목별 상대적 중요도 평가	115

그림 차례

제3장

- 그림 3-1. 국내 총 경작지 대비 유기농 경작 면적 비중 23
- 그림 3-2. 유기농산물의 유통경로 34

제4장

- 그림 4-1. 지속가능한 농업의 사회적 요소와 사회적 조건 102

제5장

- 그림 5-1. 수정된 지속가능한 농업의 사회적 요소와 사회적 조건 107
- 그림 5-2. 관련 주체들의 관계와 가치 107
- 그림 5-3. 인터뷰 대상자별 응답 비중 111
- 그림 5-4. 인터뷰 지역별 응답 비중 112
- 그림 5-5. 응답 비중 종합 113

제 1 장

서 론

1. 연구 배경

- 최근 들어 웰빙 붐을 타고 ‘유기농업’으로 대표되는 다양한 대안농업이 주목받고 있음. 환경농업, 친환경농업, 자연농업, 생태농업, 퍼머컬처 등으로 불리는 이들 농업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화학비료를 자제하고 유기물 비료를 사용하여 소규모로 농사짓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음.
- 지속가능한 농업(Sustainable Agriculture)은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FAO)와 네덜란드 덴 보시(Den Bosch) 농업회의에서 창안된 개념임. 환경을 고려할 뿐만 아니라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자연자원을 보존하며 농가의 수익성과 농촌사회 유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음.
- 지속가능한 농업의 구체적인 정의와 범위에 대해서는 논의가 진행 중인 상태임. 환경적 지속가능성, 경제적 지속가능성,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포괄한

다고 할 때 각각이 어떤 내용을 의미하는지 논의가 진행 중이며 대안농업이 곧 지속가능한 농업을 의미한다는 주장도 있음.

- 이 보고서에서는 지속가능한 농업을 농약이나 제초제, 화학비료를 일절 사용하지 않고 에너지 투입이 최소화된 농업을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지속가능한 농업으로 보지만 이를 우리 사회가 추구해 나가야 할 방향으로 보면서 현재로서는 유기농업만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저투입 농업을 포괄하는 넓은 의미로 보고 지속가능한 농업으로 변화해가는 과정에 주목하고자 함. 국내외적으로 지속가능한 농업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제한된 범위로 논의를 국한하기보다 변화의 가능성을 더욱 넓게 열어두기 위함임. 또한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모두 만족시키는 지속가능한 농업이 일단 어떤 형태로든 농업 자체가 유지되는 한에서만 추구될 수 있다는 사실 또한 주목하고자 함.

2. 연구 목적과 범위

-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에서 지속가능한 농업이 가능하기 위해 충족해야 할 사회적 요소를 확인하면서 더욱 넓게 지속가능한 농업을 구현하는 데 요구되는 사회적 조건을 탐색하는 것임.
- 우선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농업 자체의 지속가능성과 지속가능한 농업의 정의를 둘러싼 논의를 정리함. 농업 자체의 지속가능성을 살펴보는 이유는 농업이 지속가능하지 않을 경우, 지속가능한 농업이 성립하기 어렵기 때문임.
-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농업 현장에서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고민하면서 대안적인 방식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이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지속가능한

농업이 충족해야 할 사회적 요소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직접 농가를 방문하여 현지 조사를 진행함.

- 사례 지역과 농가는 두물머리, 홍성, 완주, 제주도임. 두물머리, 홍성, 완주는 2013년 3월에서 7월까지 주요 언론에서 지속가능한 농업의 사례로 여러 차례 보도됨. 제주는 섬이라는 자연적 한계 안에서 어떠한 사회적 대응을 통해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 왔는지 드러내 줄 사례로 여겨짐.
- 현지 조사 결과를 토대로 농업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좌담회를 개최하여 연구진에서 도출한 우리나라 지속가능한 농업의 사회적 요소와 조건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토대로 연구 내용을 수정 보완함. 구체적으로 지속가능한 농업을 사회적 측면에서 진단하고 종합적으로 평가함. 또한 지속가능한 농업의 실천과 확산을 가로막는 요인을 살펴보고, 지속가능한 농업 실천과 관련하여 야기되고 있는 갈등 요소에 대해 알아본 후 지속가능한 농업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회적 측면의 해결방안을 도출함.

3. 연구 방법

- 연구 방법은 크게 문헌조사, 인터뷰, 전문가 좌담으로 구성됨.
- 문헌 조사를 통해 신문기사, 논문, 관련 보고서 등을 검토하여 지속가능한 농업의 정의와 범위를 둘러싼 국내외 논의를 정리하였음.
- 인터뷰와 전문가 좌담은 모두 질적 연구 방법임. 사회성 파악과 분석이라는 점에서 더욱 깊이 있는 자료 수집을 위해 직접 농가를 방문하여 집중적으로 면접하는 심층면접(In-depth Interview) 방식을 선택하였음. 구체적으로 근거

이론(Grounded Theory)을 토대로 인터뷰 자료를 범주별로 나누어 재정리하여 분석하였음. 근거이론을 선택한 이유는 지속가능한 농업의 사회성 파악과 분석을 위해서는 직접 사례 연구를 통한 귀납적 방법이 적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임.

- 농가에 대한 조사는 개별 인터뷰로 진행하였음. 공통의 질문을 숙지한 상태에서 개별 농가를 방문하여 자연스레 이야기를 나누면서 피면접자들의 생각을 살펴보고자 하였음. 인터뷰 내용을 토대로 범주를 구분하여 지속가능한 농업을 구성하는 사회적 요소들과 지속가능한 농업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조건들을 살펴보고 지역별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함. 특히 사전 친밀도를 높이기 위해 일손을 거드는 등 최대한 친숙한 분위기를 만드는 데 주력하였음.
- 전문가 좌담은 포커스 그룹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방식을 선택하였음. 포커스 그룹 인터뷰는 주제를 이미 정한 상태에서 관련 전문가들이 해당 분야에 대해 긴밀하게 대화하는 것을 의미함. 구체적으로 지속가능한 농업의 사회적 측면에 대한 연구진의 조사 결과를 검토하고 우리나라 지속가능한 농업을 가로막는 장애 요인과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음.

제 2 장

선행연구 검토

1. 농업의 지속가능성

- 지속가능한 농업의 정의를 알아보기 전에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살펴보는 이유는 그만큼 농업을 지속불가능하게 만드는 여러 문제의 심각성이 크기 때문이다. 농업 자체가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면서 지속가능한 농업을 고민하고 확산시켜 나가는 것이 더욱 현실적임.
- 실제로 농업이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줄어들었음. 1970년 GDP 대비 29.1%였던 농업 비중은 2011년 현재 2.7%로 약 10분의 1로 줄어들었음. 이는 농업이 차지하는 위상이 얼마나 열악한지를 보여주는 지표임.
- 더욱 큰 문제는 농민의 숫자가 현저하게 감소했다는 것임. 1970년 1,442만 명이었던 농민은 2012년 현재 291만 명으로 줄어들었음. 전체 인구 비중으로 보면 70%에서 5.8%로 감소하였음. 또한 65세 고령 농가인구 비중이 1970년 4.9%이던 데서 2012년에는 35.6%로 현저하게 높아져(27.7%p 증

가. 농림축산식품 주요통계 2013) 농업 인력의 재생산 자체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임.

- 농업이 홀대받는 이유는 구조적인 이유가 큼. 급속한 산업성장기 저임금을 유지하기 위해 저가 농산물정책을 의도적으로 추진했고 이후 농산물 가격이 저가로 유지됐음. 이런 상황에서 농약과 화학비료의 대량투입과 단일품종 생산을 피하는 이른바 녹색혁명의 관행농이 주요한 경작 방식으로 유지됐음. 그 결과 쌀을 포함한 주요 작물의 대량 공급이 가능해져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되었지만, 지력을 보존하면서 지역 내에서 먹을거리를 생산하고 공급하며 소비하는 농업의 순환구조를 깨뜨리는 결과를 낳았음.
- 1990년대 이후 유기농이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유기농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음. 그러나 전체 농사에서 유기농이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낮음. 대표적인 이유는 가격 경쟁력이 약하기 때문임.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농업에서도 거대 다국적 식량 기업들의 영향이 큼. 특히 종자를 다국적 식량 농업회사들이 거의 독점하고 있어 아무리 유기농 조건을 갖추더라도 자체 종자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영원히 종속될 수밖에 없음. 또한 농업 인력의 축소와 고령화로 기계를 투입함으로써 농기계 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과 에너지 소비 증가로 유기농업 역시 지속가능성을 확실히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임.
- 유기농이 과거보다 많이 성장했지만, 관행농보다는 여전히 취약함. 관행농이 지배하는 농산물 생산, 유통, 소비 구조가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임. 이를테면 유기농 생산물은 자체 시장을 개척하거나 직거래를 하지 않는 이상 안정적인 유통과정에 진입하기 어렵고 일정한 수익을 확보하기 어려움. 이러한 판로 개척의 어려움으로 인해 유기농으로 전환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음.

- 이 문제를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이유는 농업을 둘러싼 구조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다. 점차 유기농을 늘려나가되 관행농도 인정하면서 차근차근 전환 방식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함. 즉, 지속가능한 농업을 논의하기 전에 농업 자체를 지속시키기 위해 관행농을 인정하면서 이를 보다 지속가능한 농업으로 전환해가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적절함.

2. 지속가능한 농업의 등장 배경과 유사 개념

- 지속가능한 농업이라는 개념은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이라는 개념으로 탄생했음. 세계식량기구와 네덜란드 정부가 지속가능한 발전의 후속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개최한 덴보쉬 농업환경회의에서 제시되었음(김창길, 2003, pp.20~21). 이후 의제 21에서 보다 구체적인 근거가 마련되었음. 농업에 의한 환경파괴를 최소화하면서 장기적인 농업 생산성과 수익성을 확보하는 농업을 지속가능한 농업이라고 정의하였음.
- 이 정의는 추상적이라는 비판을 받음. 정의가 명확하고 구체적이지 못하다 보니 지속가능한 농업의 범위 선정을 둘러싼 논쟁 또한 발생할 수밖에 없었음. 이를테면 환경부하에 영향을 미치는 화학 투입재의 사용 정도를 둘러싼 논란이 대표적인 예임. 구체적으로 지속가능한 농업의 범위를 화학비료 사용을 최소화한 저투입 농업까지 볼 것이냐 아니면 아예 쓰지 않는 유기농업만으로 한정할 것이냐를 두고 의견이 엇갈렸음. 결국, 저투입 농업까지 지속가능한 농업 속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결론이 났지만, 이는 엄밀한 정의라고 보기 어려움. 지속가능성에 대한 규정은 가치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 지속가능한 농업의 구체적인 정의를 내리기에 앞서 관행농업이 무엇인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음. 지속가능한 농업을 포함한 대안농업 모두 관행농업

의 문제를 지적하면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임.

- 관행농업은 보통 자본집약적 농업, 대규모성, 고도의 기계화, 단작 영농,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화학비료, 농약과 살충제의 광범한 사용, 집약 축산 등을 특징적으로 하는 농업임(Benus and Dunlap, 1990, p.594). 한편 대안농업은 관행농업의 특징과 반대되는 농업, 즉 지역성과 소규모성, 합성물질 투입재의 사용 회피, 지역자원의 순환 이용 등을 특징으로 하는 농업이라 할 수 있음.
- 관행농업과 대안농업의 차이는 단순히 영농방식이 다르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음. 대안농업은 관행농업을 지탱하는 사회, 경제체제와 물질주의적 이데올로기에 대응하는 “특별한 사회구조 및 특별한 도덕적, 인지적 신념들”을 포함하기 때문임(Tovey, 1997, p.23).
- 유기농업을 대안농업의 핵심으로 볼 수 있고, 근대성(modernity)에 대립하여 발전하고 있는 새로운 사회문화적 흐름, 혹은 하나의 대안적 사회운동으로 볼 수 있음(Tovey, 1997; Michelsen, 2001a, 2001b; Kaltoft, 2001).
- 유기농업은 여전히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 관행농업, 나아가 현대과학, 기술에 기반을 둔 오늘날의 근대성에 대항하면서 독자적인 신념체계를 갖추고 발전했으며 이러한 의미에서 유기농업은 하나의 사회운동이라고 할 수 있음(Michelsen, 2001a, 2001b; Kaltoft, 2001; Hall and Mogyorodi, 2001; Tovey, 1997).
- 지속가능한 농업과 유사한 개념들도 많이 등장하였음. 유기농업, 자연농업, 퍼머컬처, 생태농업이 대표적인 예들임. 이들 농업은 모두 기본적으로 화학농업으로 표현되는 관행농업에 반대하는 대안농업임. 곧 농약이나 비료, 호르몬제 등 합성화학제를 일절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이를 대체하는 유기물을 활용하는 환경(친화적)농업을 뜻함.

- 이들 농업 간에도 차이가 있음. 우선 유기농업이란 농약을 치지 않고 화학비료를 주지 않는 농사법을 말함. 그러나 이밖에 다른 조건도 갖추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음. 유기농업은 자연과 공생하고, 자연과 작물과 인간이 순환관계를 맺어야 하며 정통 농법을 복원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음(전국귀농운동본부, 2012).
- 자연농업은 말 그대로 자연에 의존하여 짓는 농사를 말함. 자연농법의 창시자인 일본의 후쿠오카 마사노부와 자연농법가 가와구치 요시카즈가 제시한 자연농법의 네 가지 원칙은 다음과 같음: 땅을 갈지 않음; 농약을 쓰지 않음; 비료를 쓰지 않음; 제초를 하지 않음. 화학비료나 농약을 쓰지 않는다는 점은 유기농업과 동일하지만 땅을 갈지 않고 제초를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유기농업과 다름.
- 퍼머컬처(Permaculture)는 영원하다는 의미의 퍼머넌트(Permanent)와 농업이란 애그리컬처(Agriculture)의 합성어임. 우리말로 하면 영속농업임. 말 그대로 농사를 영속적으로 짓기 위해 자연의 이치에 따라 자연자원을 활용하여 에너지를 자급하는 것을 말함. 농법뿐만 아니라 지역순환 구조를 강조한다는 특징이 있음.
- 생태농업은 지력을 살리고 내부 자원을 늘리면서 마을공동체를 복원하는 저투입 순환농사라고 정의하고 있음. 마을공동체 복원이라는 점에서 퍼머컬처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정의로 볼 수 있음(전국귀농운동본부, 2012).
- 지속가능한 농업은 한 문장으로 정의하기가 어려움.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논의되고 있는 지속가능한 농업의 정의를 둘러싼 주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함.

3. 지속가능한 농업의 정의

- 지속가능한 농업의 개념 정의가 여전히 모호한 이유로 지속가능한 농업의 현실에 대한 이해 없이 정의부터 내리는 것이 큰 문제라는 주장이 있음 (Heuting and Reijnders, 1998, 139).¹ 설부른 정의로 인해 잘못된 정책 결정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임.
- 불명확한 정의에도 불구하고 화학비료를 대량으로 사용하는 대규모 농업 방식에 대한 고민이 커지면서 지속가능한 농업은 단지 농업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확실한 대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므로 정부, 기업연구기관, 시민단체에서 지속가능한 농업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음.
- 미국 국립농식품연구소(NIFA)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SARE(Sustainable Agriculture Research & Education)에서는 지속가능한 농업을 농사를 통해 장기간 이익을 얻고, 환경을 고려하며, 농민과 지역사회의 삶의 질을 높이는 농업이라고 정의하고 있음(<http://www.sare.org>). 이는 이익(경제성), 환경관리(환경성), 삶의 질(사회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미국 농업법 또한 이와 유사한 정의를 내리고 있음. 지속가능한 농업은 “장기간에 걸쳐 그 농업이 기반을 두고 있는 환경의 질과 자원의 바탕을 강화하고, 인간이 기본적으로 필요로 하는 식품을 제공하며,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고, 더 나아가 농부들과 사회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임(Farm Bill 1990, US Government).²

¹ “We can only asses substantiality after the fact: it is a prediction problem more than a definition problem.”

- 농업을 산업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는 SAI(Sustainable Agriculture Initiative)는 지속가능한 농업이 경제, 환경, 사회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면서도 새로운 경제적 이익 수단의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음.
- 일본은 재생불가능자원의 이용을 줄이는 대신 재생가능자원 이용을 늘려 환경을 개선하는 농업을 지속가능한 농업으로 정의하고 있음. 더불어 국민들에게 좋은 질의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고, 농부의 수익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하고 있음(김창길, 2003, p.11).
- EU는 경제, 환경, 사회를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농업의 개념을 공동의 농업 정책에 반영하였음. 참고로 CAP(Common Agriculture Policy)라고 불리는 이 정책은 1962년부터 시작됨. EU는 각 나라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농업 부문의 핵심 과제로 지속가능한 농업을 선정하였음. 곧 미래의 농업과 농촌의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더욱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실천에 옮긴 것임. 관련된 정책 예산이 EU 예산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크다고 할 수 있음(이상만, 2012).
- 지속가능한 농업은 기관의 성격에 따라 달리 정의되기도 함. 곧 정부는 정책 수단으로서의 농업을, 시민단체는 친환경적인 농업을, 기업과 부설 연구소는 경제적 이익의 수단으로서의 농업을 추구하고 있음. 그 결과 더욱 열린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음.³

² “A Sustainable agriculture is one that, over the long term, enhances environmental quality and the resource base on which agriculture depends; provides for basic human food and fiber needs; is economically viable; and enhances the quality of life for farmers and society as a whole.”

³ The definition of sustainable agriculture is open to interpretations. To the producer, it may mean making enough profit to sustain the family year after year. To the environmentalist, it may mean that production methods will have to be geared toward caring for the ecosystems of earth. To the economist, it may mean coordination among all of the different seg-

- 앞의 여러 주장은 경제, 환경, 사회를 함께 고려한다는 공통점이 있음. 물론 구체적인 범위와 평가 수단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많지만, 농업과 연결된 여러 차원을 통합적으로 논의한다는 점은 큰 의의가 있음. 곧 세세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고루 갖춘 기존 관행 농업의 대안농업으로 지속가능한 농업을 정의할 수 있음.

4. 지속가능한 농업의 사회성 평가요소 도출

- 사회성(Sociality)이란 사회적 관계를 맺고 있는 상태를 뜻함. 흔히 사회성이 좋다고 말할 때는 개인이나 집단의 유대가 강하다는 것을 의미함. 지속가능한 농업은 일반 농업과 달리 사회적 유대가 매우 중요함. 무엇보다 대안농에 대한 의지가 강하며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환경적 경제적 요인 못지않게 네트워크 형성이 반드시 필요함. 곧 지속가능한 농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개인과 조직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받아들일 만한 여력이 있어야 하는 동시에 그 여건을 형성해야 함.

ments and phrases of agriculture to ensure that the system continues to work. To world leaders, the concept may mean producing enough food to sustain the world's population and to alleviate hunger. Who is right? They are all right. For agriculture to be sure sustained in an increasingly complex world with a rapidly growing population, all of these definitions of sustainable agriculture will have to be addressed. The concept of sustainable agriculture centers on finding ways to produce food for fiber that allow the continuation of production year after year (Ray V. Herren. 2007. *The science of agriculture*. Clifton Park, NY : Thomson, pp.539~540).

- 지속가능한 농업의 사회성이 무엇이나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음. OECD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속가능한 농업의 사회지표인 농업노동력 비율, 식량자급률 등은 엄밀한 의미에서 사회성을 반영하는 것은 아님. 사회성이란 눈에 드러나지는 않지만 없어서는 안 되는 유대를 의미하기 때문임. 사회성을 보기 위해 총량 데이터가 아니라 개별 면접 방식을 선택하는 까닭 또한 그만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임.
- 지속가능한 농업 연구소(Agricultural Sustainability Institute)에서는 지속가능한 농업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을 제시하였음. 이 가운데 사회적 조건에 해당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사회적 측면은 정치, 경제와 떼어 생각할 수 없으므로 정책 선택, 경제 제도 및 기구, 사회적 가치의 전환을 함께 고려해야 함.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지역 내에서 유통, 소비하는 로컬푸드가 대표적인 예임. 이 제도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노력뿐만 아니라 정책, 유통, 소비자 인식의 변화 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함. 이를 위해서는 보다 종합적이고 광범위한 전략을 선택해야 함.
 - 농업인구의 지속적인 재생산이 필요함. 지속가능한 농업뿐만 아니라 농업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농업 인구가 확보되어야 함. 그러나 세계적으로 도시화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농촌은 점점 소외지역으로 변하고 있음. 그 결과 젊은 층은 농촌을 떠나 도시로 몰리고 있음. 농업인구를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농촌을 대상으로 한 장기적인 고용 정책을 마련해야 함.
 - 농업 연구와 교육의 확대도 반드시 있어야 함. 지속가능한 농업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농법 자체의 변화가 필요함. 관행농이 일반화된 상태에서 유기농은 여전히 낮은 농법임. 관행농의 반발도 큼. 관련 연구와 교육을 확대하여 유기농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켜야 함. 이를테면 병충해에 취약하고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 때문에 고소득층만을 위한 농법이라는 비판이 대표적인 예임. 이러한 지적은 유기농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관

런 연구와 교육이 부족하여 나타난 현상임.

- 지역개발과의 결합을 고려해야 함. 지금까지의 농촌 정책은 별개로 이루어져 왔음. 지역개발정책의 고려대상이 아니었음. 그 결과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밀리거나 지속성을 가지기 어려웠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지역개발정책에 어떻게 지속가능한 농업을 연계시킬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함. 2차 가공생산이 대표적인 예임. 곧 농업의 다양한 부가생산을 기존 정책에 결합시킬 수 있어야 함.
 - 네트워크 형성은 핵심요소임. 지속가능한 농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역할이 결정적임. 다시 말해 소비자가 사주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음. 따라서 소비자와의 연대와 신뢰가 매우 중요함. 생산자와 소비자가 강력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지원도 필수임. 요컨대, 농민, 소비자, 공공기관의 네트워크 형성 여부가 지속가능한 농업의 성패 여부를 가리는 중요한 요인임.
- 그동안 지속가능한 농업의 평가는 경제적, 환경적 측면에 치우쳐 왔음. 구체적으로 경제, 환경 요인을 고려한 데이터를 선정하여 지표화한 후 점수화하는 작업이었음. 농업환경지표(Agri-Environmental Indicators: AEIs)가 대표적인 예임.
- AEIs는 농업의 친환경성을 평가하기 위해 OECD에서 만든 평가수단임. 친환경농업의 경제적 이익을 주로 다루고 있지만, 일부 사회적 측면도 고려하고 있음. 크게 경제, 사회, 환경적 맥락에서의 농업, 농장경영과 환경, 농장 투입 요인과 자연자원, 농업의 환경영향의 4개 부문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음. 구체적인 지표들은 <표 2-1>에 정리한 것과 같음.

표 2-1. OECD AEIs 구성 요소

I. AGRICULTURE IN THE BROADER ECONOMIC, SOCIAL AND ENVIRONMENTAL CONTEXT		
1. Contextual information and indicators		2. Farm financial resources
• <i>Agricultural GDP</i> • <i>Agricultural output</i> • <i>Farm employment</i> • <i>Farmer age/gender distribution</i> • <i>Farmer education</i> • <i>Number of farms</i> • <i>Agricultural support</i>	• <i>Land use</i> – Stock of agricultural land – Change in agricultural land – Agricultural land use	• <i>Farm income</i> • <i>Agri-environmental expenditure</i> – Public and private agri-environmental expenditure – Expenditure on agri-environmental research
II. FARM MANAGEMENT AND THE ENVIRONMENT		
1. Farm management		
• <i>Whole farm management</i> – Environmental whole farm management plans – Organic farming	• <i>Nutrient management</i> – Nutrient management plans – Soil tests • <i>Pest management</i> – Use of non-chemical pest control methods – Use of integrated pest management	• <i>Soil and land management</i> – Soil cover – Land management practices • <i>Irrigation and water management</i> – Irrigation technology
III. USE OF FARM INPUTS AND NATURAL RESOURCES		
1. Nutrient use	2. Pesticide use and risks	3. Water use
• <i>Nitrogen balance</i> • <i>Nitrogen efficiency</i>	• <i>Pesticide use</i> • <i>Pesticide risk</i>	• <i>Water use intensity</i> • <i>Water use efficiency</i> – Water use technical efficiency – Water use economic efficiency • <i>Water stress</i>

표 2-1. OECD AEIs 구성 요소 (계속)

IV. ENVIRONMENTAL IMPACTS OF AGRICULTURE		
1. Soil quality	3. Land conservation	4. Greenhouse gases
• <i>Risk of soil erosion by water</i> • <i>Risk of soil erosion by wind</i>	• <i>Water retaining capacity</i> • <i>Off-farm sediment flow (soil retaining capacity)</i>	• <i>Gross agricultural greenhouse gas emissions</i>
2. Water quality • <i>Water quality risk indicator</i> • <i>Water quality state indicator</i>		
5. Biodiversity	6. Wildlife habitats	7. Landscape
• <i>Genetic diversity</i> • <i>Species diversity</i> – Wild species – Non-native species • <i>Eco-system diversity (see Wildlife Habitats)</i>	• <i>Intensively-farmed agricultural habitats</i> • <i>Semi-natural agricultural habitats</i> • <i>Uncultivated natural habitats</i> • <i>Habitat matrix</i>	• <i>Structure of landscapes</i> – Environmental features and land use patterns – Man-made objects (cultural features) • <i>Landscape management</i> • <i>Landscape costs</i>

주: This list includes all the agri-environmental indicators covered in the Report. For a detailed description of each indicator, see Main Repprt.

자료: OCED Secretariat.

○ 농업환경지표(AEIs)는 농업을 지나치게 산업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음. 특히 사회적 요인에 대해서는 명칭만 있을 뿐 언급이 없어, 지속가능한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지역사회의 유대 등과 같은 관계에 대한 분석이 없다는 문제가 있음. 이는 AEIs 지정 시 지속가능성에 대한 더욱 폭넓은 논의가 없었기 때문임(Moxey, 1998, p.4).

○ 수치를 지나치게 강조하느라 객관적으로 파악이 힘든 중요한 요소를 보지

못한 점도 한계라고 할 수 있음. 곧 지속가능한 농업의 사회성은 주관적인 개념이기에 사회성이라는 가치개입적 판단을 객관적 기준으로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임. 다만 척도를 적용하여 상대적인 평가를 하는 것은 가능함.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관찰면접이나 직접 참여를 바탕으로 한 조사가 필요함. 요컨대 지속가능한 농업의 사회성을 파악하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사례가 풍부해야 하고 오랜 관찰 기간이 요구됨. 이 연구는 그 전 단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 이 연구에서는 지속가능한 농업의 사회성을 구성하는 요소를 파악하기 위해 집중 면접 자료를 근거로 피면접자들의 의견을 범주별로 구분하는 방식을 선택하였음. 이를테면 인터뷰 도중 조직의 중요성을 강조하면 대분류로 조직을 선정한 후 구체적인 내용을 기술하는 식임. 또한 이들 내용을 요소(要素, Component)와 조건(條件, Condition)으로 나누어 살펴보았음. 구체적으로 요소는 어떤 사물을 구성하거나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하여 없어서는 안 될 근본적인 조건이나 성분을 의미하며, 조건은 어떠한 일이 진행되거나 성립되는 데 갖추어야만 할 상태를 뜻함. 곧 요소는 지속가능한 농업이 지속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농업 내부적 요인을, 조건은 농업이 지속되기 위한 제반 사회적 여건임. 이를 <표 2-2>와 같이 정리하였음.

표 2-2. 지속가능한 농업의 사회성 요소 도출(예)

분류	대분류	중분류	내용
요소	조직	작목반	-
조건	제도/정책	지방자치단체	-

제 3 장

국내 친환경농업 현황

1. 친환경농업 관련 법제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은 농어업의 환경보전기능을 증대시키고 농어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며, 친환경농어업을 실천하는 농어업인을 육성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어업을 추구하고 이와 관련된 친환경농수산물과 유기식품 등을 관리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함께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제1조).
- 다원화된 친환경 농식품 인증 제도를 통합·일원화하고, 비식용 유기가공품 인증, 재포장 인증 의무화, 동등성 인정 근거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하는 친환경농업육성법 전부개정안이 2012년 5월 30일 공포됨.
- 개정안이 공포됨으로써 그간 농산물, 가공식품, 수산물로 각각 운영되고 있던 인증제가 통합되어 운영되고, 법령도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농림수산식품부, 2012).

-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는 1990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타결로 농산물 수입 개방이 불가피하게 되자 정부가 농산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1992년 7월 ‘농산물의 규격화 및 품질인증에 관한 운영요강(농림수산부 고시 92-18호)’을 제정하여 처음으로 ‘농산물 품질인증제’를 실시한 것에서 비롯됨.
- 1993년 12월 ‘농산물 품질인증제’에 유기 및 무농약재배 농산물에 대한 품질인증제가 도입되었으며 1995년 9월 축산물 품질인증제, 1996년 3월 저농약재배농산물 품질인증제가 도입됨.
- 1997년 12월 13일 「친환경농업육성법」(법률 제5442호)을 제정하였고, 1998년 12월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저농약농산물 등 환경농산물 표시를 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국립농산물검사소에 신고토록 하는 ‘환경농산물 표시신고제’를 도입하여 시행함.
- 환경농산물(유기, 전환기, 무농약, 저농약) 표시신고제(강제규정 아님)의 도입으로 표시신고제와 품질인증제가 병행됨.
- 2001년 1월 26일 「친환경농업육성법」을 개정하여 ‘환경농산물 표시신고제’를 폐지하고 ‘친환경농산물의무인증제’를 도입하여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아야만 친환경농산물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로써 친환경농산물품질인증(유기, 전환기, 무농약, 저농약)이 일원화됨. 의무 인증제는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감(신용광·황윤재, 2008).
- 2007년 「친환경농업육성법」 개정으로 전환기유기농립산물 및 전환기유기축산물을 폐지하고 무항생제축산물을 신설함.
- 저농약농산물에 대해 2010년부터 신규 인증이 중단되었으며, 기존에 인증을 받은 농가는 2015년까지만 유효기간 연장이 가능함(정학균·문동현, 2013).

2. 친환경농산물 생산 추이

-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유기농업 제품을 포함해서 무농약·저농약농산물을 모두 친환경농산물로 간주하고 있음. 친환경농산물을 유기합성농약 및 화학비료 사용량에 따라 유기·무농약·저농약농산물로 구분함. 저농약농산물의 경우 인증제가 2015년에 폐지될 예정임.
- 2012년 친환경농산물 총 인증량은 1,498톤으로 전체 농산물 대비 9.6%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유기농산물이 약 11%, 무농약농산물 56%, 저농약농산물 33%의 비중을 보이고 있음.
- 친환경농산물 인증량 추이를 살펴보면 2000~2012년에 농가 수는 연평균 57%, 면적은 63%, 인증량은 52% 증가하였음.
 - 이러한 증가세는 2000년대 초반(2000~2004년)의 급격한 증가 때문으로 보임(이 기간 전체 인증면적은 93%의 증가율 보임).
 - 반면에 최근 4년 동안(2009~2012년)은 전체 인증면적 증가율이 -5%로 증가추세가 꺾이고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2012년 저농약 신규 인증 중단 및 친환경인증 내실화를 위한 사후관리 강화 결과 인증면적 감소로 생산량이 줄어들었음(통계청, 2012).
- 인증 단계별 친환경농산물 인증량을 보면 2008년까지 빠르게 증가하다가 2010년 이후 2012년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유기농산물은 2008년까지 빠르게 증가하다가 2009년 다소 감소하였으나 이후 2012년까지 꾸준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2012년 유기농산물 인증량은 168,000톤으로 전년 대비 37% 증가함.
 - 무농약농산물은 2010년 최대 인증량을 기록한 이후 2012년까지 감소하고 있으나, 2012년 842,000톤을 생산하여 여전히 친환경농산물 중 가장 많은

표 3-1. 연도별 친환경농산물 인증실적 변화 추이

단위: 호, ha, 천 톤, %

구분		2000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유 기	농가수	353	3,283	5,403	7,167	7,507	8,460	9,403	10,790	13,376	16,733
	면적	296	4,622	6,095	8,559	9,729	12,033	13,343	15,517	19,311	25,467
	인증량	7	37	68	95	107	115	109	122	123	168
무 농 약	농가수	1,060	9,776	15,278	21,656	31,540	45,089	63,653	83,136	89,756	14,659
	면적	876	8,440	13,803	18,066	27,288	42,938	71,039	94,533	95,253	90,325
	인증량	16	167	242	320	444	554	880	1,040	980	842
저 농 약	농가수	1,035	15,892	32,797	50,812	92,413	119,004	125,835	89,992	57,487	36,025
	면적	867	15,154	29,909	48,371	85,865	119,136	117,306	83,956	58,108	37,165
	인증량	13	257	488	712	1,235	1,519	1,369	1,054	749	488
계	농가수	2,448	28,951	53,478	79,635	131,460	172,553	198,891	183,918	160,628	143,083
	면적	2,039	28,216	49,807	74,995	122,882	174,107	201,688	194,006	172,674	164,289
	인증량	35	461	798	1,128	1,786	2,188	2,358	2,216	1,852	1,498
전체농산물 대비 비중 ¹⁾			2.5	4.4	6.2	9.7	11.9	12.2	12.0	10.6	9.6

주: 전체 농산물 대비 비중: (친환경농산물 인증량/농산물 총 생산량) × 100

자료: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친환경인증통계정보<<http://www.enviagro.go.kr>>.

비중을 차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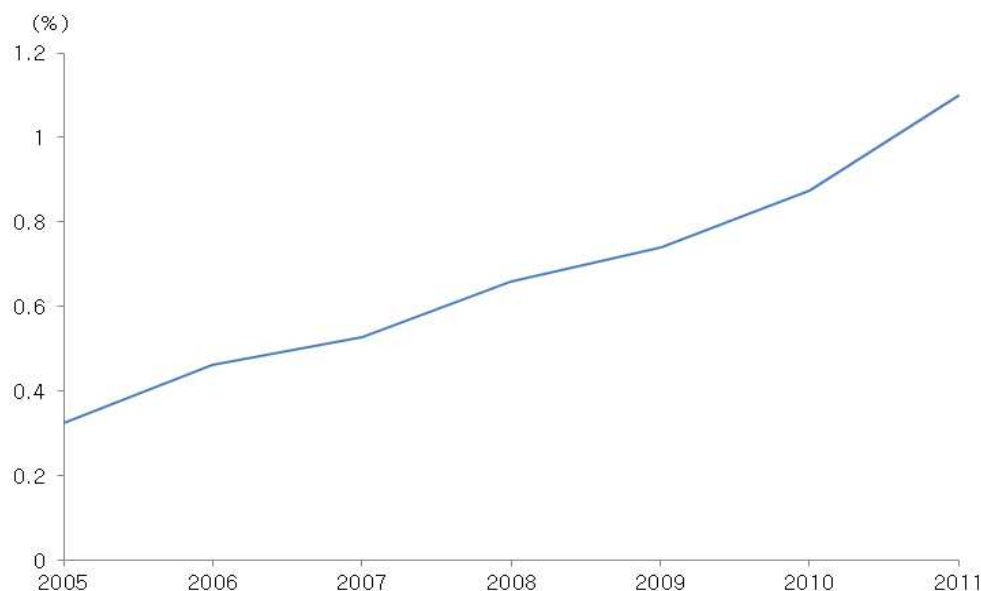
- 저농약농산물은 2010년까지 인증량으로 친환경농산물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2009년부터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 재배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전체 농가 경지면적은 2003년 1,846천ha, 2008년 1,759천ha, 2012년 1,730천ha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통계청, 2012). 친환경농산물의 재배면적은 2000년 2,039ha에서 2008년 174,107ha로, 2009년까지 급격히 증가하다가 2012년 164,289ha로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그러나 2003년 전체 경지면적 대비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이 단 1.2%이었던 반면 2012년 9.5%로 증가함. 이는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 감소가 전체 경지면적 감소와 연결되어 있어서 나타난 현상으로, 전체 경작지 감소에 비해 친환경농산물 경작지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인 차원에서는 줄어들었다고 보기는 어려움을 시사함.

- 유기농산물의 재배면적은 꾸준히 증가해 왔으나 2012년 전체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의 16%로 여전히 제일 작은 비중을 차지함.
- 무농약농산물의 재배면적 역시 꾸준히 증가해왔으며 2012년 전체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의 55%를 차지하며 2010년 이후 저농약농산물의 재배면적을 초과함.
- 저농약농산물의 경우, 전체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으나, 2009년 이후 계속 감소하여 2012년에는 전체의 23%를 차지함.

그림 3-1. 국내 총 경작지 대비 유기농 경작 면적 비중



출처: FAOSTAT(유엔식량농업기구). 2011.

- 인증 단계별 친환경농산물 재배 농가 수 역시 2009년을 최고점으로 2012년까지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유기 농가 수와 무농약 농가 수는 증가하는 데 반해 저농약 농가 수가 이를 초과하여 급격히 감소한 결과임.
- <표 3-2>에 제시된 것처럼 2012년 친환경농산물의 품목별 인증량을 보면 채소류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채소류 > 곡류 > 과실류의 비중을 보임.
 - 유기농산물과 무농약농산물은 채소류와 곡류의 비중이 높음.
 - 저농약농산물의 경우에는 이와는 달리, 과실류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으며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과실류 중 89%가 저농약농산물임.
 - 특용작물과 서류는 유기농산물의 비중이 저농약농산물보다 더 높음.

표 3-2. 품목별 인증 단계별 친환경농산물 출하량(2012년)

단위: 톤

분 류	계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저농약농산물
곡류	343,380	54,025	269,280	20,075
과실류	341,054	9,116	26,850	305,088
채소류	585,004	74,750	351,340	158,914
서류	41,782	9,023	30,157	2,602
특용작물	163,762	6,782	155,434	1,546
기타	23,253	14,560	8,452	241
소 계	1,498,235	168,256	841,513	488,46

자료: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친환경인증통계정보<<http://www.enviagro.go.kr>>.

- 친환경 농산물 소비는 증가 추세임. 2011년 이후 다소 줄어들기는 했지만 꾸준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2000년 연간 0.7kg에 불과했던 1인당 평균 소비량(친환경농산물 출하량/인구)이 2010년에는 45.6kg으로 급격하게 성장했음. 2011년 현재 소비량은 38.1kg임(통계청, 2012).

3. 농업인구와 귀농 정책

3.1. 농업인구

- 농가인구는 2000년 4,031천명에서 2010년 3,063천명으로 연평균 2.7% 감소했고, 연령별 분포는 65세 이상의 고령인구 비중이 2000년 21.7%에서 2005년 29.1%, 2010년 31.8%, 2012년 35.7%로 증가한 반면 15~64세의 생산가능연령층은 2000년 이후 연평균 3.9% 감소함.
- 65세 이상의 고령인구는 증가하는 반면, 15~64세의 생산연령층은 감소하고 이들 연령층을 뒷받침하는 미래세대인 0~14세의 유소년층이 더 빠르게 감소한다는 것은 향후 농가 자체를 유지할 수 있는 인구 재생산구조가 작동하지 않음을 뜻함(김경덕 등, 2012).

표 3-3. 농가인구의 변화 추세

단위: 천 명, (%)

연령 \ 연도	2000년	2005년	2010년	2011년	2012년
전체	4,031(100.0)	3,434(100.0)	3,063(100.0)	2,962(100.0)	2,912(100.0)
유소년 (0~14세)	459(11.4)	355(9.8)	270(8.8)	236(7.9)	216(7.4)
청장년 (15~64세)	2,696(66.9)	2,099(61.1)	1,820(59.4)	1,726(58.3)	1,658(56.9)
노년 (65세 이상)	876(21.7)	999(29.1)	973(31.8)	1,000(33.8)	1,038(35.7)

자료: 통계청 농업조사(2013), 농업총조사(2011).

- 1990년대 초중반까지 우리나라 농가인구는 80대 이상의 고령가구원을 제외하고는 모든 연령층에서 순유출이 발생하였으나 IMF 외환위기를 경험한

1995~2000년 동안 40대 초반과 50대 연령층의 농가구원의 순유입과 그에 따른 5세 이상 14세 이하의 농가구원의 순유입이 발생함.

- IMF 외환위기를 극복한 2000년대 전반은 40대 초중반의 농가구원의 탈농업이 이루어졌으나 45~49세 연령층과 50대 연령층이 농가구원으로 순유입이 이루어짐.
- 최근 2005~2010년 사이 40~50대 장년층을 중심으로 농가구원의 순유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40대 농가구원의 10% 이상이 순유입 인구로 구성되어 있고, 50대 농가구원의 경우 또한 순유입 인구의 비중이 10%에 근접하고 있음. 이는 40~50대 연령층을 중심으로 귀농이 이루어졌음을 의미함(김경덕 등, 2012).

3.2. 귀농 정책

- 농업인구의 충원 정책 중 하나로 귀농 지원 사업이 있음. 주요 귀농 지원 사업에는 귀농어업 창업 및 주택 구입, 현장실습 지원, 지자체 지원, 도시민 농촌 유치지원 사업이 있음.

표 3-4. 귀농인 지원 사업

단위: 천 명, (%)

지원 사업명	주요 내용
귀농어업 창업 및 주택구입	- 대상: 어업 창업 및 주택 구입,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 지원 내용: 영농기반, 농수산물식품 제공·가공시설 신축 비용(세대당 2억 원 이내)과 농어가 주택 구입 및 신축 비용(세대당 4천만 원 이내) 지원 - 지원 형태: 금융자금 100%, 대출금리 3%, 대출기간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지자체 지원	지원 지자체: 강원도(화천군, 양양군), 충청북도(단양군,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충청남도(홍성군, 청양군, 금산군), 전라북도(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임실군, 장수군, 순창군, 남원시, 고창군), 전라남도(영광군, 장성군, 곡성군, 구례군, 나주시, 순천시, 영암군, 강진군), 경상북도(울진군, 봉화군, 예천군, 상주시, 영천시), 경상남도(거창군, 창녕군, 하동군, 남해군), 제주도(서귀포시) 지원 사항: 농어업창업자금, 귀농귀촌 체험학교 운영, 귀농귀촌 통합 홍보마케팅 지원, 빈집 수리비 지원 및 정보 제공, 주택수리비 지원, 농어촌 진흥기금 융자지원, 귀농귀촌 컨설팅 및 교육훈련비 지원, 인대농지, 휴경농지, 빈 축사 등 정보 제공
도시민농촌 유치지원	각 지자체에서 귀농희망자 등 도시민이 안정적으로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이주단계별로 프로그램 운영 1단계(정주 의향 단계): 귀농귀촌지원센터 설치 운영, 정착 귀농인·공무원·단체 등 협의체 구성 2단계(이주 준비 단계): 예비 귀농인 농사체험 등 농촌문화 체험/체득 프로그램, 농촌 빈집 등 부동산 정보 제공 3단계(이주 실행 단계): 귀농인의 집, 창업지원 사업 관련 실질 정보 제공, 관내 사회적 기업 등 참여 안내 등 이주 실행 유도 프로그램 4단계(이주 정착 단계): 귀농인 적응(선도농가 실습) 프로그램, 귀촌인 만남의 장, 귀농귀촌자 학습 모임 구성 등 연차별 적응 프로그램

자료: 귀농귀촌 종합센터 홈페이지.

4. 농업·농촌에 대한 인식

4.1. 농업·농촌 인식 전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2012년 10월 27일부터 11월 23일까지 농업인과 도시민, 전문가를 대상으로 국가 경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중요도, 현재와 미래의 농업·농촌의 역할, 농산물시장 개방에 대한 인식, 농업 개방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과 시행 정도 등 「농업·농촌에 대한 2012년 국민의식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분석함.
- 국가 경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중요성은 도시민(89.6%), 전문가(89.5%), 농업인(83.7%) 모두 전반적으로 ‘앞으로도 중요할 것’이라고 평가함.
- 농업·농촌의 역할 중 현재 중요한 역할로 도시민과 농업인, 전문가 모두 ‘안전한 식품의 안정적 공급’이 가장 높았고, ‘자연환경 보전’ > ‘국토의 균형발전’ > ‘전통문화 계승’ > ‘전원생활 공간’ > ‘관광 및 휴식장소’ 순으로 응답함. 특히 농업인과 전문가 그룹에서 ‘안전한 식품의 안정적 공급’이 중요하다는 응답이 각각 44.5%와 45.3%로 도시민(39.3%)보다 중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음. 자세한 내용은 <표 3-5> 참조.
- 도시민 중 ‘평소 농업 정책 또는 농업·농촌 문제에 관심이 많다’고 대답한 사람은 40.5%, ‘관심 없다’는 응답은 30.3%로 나타났음. 도시민 중 ‘농업 정책 또는 농업·농촌의 문제가 나와 관계 있다’는 응답은 49.6%, ‘관계 없다’는 응답이 46.1%로 비슷함. 또한 우리나라 농업의 실상과 농촌 문제에 관해 도시민 중 32.5%는 ‘알고 있다’고 대답하여 ‘모른다(29%)’에 비해 6.2%p 높게 조사됨.

표 3-5. 현재 중요한 농업·농촌 역할에 대한 인식

단위: %

구분	농업인	도시민	전문가
안전한 식품의 안정적 공급	44.5	39.3	45.3
국토의 균형 발전	16.3	15.8	18.6
자연환경 보전	24.4	22.9	20.3
전통문화의 계승	4.2	10.9	4.1
관광 및 휴식의 장소	3.5	4.3	5.2
전원생활의 공간	6.9	6.7	6.4
기타	0.1	0.1	-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2. 농업·농촌에 대한 2012년 국민의식 조사 결과.

- 농업·농촌에 대한 일반적 의견 중 ‘농업이 잘못되면 국가 경제 전체가 잘못 될 가능성이 높다’에 농업인 78.3%, 도시민 68.5%로 동의 의견이 높았고, ‘농업이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기여해 온 바가 크다’는 의견도 농업인 74.4%, 도시민 62.7%로 찬성 의견이 높게 나타남(<표 3-6> 참조).
- ‘우리 농산물은 외국 농산물에 비해 안전하다’는 문항에 농업인 79.0%, 도시민 76.0%로 두 그룹 모두 찬성 의견이 높은 반면 가격에 대한 문항인 ‘농산물 가격이 공산품 물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싸다’에서는 찬성 의견이 농업인은 72.0%, 도시민은 46.7%로 농업인과 도시민의 의견에 차이가 나타남.
- ‘농산물 가격이 생산비에 미치지 못하면 국가가 소득을 보상해 주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농업인 87.7%, 도시민 63.2%로 농업인의 비율이 더 높지만 도시민의 동의 비율도 높은 편임.
- 이 외에 ‘초·중·고 교과과정에 농업·농촌 체험을 포함시켜야 한다’에 대해서는 두 그룹 모두 찬성이 높았던 반면(도시민 66.7%, 농업인 78.3%), ‘자녀

가 원한다면 농업에 종사하도록 하겠다’는 의견에는 두 그룹 모두 찬성 비율이 낮게 나타남(도시민 28.0%, 농업인 35.5%).

표 3-6. 농업·농촌 관련 의견들에 대한 동의 여부

단위: %

구분	농업인				도시민			
	반대	보통	찬성	모름/ 무응답	반대	보통	찬성	모름/ 무응답
농업이 잘못되면 국가경제 전체가 잘못될 가능성이 높다	3.8	15.0	78.3	2.8	5.0	25.7	68.5	-
농업이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기여해 온 바가 크다	3.3	18.7	74.4	3.6	5.7	31.5	62.7	0.1
우리 농산물은 외국 농산물에 비해 안전하다	5.2	12.0	79.0	3.8	7.1	16.6	76.0	0.3
농산물 가격이 공산품 물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싸다	11.9	12.2	72.0	4.0	17.9	35.3	46.7	0.2
농산물 가격이 생산비에 미치지 못하면 국가가 소득을 보상해 주어야 한다	3.2	6.5	82.7	2.7	7.0	29.6	63.2	0.2
초·중·고 교과과정에 농업·농촌 체험을 포함시켜야 한다	2.7	13.1	80.7	3.5	7.6	25.7	66.7	-
자녀가 원한다면 농업에 종사하도록 하겠다	37.3	24.4	35.3	3.0	38.1	33.8	28.0	0.1

자료: 농업·농촌에 대한 2012년 국민의식 조사 결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식량자급률과 관련된 식량 공급과 농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문항에서는 부정적 인식이 높게 나타남.
- 앞으로 우리나라 식량공급 사정에 대한 전망을 전문가들에게 조사한 결과, ‘불안하다’는 응답이 86.0%로 압도적이었으며, ‘불안하지 않다’는 5.9%에 불과하였음(<표 3-7> 참조).

표 3-7. 우리나라 식량공급 사정에 대한 전문가 전망

단위: %

구분	전혀 불안하지 않다	불안하지 않다	보통	불안한 편이다	매우 불안하다
우리나라 식량공급 사정에 대한 전망	1.2	4.7	8.1	55.8	30.2

자료: 농업·농촌에 대한 2012년 국민의식 조사 결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농산물 시장이 이미 지나치게 개방되었다는 인식은 도시민이 82.2%로, 전문가(75.6%)나 농업인(69.8%)보다 오히려 높게 나타났다. 개방이 확대되면 농업·농촌경제가 위협하다는 인식도 도시민이 84.5%로 농업인(75.5%)과 전문가(83.7%)보다 높게 나타나(<표 3-8> 참조), 개방에 대한 우려는 도시민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느끼고 있음.
- 농산물 시장이 개방될수록 소비자가 유리하다는 인식은 도시민이 60.5%, 농업인 55.5%, 전문가 38.4%로, 전문가 그룹에서 시장 개방 효과를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함.
- 국가는 농업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는 데 동의한 비율은 도시민 92.3%, 농업인 94.8%, 전문가 93.0%로, 대체로 국가가 농업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고 인식함.

표 3-8. 농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인식

단위: %

구분	농업인		도시민		전문가	
	동의 한다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 한다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 한다	동의하지 않는다
이미 지나치게 개방	69.8	25.8	82.2	17.8	75.6	22.1
개방되면 농가/농촌경제 위험	75.5	20.1	84.5	15.5	83.7	16.3
개방될수록 소비자 유리	60.5	39.5	60.5	39.5	38.4	60.5
국가는 농업을 보호할 책임이 있음	92.3	7.7	92.3	7.7	93.0	4.7

자료: 농업·농촌에 대한 2012년 국민의식 조사 결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4.2. 친환경농업에 대한 인식

- 2007년 친환경농업 특화지역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한 생산 및 소득구조,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 농업 후계인력 양성 및 친환경농업 발전 과제 등에 대한 인식을 조사함(허승욱, 2007).
 - 사례지역 응답자들의 전체 재배면적 가운데 수도작 재배를 하는 쌀이 7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60.4%가 향후 유망 작목으로 쌀을 선택함.
 - 소득은 연간 1~2천만 원 미만이 27.6%로 가장 많았고, 친환경농업 실천농가들의 소득수준이 지역 내 일반 농가들보다 비슷하거나 높다는 의견(85.9%)이 많았고 향후 소득은 점차 감소할 것이라는 견해가 40.7%로 나타남.
 - 농업의 지속 여부와 농촌 거주 의향은 89.2%로 높은 반면, 자녀들의 주거지나 농업기술 전수에 대한 의지는 29.9%로 낮게 나타남.
 - 농업 후계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소득안전망 구축 등 경제적 측면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복지시설 확충, 의료시설 확충, 교육 인프라 구축 등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남.
 - 친환경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친환경농업 기술 개발·보급, 친환경농산물의 가격 보전, 친환경 농자재의 보급 확대, 친환경 농가 확대 등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남.
- 친환경농산물을 소비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친환경농산물을 먹게 되면서 가족의 건강이 좋아졌고(57.5%), 자녀의 성장 발육에 도움이 된다(63.4%)고 느끼고 있으며, 가정에서의 식사에 대해 안심하게 되었다(67.2%)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 또한 친환경농산물을 소비함으로써, 친환경농업에 기여하고 있다는 의견(60.3%)과 도농 교류 필요성을 인식했다는 의견(74.9%), 농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58.3%)는 의견도 비교적 높게 나타났음(김호 등, 2010).

5. 친환경농산물 판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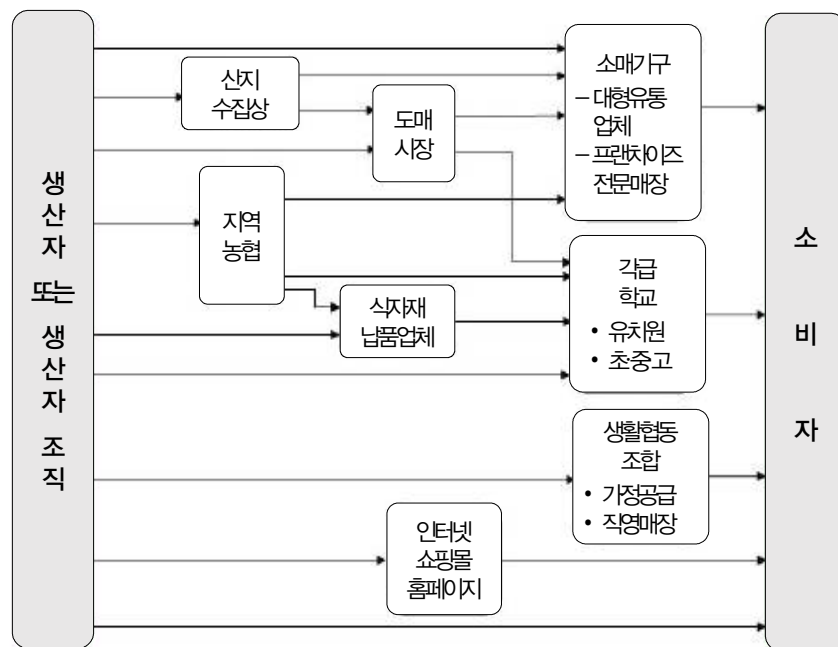
5.1. 친환경농산물 시장 형성

- 1987년 이후 우리나라의 자유주의 시민운동은 농업생산 및 소비와 관련하여 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운동과 친환경농업 등으로 나타남.
- 생협은 1970년대 이후 시민운동의 주체들이 유기농산물의 직거래운동을 조직한 형태임.
- 1989년 농산물 시장이 개방되고 식량자급률이 급락하자 먹을거리 안전성 문제가 급부상하게 되었고, 이에 생협은 환경을 고려하며 더욱 안전한 유기농산물 거래를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서로 협력하여 해결하고자 함.
- 한편 1990년대 중반 이후 생협 등 소비자단체가 우리나라 친환경농산물 유통에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면서 생산자가 시작하고 주도한 유기농업운동과 직거래운동이 1990년대에 들어 소비자에게 확산됨.
- 또한 친환경농산물 시장은 유기재배, 무농약재배와 같은 재배 방법에 따른 상품 특성에 의해 일반 농산물과 다른 시장을 형성하고 있음.
- 재배 방법에 따라 생산비가 달라지기 때문에 친환경농산물의 거래가 성립되기 위한 두 가지 조건 필요함: 1) 재배 방법에 대해 거래 당사자가 서로 인정하고 신뢰해야 함. 2) 거래당사자가 재배 방법에 따라 생산비 차이를 인정하고 그에 따른 상품 가격 차이를 인정해야 함(정은미, 2007).
- 친환경농산물의 주요 유통 주체인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인 생협, 전문유통업체 등은 친환경농산물의 가치 속성에 대해 서로 합의된 상대와 거래함.

5.2. 친환경농산물 주요 판로

- 유기농산물의 유통경로는 <그림 3-2>과 같이 다양하게 나타남. 상품 특성이 유사한 무농약, 저농약농산물 유통경로도 유사할 것임.

그림 3-2. 유기농산물의 유통경로



자료: 김호(2010).

- 2009년 친환경농산물 중 하나인 유기농산물 유통실태에 대한 조사(김호, 2010)에서 유기농산물의 주요 출하처는 생활협동조합(83.1%)으로 나타났고, 그 외에 소비자 직접 판매(3.6%), 대형 유통업체 및 전문매장(2.6%), 도매시장(2.8%), 농협(1.7%) 등 다양한 유통경로가 있으나 생협을 제외하고는 유통량이 적음.
- 상품 특성이 유사한 무농약, 저농약농산물 유통경로도 유사할 것으로 예상됨.

- 친환경농업의 주요 판로인 생활협동조합에는 한살림, iCoop 생협연합회, 여성민우회생협, 두레생협연합회 등이 있으며 생산자 또는 생산자조직과 주로 계약재배 방식을 맺고 있음.
- 계약재배 방식은 출하 기간 내내 큰 가격변동이 없어(고정가격) 출하가격 및 소득이 안정적인 편이기 때문에 생산자의 선호도가 높은 출하처임. 소비자 조합원에게도 판매가격이 연중 내내 거의 고정되어 있어 가격의 예측 가능성이 높음.
- 이밖에 소비자조합원의 사전주문을 통해 주 1~2회 가정별로 공급하거나 직영매장에서 조합원에게 직접 판매하는 방식을 병행함.

5.3. 생활협동조합 현황

- 주요 생활협동조합의 2011년 조합원 수는 한살림 29만 6천 명, iCoop 생협 15만 5천 명, 두레생협 10만 3천 명이었고, 매출액은 iCoop 생협 3천억 원, 한살림 2,191억 원, 두레 750억 원이었음.

표 3-9. 주요 생협 소비자 및 매출 현황

단위: 천명, 억 원

구분	소비자 수		매출액	
	2005	2011	2005	2011
한살림	115	296	809	2,191
iCoop	16	155	601	3,000
두레	34	103	271	750

자료: “99%의 경제:협동조합이 싹튼다 ② 동네생협, 이마트에 도전하다”
(한겨레, 2012. 6. 7일자).

- 주요 생협의 소비자 수와 매출액은 대체로 증가세이며, 특히 iCoop의 증가세가 현저함.
- 한살림 생산자연합회는 2013년 기준으로 약 102개 생산 공동체와 2012년 기준으로 67개의 가공 공동체로 이루어져 있고, 20개 지역의 소비자 조합원 수는 30만 명이며 전국에 161개의 직영매장이 있음.

표 3-10. 한살림 생산자연합회 현황

단위: 개

	서울 경기	강원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충남	충북	제주	전국
생산 공동체 2013년 기준	2	17	12	14	5	2	19	23	8	102
가공 공동체 2012년 기준	15	12	5	4	8	5	7	8	3	67

자료: 한살림생산자연합회 홈페이지.

- iCoop 생협은 2013년 기준으로 전국 75개의 회원생협이 있고, 전국 129개 자연드림 직영매장이 있으며 생산자 2,909명, 소비자 조합원 17.1만 명임.
- 두레생협은 2013년 기준으로 전국 28개의 회원생협이 있고, 전국 94개 직영매장이 있으며 생산 및 가공 단위는 48개임.

표 3-11. 두레생협 생산단위 현황

단위: 개

	서울 경기	강원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충남	충북	제주	전국
생산	4	2		2	2	2		1	1	14
가공	14	3	3	4	5		3	2		34

자료: 두레생협연합 홈페이지.

6. 친환경농업 교육

6.1.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 교육 계획

- 2011년 기존 친환경농업 바우처교육의 한계(단기, 기초과정 중심)를 극복하고, 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며 친환경농업의 질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교육기관 중심의 공모제인 ‘친환경교육 기본 계획’을 마련함.
 - 기본 계획의 목표는 개방화시대에 우리 농업을 이끌어갈 친환경농업인을 육성하는 것임.
 - 2016년 저농약 인증 전면 폐지에 따른 무농약·유기농으로 전환하기 위한 교육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필요가 제기되고 있음.
 - 주요 내용은 기존 바우처의 복잡한 교육과정을 간소화하고, 단계적으로 교육 유형·대상·내용을 다변화하며, 교육기관 평가 시스템 구축과 사후관리 강화, 친환경 교육예산 점진적 확충 및 전문인력 양성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임.
 - 교육 내용은 ‘친환경농업 정책 방향’과 ‘친환경농업의 이해’ 과정을 필수로 편성하고 품목별 무농약·유기농업 재배기술 중심으로 구성함.
 - 교육 기간은 기초 1~2일, 입문 2~3일, 심화 1~2주로 무농약 및 유기농 친환경 농가로 전환하기 위한 입문 및 심화과정 위주로 진행됨.
- 2013년도 친환경농업육성지원사업 농림사업시행지침서에 의하면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친환경비료 지원사업,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녹비작물종자대 지원사업,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 등을 주로 지원함. 즉, 중앙정부 차원에서 친환경농업교육의 중요도가 낮음.

6.2. 생산자 및 소비자 교육

- 시군 농업기술센터, 각 지자체, 민간단체, 유기농업협회 등의 기관에서 농산물 생산자를 대상으로 한 친환경농업 교육이 일반화되어 있음.
- 농업기술센터는 전국에 154개의 센터가 설치되어 있고 시군센터의 자율성을 부여하여 지역 여건을 고려한 농업기술개발 및 보급 사업을 추진토록 유도하여 센터를 지역농업 중심기관으로 육성함.

표 3-12. 전국 농업기술센터 현황

단위: 개

	서울 경기	광역시	강원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충남	충북	제주	전국
농업기술센터	22	10	16	19	24	20	12	15	12	4	154

자료: 네이버 검색.

- 각 지역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친환경농업 생산자에 대한 교육으로 친환경농업의 이해, 친환경농업과 인증, 친환경농산물 재배, 토양미생물 이용, 방제기술 등 친환경농업 기술에 관한 교육을 진행하나 전반적으로 친환경농업 교육 과정이 많지 않음.
- 민간기관인 흙살림은 사회적 기업으로서 전통기술과 현대의 과학기술을 접목하여 유기농업 기술을 발굴하는 연구와 함께 유기농업의 필요성, 미생물과 유기물 활용 방법 등 유기농업에 필요한 생산자 교육을 진행해옴.
- 한국유기농업협회는 충청남도 제천에 교육장(생활관, 강의실, 실습장 하우스)이 있으며 1박 2일에서 3박 4일의 연수 형태로 교육을 진행함. 교육 내용은 유기농업, 윤작의 기본 원리, 거름 만들기, 농장에 불필요한 벌레 잡기,

친환경농업 육성법 및 인증 신청 요령, 유기농업 농장체험 및 탐방과 실습 등임.

- 귀농인에 대한 교육은 각 지자체의 귀농 지원의 일부로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귀농운동 관련 기관에서 교육을 제공함.
 - 전국귀농운동본부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의 사단법인으로 귀농을 통한 생태적 가치와 자립적인 삶의 가치를 공유하며 귀농희망자를 대상으로 귀농학교와 실습농장 등 친환경농업 교육을 운영하고 귀농자의 정착을 지원함.
- 도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친환경농업 교육은 주로 친환경/유기농 생산자 단체 및 생협 단체에서 비정기적으로 운영함.
 - 도농 교류 및 직거래 확대를 위한 교육이나 학교 급식 확대 차원에서 학교 급식 담당교사 및 학교장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진행됨.
 - 소비자 교육의 경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체험교육 위주로 진행됨.

제 4 장

사례 조사

1. 개요

-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지속가능한 농업의 특징을 정리하고 사회성을 분석하는 것임. 이를 위해 김창길·김정호(2002)에서 지속가능한 농업 정의에 사용한 개념인 환경적으로 건전하며(environmentally sound), 경제적으로 수익성이 보장되고(economically viable),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Socially acceptable) 농업을 고려하여 사례 조사 지역과 농가를 선정하였음.
- 사례 조사 지역 선정을 위해 네이버 기사 검색을 활용하였음.
 - 2013년 3월에서 7월까지 ‘지속가능한 농업’으로 총 29개의 신문사에서 56건의 기사를 검색하였음.
 - 56건 기사 가운데 지속가능한 농업의 지역적 현황과 관련 제도를 중심으로 29건의 기사에서 다시 주제어를 선정하였음. 영농후계인(젊은 농업인), 농업경영, 귀농·귀촌, 협동조합(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농촌관광, 로컬푸드, 6차산업, 농정 전략, 농촌지도자, 교육을 검색어로 결정하였음.

- 이 주제어들을 환경적 지속가능성, 경제적 지속가능성, 사회적 지속가능성으로 분류하여 재정리하였음(<표 4-1>).
- 제주의 경우 섬이라는 고립된 여건과 육지와 다른 기후 조건 속에서 농업을 지속해오는 데는 사회적 대응이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파악하여 주요 사례지에 포함함. 특히 최근 UN 식량농업기구(FAO)가 주관하는 세계 중요농업유산에 제주도의 밭담 등재를 추진하고 있기에 밭담이라는 독특한 농업유산이 어떻게 사회적으로 형성되어 왔는지 살펴보는 것도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창(window)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제주를 사례 대상지에 포함함.

표 4-1. 지속가능한 농업 주요 개념과 주요 하위 구성 요소

주요 개념	주요 단어
환경적 지속가능성	자연자원 보존 에너지 저투입 저투입 농업 친환경농법(미생물, 유기농 등) 로컬푸드
경제적 지속가능성	농업경영 농촌관광 농정전략 일자리 창출
사회적 지속가능성	영농후계인(젊은 영농인) 귀농귀촌 농촌지도자(리더 양성) 협동조합 농민운동 교육

- 재정리한 내용을 토대로 지속가능한 농업의 조사 대상 지역을 선정하였음.
이들 지역은 모두 친환경농법으로 농사를 짓고 있음.

○ 지역의 특징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두물머리는 우리나라에서 유기농을 최초로 지역 단위에서 실행한 곳임. 그러나 4대강 사업으로 현재는 중단된 상태임. 그럼에도 유기농산물에 대한 철학과 전통이 오래 남아 있는 곳임.
- 제주도는 지역의 특수성(섬의 고립성, 열악한 토지, 육지와 다른 기후, 끈 끈한 향토애 등)이 맞물려 유기농이 점차 형성되어 가고 있는 지역임.
- 홍성군 홍동면의 홍동마을은 농업교육과 유기농업이 적절히 잘 이루어진 지역임.
- 완주는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주도하여 지역 로컬푸드 체계를 만들어가고 있는 지역임.
- 이러한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표 4-2>와 같음.

표 4-2. 지속가능한 농업 조사 대상 지역

조사 지역	환경적 지속가능성	경제적 지속가능성	사회적 지속가능성
경기도 양주시 두물머리	친환경 농업 자연자원 보존	농정전략 농촌관광	농민운동 교육
제주도 한림읍 조천읍 한울공동체	친환경 농업	농업경영 일자리 창출	농촌지도자 교육
충청남도 홍성군 홍동면, 장곡면	친환경 농업	협동조합 농촌관광화 일자리 창출	귀농귀촌 농촌지도자
전라북도 완주군	친환경 농업	농정전략	로컬푸드 커뮤니티

○ 조사 대상자는 지역 사정을 잘 알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과 실제 농사를 짓는 이들로 선정하였음. 인터뷰 대상자를 정리하면 <표 4-3>과 같음.

표 4-3. 지역별 피면접자들

조사 지역	인터뷰 대상자
경기도 양주시 두물머리	A(한국 BM 협회) B(팔당생명살림 생활협동조합)
제주도 한림읍 조천읍 한울공동체	C1(유기농 농민, 男), C2(유기농 농민, 女) D1(유기농 2세대), D2(귀농인) E(한울공동체)
충청남도 홍성군 홍동면, 장곡면	F(홍성유기농영농조합) G(마을활력소) H(귀농인) I(여성농업인센터) J(폴무학교 전공부 졸업) K(젊은협업농장)
전라북도 완주군	L(인덕마을 두레농장) M(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

○ 조사 방식은 직접면접을 선택했음. 공통 질문을 바탕으로 지역의 특징에 맞게 상황에 따라 달리 질문하였음. 인터뷰는 질문자가 질문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한 상태에서 이루어졌으며 최대한 자연스러운 답을 이끌어 내기 위해 필요에 따라 일손을 거들기도 하였음. 공통 질문은 다음과 같음.

- 농업 현황(규모, 작물, 특징 등)
- 유기농업을 시작하게 된 배경(각성, 계기, 경험 등)
- 유기농업과 일반 농업(관행농업)의 차이점
- 지역 내 조직/단체의 역할
- 리더의 역할
-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 농협의 역할
- 현지 농민이 생각하는 지속가능한 농업이란?
- 지속가능한 농업의 조건(사회적 여건)/요소

- 인력 재생산(영농후계자, 풀무학교, 교육) 문제
 - 판로 문제
 - 지속가능한 농업과 에너지의 관계 등
- 이러한 심층면접 내용을 녹음하여 전사한 후 주요 개념어들을 도출하고 이를 유사 개념들로 분류하였음. 이러한 귀납적 접근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의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구성하는 요소로 생산자의 가치/인식/태도, 농법, 농민 층원, 조직(내부 네트워크, 외부와의 네트워크 포함), 교육 등을 확인할 수 있었음. 또한, 이러한 지속가능한 농업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조건으로 소비자의 가치/인식/태도, 정책/제도, 지도자, 교육, 판로, 지속가능한 농촌 등을 도출할 수 있었음.
- 이러한 지속가능한 농업의 사회적 요소와 이를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조건을 기초로 하여 각 사례지의 피면접자들의 의견을 정리하였음.

2. 두물머리

2.1. 현황

- 두물머리는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의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는 지점에 위치하고 있음.
- 유기농은 1976년 처음 시작하였고, 1989년에는 강 건너 남양주시 조안면, 광주시 일대, 하남시까지 확대되었음. 1995년에 ‘팔당상수원유기농업운동본부’(팔당생명살림의 전신)가 설립되었음. 이후 한국유기농협회 조안지회 설립 등이 이뤄져, 팔당유기농 단지로서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하였음(시사IN

2009. 9. 15일자).

-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정비 사업으로 ‘한강 살리기 제1공구’ 지역에 포함되면서, 유기농지에 대해 2009년 12월 ‘하천점용허가 취소요청’이 내려졌음. 이 조치에 하천점용허가에 따른 임대기간이 남은 농민들의 저항이 이어졌고, 결국 점용허가 취소에 대한 ‘하천점용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으로 이어졌음(한겨레 2011. 2. 16일자).
- 정부와 농민 간 소송이 계속되었고 지역 농민들은 해당 기간 동안 이 지역에서 제대로 농사를 짓지 못하였음. 최근 정부와의 합의가 일단락되어(경향신문 2012. 8. 14일자), 유기농을 하던 농부들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였고, 현재는 이곳은 농사를 짓는 땅이 없는 상태임.

2.2. 특징

- 두물머리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A씨와 B씨를 인터뷰하였음. A씨는 이 지역에서 초기부터 정착하여 유기농을 시작하였기 때문에 누구보다 지역 사정을 잘 파악하고 있음. 한편 B씨는 귀농인으로 약 5년간 두물머리에서 농사를 지었음.
- 이 지역은 퇴적으로 형성된 지역으로 토지가 비옥하고 일조량과 지하수도 풍부함. 또한 농약에 오염되지 않아서 유기농을 하기에 최적의 지역임.
 - 4대강 사업 당시 이 지역을 공원 등의 시설로 개발하려 하였으나, 현재는 합의 끝에 생태학습장을 조성하기로 함.
 - 4대강 사업으로 인해 농업을 포기한 사람은 없으나 상당 기간 정상적인 농업 활동이 어려웠고, 현재는 모두 근처의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여 농업을 이어가거나 이어갈 준비를 하고 있음.

- 양평 지역은 지자체 차원에서 유기농을 지원하고 있음. 실제로 ‘군 농정’이 ‘친환경 유기농’이라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기농의 비율이 높은 편임. 초기 민선 군수가 내리 3선을 하면서 농업에 대한 정책을 뿌리 내리게 함.
- 유기농의 발전을 위해서는 소비자의 의식 수준도 중요함. 생산, 공급자가 서로 보완적인 역할을 해야 유기농이 발전 가능함.
 - 농사를 지을 때 인간에게 해를 줄 수 있는 약품 등을 사용하지 않고 자연의 것들을 이용해야만 농업이 지속가능할 수 있음. 농촌의 공동체 정신 회복, 인간성 회복도 중요한 요소임.
- 또한 이 지역에는 협동조합, 영농조합 법인 등의 생산자 조직이 ‘한살림’ 등의 소비자 조직과 연결하여 직거래하였음. 이를 통해 소비자와 생산자가 확장됨.
 - 한편 유기농업이 증가하기 위해서는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의 의식 전환이 필요함. 이를 위해 소비자 조직인 생협을 통해 다양한 생산자 조직의 사람들을 만나며, 이를 통해 정보 교환, 교육 등을 수행하고 있음.
- 이밖에 유기농업은 관행농업에 비해 에너지를 적게 사용함. 유기농을 하는 사람들은 관행농에 비해 에너지 소비를 덜 하려고 함. 제철음식먹기운동 등도 그러한 노력의 일환임. 농사의 규모 또한 1인당 3,000평 정도로 대규모 기계의 힘을 빌리지 않아도 되는 정도임.
- 심각한 문제는 젊은 농업인이 부족하다는 것임. 귀농자들 또한 경제적, 문화적 적응의 실패로 귀농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음. 농업 인구 유지를 위해서는 민간의 역할도 필요하지만 정책적인 도움이 중요함. 유기농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자녀들에게 농업을 시키겠다는 의견은 소수임. 농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전환이 선행되지 않으면 안 됨.

- 현재 두물머리에서 유기농 농사를 짓던 사람들 가운데 농사를 포기한 사람은 없음. 대체지역으로 개군면을 선정하고 농사를 준비 중임. 그러나 개군면의 경우 관행농이 40년 이상 뿌리박고 있어 주변의 인식을 바꾸기가 쉽지 않은 형편임.

2.3. 두물머리 사회성 분석

- 인터뷰 내용을 근거로 지속가능한 농업의 사회적 요소, 조건으로 분류하여 살펴보았음. 사회성을 대표하는 사회적 요소와 조건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음.
 - 공통적인 사회적 요소는 농법, 조직으로 나타났음. 실제로 이들 요소는 지속가능한 농업의 대표적인 특징을 반영하고 있음.
 - 가치/인식/태도, 지역도 사회적 요소에 포함되었음. 일반적으로 유기농업에 대한 가치/인식/태도는 사회적 조건에 해당하지만, 농사다운 농사를 짓자는 근본적인 생각은 핵심적인 특징이기 때문에 요소로 분류되었음. 참고로 사회적 요소와 조건, 두 분류에 속한 경우는 함께 표기하였음.
 - 한편 공통된 사회적 조건으로는 가치/인식/태도, 농민 충원, 제도정책, 지도자를 선정하였음. 이는 농업 자체의 지속가능성, 곧 농민이 충원되어야만 지속가능한 농업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함. 또한 정책적 뒷받침이 없으면 농업의 기반이 흔들릴 수 있음을 뜻하는 것이기도 함. 뜻있는 지도자가 선도하여 조직을 일구는 것은 매우 중요하나, 이것이 없다고 지속가능한 농업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에 사회적 여건의 의미로 조건으로 분류함.
 - 이밖에 사회적 조건 가운데 눈여겨볼 만한 것은 자녀교육이었음. 귀농한 사람들의 경우 자녀들의 교육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서 지역에서 이 부분에 대한 수요가 채워지지 못하면 안정적인 정착이 어려운 실정임.

2.3.1. 두물머리 A

표 4-4. 두물머리 사회성 분석(한국 BM 협회 A)

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내용)
요소	생산자의 가치/인식/태도	농업 인식	· 농업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인식이 유기농을 본격적으로 하게 함
	농법	기술	· 미생물 이용한 BM 수 개발로 천연 살충제, 비료 등의 효과를 나타냄(유기농에 필요)
	농법	농사 규모	· 기계를 사용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규모
	농법	토지	· 두물머리는 옥토 지역으로 유기농을 하기에 적합
	농민 충원	자녀 교육	· 일본의 농업학교로 유학 보냄
	조직	농민 조직	· 의견 반영을 위한 농민 조직의 필요성
조건	소비자의 가치/인식/태도	소비자 인식	· 소비자의 의식 수준이 유기농 발전에 영향을 미침
	가치/인식/태도	공동체 정신	· 농촌의 유지를 위한 조건
	가치/인식/태도	인간성 회복	· 농촌의 유지를 위한 조건
	제도/정책	자치단체 정책	· 양평군의 정책상 유기농의 비율이 높음
	지도자	지도자	· 유기농을 잘하기 위해서는 의식 있는 뛰어난 지도자가 필요함

2.3.2. 두물머리 B

표 4-5. 두물머리 사회성 분석(팔당생명살림 협동조합 B)

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내용)
요소	교육	농업 교육 프로그램	· 귀농 시 바로 농사를 시작한 것이 아니라 조합 일을 도우며 조금씩 배움(적응 과정)
	교육	학력 수준	· 관행농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
	농법	저에너지 사용	· 유기농은 기본적으로 관행농에 비해 에너지를 적게 사용

표 4-5. 두물머리 사회성 분석(팔당생명살림 협동조합 B) (계속)

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내용)
요소	농법	기계 지양	• 땅에 대한 문제 등으로 기계 사용을 지양
	농법	제철 농사	• 제철에 날 수 있는 작물 재배를 기본적으로 생각함
	조직	생산자 조직	• 작목반 등의 규모로 출발하였으나 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등의 생산자 조직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관련 조합을 조직함
	생산자의 가치/인식/태도	인식의 차이	• 농업인이 유기농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함
	생산자의 가치/인식/태도	생산자 인식	• 생산자의 농업에 대한 인식이 유기농으로 전환하기 위한 조건임
	교육	자녀 교육	• 자녀들에게 농업을 물려주려는 사람이 많지 않음
	내부 네트워크	조직 간 교류	• 생협 등을 매개로 정보 교환, 교육, 테스트 등을 함
	농민 충원	인력 부족	• 젊은 귀농인이 부족함
조건	농민 충원	정착 과정	• 경제적, 문화적 이유로 정착에 실패하고 돌아가는 경우가 많음
	소비자의 가치/인식/태도	소비자 인식	• 소비자의 유기농에 대한 인식은 유기농을 더욱 확산시킬 수 있음
	소비자의 가치/인식/태도	소비자 자각	•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제철음식이 아닌 것을 지어야 하는 경우도 있음
	가치/인식/태도	신뢰	• 농민, 소비자, 정부 간의 신뢰도 유기농 확산을 위해 필요한 조건임
	소비자의 가치/인식/태도	소비자 인식	• 착한 소비자가 늘어나면 정직한 농부도 많아질 것임.
	농민 충원	인식 개선	• 농업과 농민에 대한 인식 개선이 선행되어야 농업 인구 증가를 기대할 수 있음
	제도/정책	4대강	• 4대강 사업으로 인해 농업을 일시 중단함
	제도/정책	지자체 지원	• 유기농에 대해 지자체에서 각종 지원을 해줌
	판로	소비자 조직	• ‘한살림’ 등에 도움을 요청함
	지도자	정상목 회장	• 귀농 시 정착하게 도와줌
	지도자	군수의 정책	• 초기 민선 군수(민병철)가 내리 3선을 하며 이 지역에 농업에 대한 정책 철학을 뿌리내림

3. 제주도

3.1. 현황

- 제주도는 총 면적이 1,849.3km²이고 이 중 밭은 366.4km², 과수원은 165.8km²로 전체 면적의 28.8%가 농지(제주특별자치도, 2012)임. 2010년 기준 농림어업이 지역 총 생산 중 15%를 차지하고 있음.
- 2012년 제주도에서 인증 받은 유기농산물은 155건이며, 260가구가 1,488ha(14.88km²)의 면적에서 8,924톤의 농산물을 생산하여 출하하고 있음. 인증 받은 무농약농산물은 749건이며, 871가구가 1,079ha(10.79km²)의 면적에서 8,855톤의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음. 인증 받은 저농약 농산물은 180건이며, 211가구가 162ha의 면적에서 2,369톤의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음(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2013).
- 충남, 전북, 경남의 경우, 친환경 인증 건수가 많으나 그 중 상당수가 저농약 농산물인 반면, 제주도는 저농약농산물의 출하량이 2,369톤으로 무농약과 유기농산물의 비중이 월등히 높음.

3.2. 특징

3.2.1. 제주시 한림읍 농가

- 비슷한 가치를 지향하는 농부들과 함께 작목반을 구성하였음.
 - 서로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여러 지역의 농부들이 모여 하나의 작목반을 구성하고 있음. 작목반을 구성한 주된 이유는 다양한 작물을 일정량 이상

공급받고자 하는 판로의 요구 때문임. 유기농업과 무농약농업을 하는 농가들이 혼재하고 있음.

- 작목반을 통해 농업과 관련된 정보를 교환하고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개개인의 출하량을 조절하고 있음.

○ 안정된 판로를 찾는 것이 중요함.

- 한살림, 풀무원, 중간도매상(백화점 납품)에 농산물을 공급함. 그 중 한살림이 주된 공급처임. 이런 안정된 공급처를 찾기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며 현재 작목반원을 늘리지 못하는 이유도 판로가 한정적이기 때문임.
- 판로를 개척할 당시, 부당한 일을 겪어도 농민 개개인 단위에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었음.

○ 한살림과의 계약 방식은 예측 가능하고 정기적인 소득을 제공하여 생활의 안정성을 향상시키고 적은 인원으로 넓은 면적을 경작할 수 있게 함.

- 한살림은 작물별로 가격을 고정하며 농부는 시장가격이 높을 때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을 감수해야 하고 시장가격이 낮을 때는 상대적으로 이익을 보는 등의 장단점이 있으나, 이러한 계약 방식으로 인해 소득에 대한 예측이 가능해짐.
- 공급한 농산물의 대금은 한 달에 두 번씩 농가 계좌로 입금되어 소득이 꾸준히 유지되며 이러한 소규모의 정기적인 주문/결제 방식으로 인해 수확 시에 많은 인원이 필요치 않아 적은 인원이 넓은 면적을 경작할 수 있음.

○ 일부 정책적인 지원을 받고 있으나 유기농업을 시작/유지하는 데에 결정적이지 않음.

- 유기농업과 관련된 정책 지원으로는 유기농업 자재 50% 지원, 영농후계자들을 위한 농업기술원 교육이 있었음. 그러나 유기농업을 장려한다면서 동시에 헬리콥터를 사용한 공중 방제를 하는 등 정책의 일관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함.

- 소비자, 공급처에 대한 신뢰와 연대감을 느끼고 있으며(사회적 거리가 짧으며) 지속적인 교육과 상호교류를 통해 이를 강화함.
- 한살림과의 거래 가격이 시장가격보다 낮을 때 시장에 팔지 않는 이유를 묻자, 자신들의 농산물을 기다리고 있을 소비자들을 걱정하기 때문이라고 답했으며, 한살림은 우리 농촌에서 시작된 것으로 이를 키우고 지속시켜야 우리에게도 좋다고 답변함. 한살림 소비자 조합원들은 1년에 한 번씩 농가들을 방문하는 등의 기회를 통해 소비자들과의 거리를 좁히고 서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나가고 있음. 농부들은 한살림, 유기농업협회 등에서 제공하는 교육을 통해 농법을 습득할 뿐 아니라, 유기농업과 관계된 환경(자연환경, 사회환경)에 대해 이해함.

3.2.2. 고천농원

- 고천농원은 2대째 유기농으로 작물을 재배하고 있으며 전부 한살림에 납품함. 귀농 5개월째인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고용 중임.
- 농촌 인력 상황
 - 제주 농촌 평균 나이: 56세.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낮지만 많이 고령화된 상태. 자녀가 어린 걸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밭에 있는 인력은 거의 할머니 들임.
 - 인력사무소: 일을 소개해주는 곳이 있으나 농사를 알려주지는 않음.
 - 일당: 남자 기준 일당으로 가족 없는 사람은 15일만 일해도 먹고 살 수 있음. 밭일은 주로 여성을 원함. 일손은 항상 부족함.
 - 외국인 노동자: 영농조합법인을 통해 숙식을 제공할 수 있는 집을 마련해야 함. 대부분 선진 교육을 연수받으러 오는 사람들. 한 달 인건비가 150만 원, 식비가 한 달에 100만 원이어서 부담이 됨. 한국 사람들보다는 일을 잘한다고 함.

○ 유기농

- 보람: 노력한 결과에 대해서 소비자가 인정해줄 때. 물건마다 붙어 나가는 인증 스티커에 있는 연락처를 보고 소비자로부터 더 맛있었다고 연락이 옵니다.
- 고집: 자기만의 농업 스타일이 필요. 제조제 등 쉬운 일에 대한 유혹을 이겨내는 고집이 필요. 친환경 인증 심사처도 사람의 됴됨이를 먼저 봄.
- 가격 경쟁력 상실: 예전에 비해 유기농을 해도 비싼 가격을 못 받음.
- 농약의 유혹: 요즘 농약이 예전처럼 독하지 않아서 크게 거부감이 없음.
- 경매 가격: 모양이 예쁘게 생기고 똑같이 생긴 것들이 비싼 값을 받는 것은 소비자들의 선택이 그 원인임.

○ 제주 지역 특성

- 제주 특산물: 곱은 제주에서 정한 물가로 제주도가 거의 독점.
- 정착민이 주로 농사를 짓고 있음. 변화가 느림.
- 높은 운송비: 가격 경쟁력 상실. 제주는 운송비가 많이 든다는 단점으로 가격이 동등할 때 장점이 없음. 경매장까지 가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농부가 부담하기 때문.

○ 농업 관련 조직들

- 작목반: 농협에 소속되어 있는 단위. 작목반을 중심으로 기존에 농사짓던 품종에 더해서 새 품종을 조금 더 해보는 식으로 작물에 변화를 유도하기도 함.
- 유기농 유통 농협: 유기농 유통을 하는 농협이 한 군데 있는데 유통 부서에서 친환경 작목반을 구성해서 직접 영업을 땀.
- 농업 관련 조직: 유기농협회, 친환경농업인단체연합, 영농조합, 농민단체, 친환경농법에 따른 단체들. 한 사람이 여러 군데 소속되어 있음. 정보가 확 퍼지지 않는다고 알음알음 퍼짐.

○ 새로운 기술의 도입

- 무료 배포 기술: 제주도 기술센터에서 미생물제, 광합성미생물효소, 효모, 바실러스균을 무상으로 배포. 쓸 만함.
- 높은 가격: 친환경 자재는 계속 나오기는 하는데 가격이 비쌌. 친환경 농산물이 예전처럼 두 배, 세 배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농사법은 힘들.
- 사기업: 선진기술, 선진교육은 영업하는 사람들이 먼저 덤빔. 친환경 쪽은 일본이 앞서 있어서 좋은 자재를 들여옴. 유기농협회 같은 데서 현미아미노산 같은 자재를 일 년에 한 번씩 교육함. 교육하면서 광고. 교육 반, 광고 반. 써보고 좋으면 입소문이 나고 아니면 돈만 날림. 못된 사기업의 경우 약은 잘 듣지만 알고 보니 농약이 검출되는 경우도 있음. 친환경 자재 만드는 회사들은 대부분 영세함.

○ 한살림

- 일반 유통: 소비자들이 벌어진 마늘 같은 것은 사지 않음.
- 한살림: 처음에 만들 때 이념이 ‘농민이 안심하고 계속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자’가 목표였음. 한살림에 납품하기로 했으면 농사가 잘되든 안 되든 한살림에서 다 사줌.
- 한살림: 한살림 신조가 생명살림, 밥상살림, 농업살림. 지속가능 농업을 위해서 농민이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 수 있는 정도의 영농 규모를 보장해주고 판로를 만들어줌. 소비자는 좋은 농산물을 먹을 수 있음.

○ 토양

- 고령토: 우리나라 땅을 지질학적으로 고령토. 늙은 흙이라는 뜻. 땅이 힘이 없고 다 늙어서 영양분이 거의 없음. 도자기 재료로는 유명하나 농사짓기에는 굉장히 안 좋은 땅. 판계아 대륙 때 이미 한반도 땅이 생겨남. 지구에서 가장 오래된 땅 중의 하나.
- 비료: 고령토라 양분이 거의 없어서 비료를 한 번 주면 효과가 좋음. 비료

를 주는 관행농을 하면 농사가 잘됨.

- 제주도: 육지 대부분이 고령토. 전라도 쪽은 땅이 더 좋음. 제주도는 화산 섬이기 이전에 세 번에 걸쳐서 만들어짐. 처음에는 삼방산 쪽 땅이 융기하고, 육지와 같은 퇴적층이 생김. 그 뒤 용암이 끓어올라 새면서 자갈 같은 것들이 많이 생김. 마지막으로 화산이 터지면서 한라산과 오름들이 생김. 화산재가 많이 쌓인 쪽에는 자갈이 없어서 식물이 잘 자람. 돌이 많으면 당근 같은 것들은 모양이 안 좋아서 브로콜리, 양배추, 원예작물을 많이 함.

○ 비료 및 퇴비

- 퇴비: 화학비료는 공장에서 화학적으로 만들어낸 것. 퇴비는 돼지똥, 닭똥을 모아서 발효시킨 것. 비료는 알이 작아서 손으로 뿌려지거나 물에 타서 뿌리면 되는데 퇴비는 똥을 삼으로 퍼서 다 퍼뜨려야 하니 다루기 어려움. 제주에는 화산재가 덮여 있어서 정화 능력이 뛰어나 농약이나 퇴비 모두 걸러지므로 지하수 오염이 없음.
- 음식물쓰레기 퇴비: 쓰는 사람이 별로 없고 파는 곳을 못 봄.
- 친환경 자재: 친환경 제초제가 있긴 한데 효과가 떨어짐.

○ 에너지

- 에너지 절약 정도: 전기는 어느 정도 고려. 물은 고려 안 하는 편.
- 농업용 전기: 가격이 저렴. 저온 저장고 등.
- 한살림 규정: 한살림은 하우스에 난방을 넣는 등 화석연료로 농사지은 작물을 허용하지 않음. 난방 안 하는 하우스만 허용.

○ 지속가능한 농업

- 농민이 생각하는 지속가능한 농업: 단기로는 농사만 지어서 먹고 살 수 있는 보장이 되는 것. 장기로는 농토가 화학비료 등으로 오염이 안 돼서 후세에도 농업이 이어지는 것. 단기, 장기를 같이 봐야 하기 때문에 고집 있는 농부가 될 수밖에 없음.

3.2.3. 한울공동체

○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조건은 아래와 같음.

- 1차적으로 농촌 지역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올바른 방법으로 농산물을 생산하는 지역순환농업 중심으로 가야 함.
- 우리가 친환경농업을 한다는 자체가 올바른 양심을 가진 것임.
- 지역 농민들이 외부의 충격을 덜 받으며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방식이어야 함.
- 친환경농업에 사용하는 유기질 비료값도 화학비료값처럼 폭등할 수 있음. 무엇보다도 종자, 영양분 공급, 에너지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이 중 영양분 공급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음.
- 지역 내에서 스스로 내적 요인을 찾으며 농촌 지역의 농업 문제를 풀어야 함.

○ 지역순환농업 계기

- FTA 등 자유무역으로 우리나라 농업이 위협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농업 운동가로 정책을 바꾸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실천하는 사람도 필요함을 인식함.
- 고령화에 대해 지역과 정책 모두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 지역순환농업(농축)의 실천

- 보리짚과 콩 등을 길러 소비자에게 공급하고 보리매강과 비산품 보리, 콩 등을 먹이면서 약 6년째 국산사료 한우를 키우고 있음.
- 소의 분뇨는 퇴비화하여 밭에 영양분으로 공급하여 지역 내 자원을 순환시키는 농업임.
- 각 농가당 소 15~20두를 키우고 퇴비화한 분뇨는 5,000평 정도에 뿌려지는 양임.
- 한 밭에 분뇨 퇴비는 2년에 한 번 정도 뿌려지는 것이 적당함.
- 윤작 돌려짓기를 해보면 적당량의 유기질 비료만으로도 부족한 영양 부분

을 메울 수 있음.

- 지역순환농업은 가족농 중심으로 다품종 소량 생산하는 것이 적절함.
- 지역순환농업으로 영양분 자급률을 늘리고 있음.
- 2015년까지 분뇨 퇴비를 이용한 영양분 자급률 40% 목표가 이미 달성되었음.

○ 한울공동체의 역할

- 9가구가 참여하고 있고 조합원 간에 공동작업(무 수확, 무말랭이, 미숫가루 등)을 많이 하며 공동체 내 원활한 소통을 지향함.
- 여성 농민들과 함께 지역 내 손길이 필요한 노인정 등을 방문함.
- 지역 사람들의 마음을 풀어냄.
- 한울공동체 내에서 합의를 통해 생산 계획을 세움.

○ 제주도 내 유기농 확대 노력을 위해 조직이 하는 일

- 개인적으로 농사를 지으면 판로 확보 등 농업 지속이 어려움.
- 친환경농업단체연합회를 만들고, 영농조합법인 중심의 예산 지원체계를 만드는 등 제주도 농업 환경을 바꾸어 놓음.
- 제주도 친환경농업협회 주축으로 전국 최초 친환경학교급식 조례를 만들어 학교에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고 있음.

○ 판로(성남용인 한살림)가 중요

- 3년째 성남용인 한살림과 자급 한우 사업을 하고 있음.
- 전국에서 국산사료 한우를 제대로 하는 곳이 제주 한울공동체여서 성남용인한살림에서 사업을 제안함.
- 성남용인 한살림 소비자들이 불확실한 사료로 키운 소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고 안전한 먹을거리에 대한 인식이 있었음.
- 한울공동체와 ‘희망의 암송아지 입식기금 사업’ 진행 중.
- 2012년 조합원들이 출자해서 조성된 기금 5,250만 원을 성남용인 한살림

에서 한울공동체에 보내줌.

- 국산 사료를 먹인 한우 출하값은 600만 원 정도임(일반 소농가 200만 원 받음).
- 이 과정에서 소비자들이 출자하여 생산자가 안정적으로 소를 키울 수 있도록 지역농업을 지원하고 책임 있는 소비를 함.

○ 개선되어야 할 점

- 제주도에 친환경농업연구소 및 농업센터 등 농업 관련 기관 필요함.
- 식량 자급률이 50% 정도는 되어야 함.
- 제주도에 버려지는 자원인 돈분을 에너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3.3. 사회성 분석

3.3.1. 제주시 한림읍 농가

○ 제주시 한림읍 농가의 사회성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분류하였음.

- 요소는 그 지역의 농부/농업과 관계된 사람이나 조직으로 일반 지역주민이 스스로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봄.
- 조건은 그 지역의 범위를 넘어서거나, 지역 안에서 위와 같은 사람들이 개별적/협력적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봄.

○ 요소 중 가치/인식/태도에 건강을 포함한 이유는 농약이 건강에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인식함으로써 유기농을 시작했기 때문임.

○ 교육의 내용은 농법과 가치 모두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교육과 인식을 배타적으로 분류하기는 어려우며, 인식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 중 하나에 교육이 있다고 보는 것이 맞음.

- 인터뷰 대상자의 경우 아들 중 하나가 농업을 잇기로 한 상태이지만 이런 경우가 해당 지역에 많지 않고, 아들의 농업계승에 대해서 이중적 감정을 느낀다는 점에서 현재 영농후계자를 위한 환경, 정책지원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현재 충분하지 않고, 향후 더 필요한 것’이라는 의미에서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음.
- 주요 판로인 한살림은 단순한 유통업체가 아닌, 생산자들의 협동조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생산자들과 연대하는 협력관계에 있기 때문에 외부 네트워크로 분류함.
- 유기농 자재 지원이나 농업기술원 마스터대학을 통한 영농후계자 교육은 현재 존재하고 있는 정책지원이기 때문에 조건으로 분류하였으나, 유기농업을 시작/유지하는 결정적인 요인은 아님.

표 4-6. 제주도 사회성 분석(제주시 한림읍 유기농가 C)

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내용)
요소	조직	작목반	정보 교류, 공동출하를 위한 조직
	생산자의 가치/인식/태도	건강	건강에 대한 인식으로 유기농 시작
	생산자의 가치/인식/태도	신의	소비자/한살림과의 연대의식
	교육	교육	한살림 등에서 정기적인 교육
	농법	흙	밭마다 다른 흙의 특징 이해
	농법	약재	해충 예방 약재
조건	농민 충원	영농후계자	영농후계자의 지속적인 충원
	판로	한살림	안정적인 판로의 존재 여부
	제도/정책	농업기술원 마스터대학	영농후계자 농법 교육
	제도/정책	자재 지원	유기농업 자재 50% 지원
	소비자의 가치/인식/태도	소비자	시장가격에 상관없이 꾸준한 구매

- 토종 종자를 사용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농업으로 가기 위한 중요한 요소임을 알고 있으나 현재는 수익성이 낮아 적용하지 못함. 향후 정책 지원 필요함.
- 유기농을 장려함과 동시에 헬기로 공중방제를 하는 등의 일관되지 못한 정책 수정을 제안함.

3.3.2. 고천농원

- 지속가능한 농업의 요소로 귀농과 농촌인력 확보를 통한 ‘농민 충원’과 유기농에 대한 확고한 고집 등의 ‘가치/인식/태도’, 새로운 농사 정보를 제공하는 조직 등 ‘내부 네트워크’, 기후 변화에 대비해 새 품종을 도입하고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는 ‘농법’, 안정적인 ‘판로’가 있음.
- 관행농업의 대안으로 지속가능한 농업의 개념이 ‘비전’으로 필요함. 이때 지속가능한 농업이란 단기로는 농민이 먹고 살 수 있는 것이며, 장기로는 후세에 물려줄 수 있는 건강한 땅을 의미함.
- 지속가능한 농업의 기타 분류로 섬이라는 제주의 ‘지역 특성’과 ‘에너지’ 절약을 들 수 있음.

표 4-7. 제주도 사회성 분석(고천농원 D)

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내용)
요소	농민 충원	귀농	· 도시생활의 스트레스가 없고 재미있음
	농민 충원	농촌인력	· 15일 일하면 한 달 먹고 살 수 있음
	생산자의 가치/인식/태도	유기농	· 보람과 농부의 고집이 있어야 함
	농법	작물 변화	· 작목반에서 새 품종 도입 유도
	조직	유기농 관련 조직	· 새로운 농사 정보 제공처
	농법	새로운 기술	· 사기업의 광고 겸 교육을 잘 활용
	판로	한살림	· 농민이 안심할 수 있는 판로
	농법	토양	· 화산재로 덮인 땅이 좋음
	농법	비료와 퇴비	· 화산암에 걸려져 지하수 오염 방지

3.3.3. 한울공동체

- 한울공동체의 사회성 가운데 요소는 농법, 판로, 내부 네트워크, 조직, 가치/인식/태도를 들었음. 다른 유기농과 다소 다른 점은 개인보다는 내부 네트워크, 조직과 판로에 상대적으로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임. 그만큼 축산의 경우 조직의 결속을 통한 판로가 중요함. 특히 지역순환농업을 지향하고 지역 내 네트워크가 핵심요소임.
- 한편 사회적 조건으로는 제도와 외부 네트워크를 선정했음. 앞서 언급한 것처럼 축산이라는 특수성과 지역성을 고려할 때 외부 네트워크는 중요한 사회적 조건임을 알 수 있음.

표 4-8. 제주도 사회성 분석(한울공동체 E)

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내용)
요소	농법	종자	· 국산 종자를 확보해야 함
	농법	영양분 자급	· 지역순환농업으로 영양분 자급률을 늘리고 있음
	농법	지역순환농업	· 보리매깁과 비산품 보리, 콩 등을 소에게 먹이고 소의 분뇨는 퇴비화하여 밭에 영양분으로 공급하여 지역 내 자원을 순환시키는 농업
	농법	국산사료한우	· 수입 GMO 사료를 먹이지 않고 직접 생산한 보리, 콩, 새싹 등을 소에게 먹임
	농법	조직적 유기농 확대	· 친환경농업단체연합회를 만들고, 영농조합법인 중심의 예산 지원체계를 만드는 등 제주도 농업 환경을 바꾸어 놓음
	농법	전문성	· 농사는 전문 기술이 필요함
	농법	기계농	· 일손이 부족해 기계가 투입되어야 함

표 4-8. 제주도 사회성 분석(한울공동체 E) (계속)

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내용)
요소	판로	한살림	· 판로 확보에는 어려움 없음
	판로	급식	· 전국 처음으로 친환경학교급식 조례 만들
	내부 네트워크	공동작업	· 공동체 내 원활한 소통
	내부 네트워크	지역활동	· 여성 농민들과 같이 여름에 보리를 수확하고 미숫가루를 만들어 노인정 방문
	조직	생드르 영농조합	· 지역순환농업으로 새로운 농업환경을 만들고자 함
	외부와의 네트워크	성남용인 한살림	· 현재 지역순환농법 안에서 국산사료 한우를 키 우는 한울공동체와 자매결연을 맺어 ‘희망의 암 송아지 입식기금 사업’ 진행 중
	조직	한울 공동체	· 생드르에서 나와 한울공동체를 구성하여 지역 농업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
	외부와의 네트워크	생협 소비자	· 소비자는 출자한 기금으로 생산한 소고기에 대 한 책임 있는 소비를 하며 지역농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함
조건	생산자의 가치/인식/태도	책임	· 생산자는 안전한 먹거리(국산사료 한우) 생산과 지역농업을 책임짐
	제도	농업 매뉴얼	· 현장농업을 점검하고 농민들이 필요한 사업이 어떤 것인지 정책개발을 해야 함
	제도	친환경육성법	· 농민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정책들로 바뀌어야 함
	제도	친환경농업 조례	· 친환경농업 조례를 만들고 농가를 지원해야 친 환경농업 생산면적이 늘어남
	제도/정책	정부	· 정부가 농업을 포기하지 않고 농민과 농촌을 위 한 농업 정책을 펼쳐야 함

4. 홍성

4.1. 현황

- 홍성군은 대한민국 충청남도 서부에 있는 군으로, 충청남도청 소재지임. 충청남도 8개 군 지역 가운데 인구가 가장 많음.
- 홍성군의 행정구역은 2읍 9면으로 구성되어 있고 홍성군의 면적은 443.96km² 임. 인구는 1960년에 14만 4,741명이었으나 이후 계속 감소하여 2013년 3월 말 기준으로 3만 7,975세대, 8만 9,174명임. 그 중 49.6%가 홍성읍에, 12.4%가 광천읍에 거주하여 읍 지역에만 전체 인구의 62%가 거주하고 있음(인터넷 위키피디아).
- 산업구조는 1차산업 47.7%, 2차산업 2.5%, 3차산업 49.8%로 주민의 대부분이 농업과 도소매업, 서비스업에 종사함.
- 경지면적은 1만 6,251ha로 전체 면적의 37.5%이며 임야면적은 1만 9,984ha로 46.9%를 차지함. 경지면적 중 논이 64%, 밭이 36%로 벼농사 중심의 농업 형태를 띠고 있음. 농가 수는 1만 2,865가구, 농가인구는 4만 2,435명임.
- 주요 농산물은 쌀·보리·콩·고구마 등이며 저마 재배단지, 한우 사육단지가 조성되어 있음. 사과·배·복숭아·포도 등의 과수재배는 홍성읍·홍북면, 잎담배는 홍동면, 특용작물인 구기자(장곡면에서 주로 재배함. 낙농·양계·양돈은 홍성읍·홍북면·홍동면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양계는 기업화되어 있음. 은하면 덕실리 일대에 축산시험단지 조성사업이 추진 중에 있음(인터넷 두산백과).

4.2. 특징

4.2.1. 홍성유기농영농조합 F

○ 홍성 유기농 역사

- F씨는 원래 이 지역에서 22년간 농사를 지었고, 17년간 유기농업을 함. 현재는 개인적으로도 농업을 계속하고 있으며, 지역 영농조합의 대표 역할을 맡고 있음.

○ 홍성 유기농 현황

- 소량 다품목인 채소류의 경우 생협, 학교급식, 로컬푸드에 유통함.
- 친환경농업에는 무농약과 저농약이 포함되어 있음. 따라서 유기농이 정확히 친환경농업과 일치하지는 않음.
- 지역 조합의 이사장과 생협의 관계에 따라 납품처가 달라질 수 있음.
- 사명감으로 유기농을 시작하는 경우도 있지만, 주로 경제적 이유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음.
- 유기농을 하기 위해서는 주변 농가의 환경과 설득이 중요함.
- 작목반은 (농약 사용 등에 관한) 상호 감시 격려, 정보 교환의 기능도 제공함.
- 판로는 조합 차원에서 관리함.
- 유기농은 축산과 함께하는 순환농업이 되어야 함.
- 무농약, 무항생제 축산물 등과 유기농, 유기축산물은 소비자에게 비슷하게 인식되지만 가격경쟁력에서 차이가 남. 농민들은 이러한 딜레마로 인하여 유기농의 지속 여부를 고민함. 소비자의 요구가 중요함.

○ 지역순환형 로컬푸드의 중요성

- 지역에서 순환시킬 수 있는 로컬푸드 형태의 유통 구조가 필요함.
- 일반적인 조직 활동으로 동아리, 식당 운영, 매장 운영, 귀농자 적응 프로그램, 종묘 사업 등을 하고 있음.

- 외부 조직이 함께 참여하는 ‘협동사회네트워크’에도 참여하고 있음.
- 리더는 좋은 인력을 양성하고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해주는 것이 중요함.
- 농업이 가능하려면 농촌이 유지되어야 함. 귀농 등을 통해 인구가 유지되고 내부의 역량도 강화되어야 함.
- 풀무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이 지역에 정착하는 경우가 줄어들음.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일부 사람들은 협업농장을 만들어 실제 정착할 사람들을 육성하고자 함.
- 지역과 규모 등의 상황에 맞는 정책이 필요함.
-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선 사람, 로컬푸드 등의 안정적 판로 등이 중요함. 농촌을 구성할 사람을 많이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농업에 대해 좋은 인식이 형성되는 것이 중요함. 또한 우리 스스로 행복하게 삶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보고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함.

4.2.2. 마을활력소 G

○ 유기농업을 시작하게 된 배경

- 집에서 가까운 풀무학교(고등부)에 진학했는데 풀무학교에서 유기농업을 알게 되었음.
- 고등부를 졸업하고, 홍순명 선생님이 21세기 환경농업에 대해 소개해주심.
- 환경농업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일본의 오리농법을 받아들이고, 국내에서는 원경선 선생님과 오재길 선생님의 영향을 받았음.
- 오리농법으로 유기농을 시작하여 35년째 유기농을 하고 있음.

○ 풀무학교

- 홍성군 홍동면에 위치해 있음.
- 농업교육을 중심의 고등학교 과정으로 이찬갑 선생님과 주옥로 선생님 두 분이 풀무학교를 세우시고 홍순명 선생님이 이어서 교장 맡으심.
- 풀무학교는 ‘더불어 사는 사람’을 주요 가치로 잘하는 학생만을 키우는 게

아니라 뒤쳐지는 학생을 함께 보살피는 교육을 펼침.

○ 오리농법을 시작할 때의 어려움

- 당시에 나라에서 유기농업을 하는 농민을 빨갱이라 했으나 2004년 개방을 앞두고 대안농업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함.
- 유기농으로 전환하자고 사람들(주변 농가)을 설득했고, 19농가가 지지해 줌.
- 홍동면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오리농법을 알리러 다녔음.
- 경실련에서 오리농법 설명회를 하게 되었고, 그 설명회가 기사화되면서 전국에서 오리농법을 위한 후원금을 보내주었고 이 후원금으로 홍동면에서 오리농법을 시작할 수 있게 됨.
- 시작 당시에는 유기농이 적었는데, 오리농법을 시작한 후, 홍동면에 유기농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현재는 60%가량이 유기농을 하고 있음.
- 조류독감 이후로 오리농법으로 농사짓는 농가가 거의 남아 있지 않고, 다른 유기농(우렁농법 등)으로 전환함.

○ 지속가능한 농업의 조건

- 농업 교육이 가장 중요함.
- 생명의 가치를 인정하는 교육이 필요함.
- 지속가능한 농업으로 나아가기 위해 유기농 농산물에 대해 계약재배를 해야 하고 계약재배를 하는 농민은 사랑으로 벼를 키울 것임.
- 농민이 주체가 되는 농사가 되어야 함.
- 현재까지는 농업 연구 분야에서 박사들이 주체였으나 앞으로는 농부의 경험과 박사의 이론을 겸비하여 공동논문을 써야 함.
- 도시와 농촌이 한 마음으로 즉 도농일심의 농사를 지어야 함.
- 농업에는 농사짓는 사람, 자금 그리고 농산물을 사먹는 사람도 있어야 함.
- 농업과 농촌을 살리는 길은 오직 협동뿐임.
- 두레 문화와 가레 문화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 조상들과 어른들은 협동하

여 농사를 지었음.

- 땅에 미생물이 풍부해질 수 있는 저(무)투입 순환농업으로 나아가야 함.

4.2.3. 귀농인 H

○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조건

- 마을이 지속가능해야 농촌이 지속가능하고 농촌이 지속가능해야 농사가 계속 이루어질 수 있음.
- 농사를 개인이 책임지는 구조가 아니라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함.
- 사회가 농업을 책임지려면 지역이나 국가가 농업에 대한 책임을 고민해 줘야 함.
- 지역에서 생산한 것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지역농업체계를 만들어야 함.
- 마을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운택보다는 공동체가 복원되어야 함.

○ 토종종자 문제의 심각성

- 매년 토종종자가 급감하고 있음.
- 농사 7년째. 그동안 종자가 땅에 익숙해질 때까지 기다림.
- 토종종자 연구 및 수집하는 안완식 연구원이 괴산 흙살림, 귀농운동본부, 전국여성농민회에 토종종자 교환회를 하고 토종종자를 관리함.

○ 유기농 현실

- 우리나라는 좁은 면적에 집중적으로 농사지음.
- 장마 후 이어지는 생장 시기에 뜨거운 햇볕으로 잡초가 많이 자라는 기후여서 비닐머칭 없이는 농사가 어려움.
- 현 유기농법 체계 내에서는 상품성 좋은(보기 좋은) 농산물을 만들어내야 함.
- 정부 농업 정책 및 농촌진흥청은 단작 위주, 경제성, 생산성, 효율성을 중심으로 한 농사 구조를 형성하고 장려해 옴.

○ 저(무)투입 자연농의 중요성

- 한번 시작하면 유혹이 커지기 때문에 퇴비, 비닐, 우렁이, 기계 등을 쓰지 않음(우렁이는 생태교란 염려).
- 투입 요소 있으면 그만큼 일손이 필요함.
- 미생물도 사용하지 하지 않음.
- 거름 투입을 점점 줄여가고 있음.
- 자연재배는 소농들에게 가능한 방법.
- 대규모 농사의 경우 자연재배 어려움.
- 자연농이 힌트는 될 수 있지만 지속가능성과는 거리 있음.

○ 귀농민의 역할

- 기존 현지 농민들은 귀농민이 유입되면 지역이 활성화되기보다는 본인들의 파이가 줄어든다고 생각하지만 현 상태의 농업체계로는 다음 세대가 농업을 이어가기 어려움.
- 지역농업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유입되어야 하는데 현지 농민들이 유입된 사람들에 대한 거부감을 버려야 함.

○ 소비자 인식의 중요성

- 유기농산물에 대한 이해 부족.
- 먹을거리는 생명과 직결. 먹을거리가 귀하다는 인식이 필요하고 먹는 사람의 생각이 바뀌어야 함.
- 그러나 소비자들이 농산물 생산 과정에 대한 관심이 없고 보기 좋은 농산물을 선호함.

○ 판로 확보

- 농민과 소비자가 유통 과정으로 단절되어 있음.
- 그러나 홍성은 꾸러미라는 조직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의 신뢰관계가 형성되었음. 이러한 관계를 만드는 데 약 3~4년이 걸렸음.

- 꾸러미 안에 편지를 넣어 농산물을 기르는 과정 등에 대해 소비자와 소통하면서 소비자의 인식이 점점 변하는 것을 경험함.
- 이러한 관계가 유지되어야 지속가능한 농업이 가능함.

○ 로컬푸드

- 글로벌 푸드 체계에 대항하여 로컬푸드가 형성됨.
- 소비자들은 가까운 거리에서 건강하고 신선한 먹을거리를 먹을 수 있어서 로컬푸드에 관심을 갖고, 생산자들은 판로가 생기고 공무원들은 실적이 생김.
- 로컬푸드를 통한 꾸러미, 파머스마켓, 유기농 식당, 직판장 등이 지속가능한 농업의 중요 기반이 될 것임.
- 유기농산물의 다양한 판매방식이 현재의 농업 유통의 문제를 극복하는 방법일 것임.
- 로컬푸드가 생협화(유통업)가 되어서는 안 됨.
- 로컬푸드에서 생산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소비자와 잦은 왕래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직접 만날 수 있는 장이 상시적으로 열려야 함.

4.2.4. 홍성여성농업인센터 I

○ 홍동면에 유기농이 자리 잡은 주된 이유

- 홍동 지역에 유기농업이 정착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풀무학교임.
- 풀무학교는 무교회(교회의 형식이나 틀을 부정하고 그 정신을 삶에서 실천하는 것을 목표로 함) 신자들이 설립하여 농촌을 살리기 위해 전국에서 학생을 모집하였으며 농업교육과 전인교육을 목표로 하고 있음. 유기농법 뿐 아니라 농업철학을 가르침으로써 농업인으로서의 자존감을 향상시킴.
- 풀무학교의 정신이 같은 지역의 다른 공교육기관(홍성초등학교, 홍성중학교)에도 영향을 줌.
- 풀무학교 전공부를 통해 많은 젊은이들이 지역으로 유입되고 이들이 졸업

후 지역에서 여러 실험적인 기관들을 설립함으로써 더 많은 인구를 유입하는 효과를 가져 옴.

○ 지역 여성 농업인들의 역할

- 홍성 지역의 여성 농업인들은 홍성여성농업인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고 있음.
- 홍성여성농업인센터는 홍성 지역의 ‘아이들을 사랑하는 엄마들의 모임’을 전신으로 농림부의 지원을 받아 설립되었으며, 어린이집, 공부방 등의 역할을 하다가 초등학교 돌봄 기능의 강화 이후 여성 농업인의 취미, 건강, 문화, 농업교육, 자존감 등의 교육에 관여하고 있음.
- 전국의 많은 지역에 여성농업인센터가 있지만 홍성 지역의 경우, 전체 구성원 수도 많고 연령대가 낮다는 특징이 있음. 타 지역이 겪는 어려움의 내용을 물었을 때 적당한 센터 공간을 찾는 것이 가장 어렵다는 답변을 받음.
- 홍성에는 주변 지역에서 홍성 지역의 남성과 결혼을 통해 이주한 여성과 부부가 함께 귀농한 여성이 혼재하는데 이러한 이질성으로 인해 함께 무언가를 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4.2.5. 풀무학교 전공부 졸업 J

○ 귀농의 현실

- J씨는 대학에서 작곡을 전공하고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였음. 2010년에 풀무학교 전공부에 입학하였고 2012년부터 정민철 선생의 제안에 따라 ‘젊은협업농장’을 함께 운영하고 있음.
- 현재 마을 합창단을 만들어서 활동하고 공연도 함. 마을 구성원들의 반응이 생각보다 좋음.
- 귀농에는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한 지역사회 정착이 중요함.
- 귀농 지역 선택 시, 지인의 소개로 풀무학교를 접하게 되었고 이곳의 폐쇄적이지 않은 구조가 마음에 들었음. 이 지역의 많은 것이 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짐.

- 귀농에는 배우려는 자세가 중요함.
- 귀농에는 농업 기술에 대한 준비, 적응 단계의 경제적 문제에 대한 사전 준비, 농사에 대한 의지가 필요함.
- 귀농 교육을 받는 사람들의 숙소 부족이 문제임. 정부에서 지원하는 ‘귀농인의 집’이라는 숙소가 있지만 부족한 실정임.

○ 협업의 중요성

- 협업을 통해 농사 실패 시의 상실감, 경제적 손실 등을 완충시킬 수 있음.
- 젊은협업농장은 원시적 형태로 출발하여 현재 협동조합에 등록함.
- 젊은협업농장에서는 귀농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실질적 농업 적응 기회를 제공함(무급 인턴, 인큐베이터 역할).
- 지역 단체와의 조율을 통해 쌈채소를 재배하고 있음.
- 협업농장의 장점은 규칙적으로 출퇴근하고, 고정적이며 꾸준히 수입을 얻을 수 있고, 상호 간에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임.

○ 농업의 지속가능성 조건

- 농업이 지속가능하려면 인구가 증가해야 하고, 마을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함.
- 주요 판로는 홍성유기농영농조합, 직거래 식당(서울), 개인 직거래(쌈채소, 빵, 요구르트 패키지 제공) 등.
- 협업을 통해 판로 리스트도 개인이 하는 것보다 수월하게 축적됨.

4.2.6. 젊은협업농장 K

○ 협업농장 현황

- 현재 협업농장은 하우스 6동(200평*6=1,200평)에 쌈채소(20가지)와 양채류(브로컬리, 양배추)를 재배하고 있음. 지역 식당, 서울의 직거래 식당,

홍성유기농(서울로 판매)을 통해 판매 중임. 작물의 선정은 계약 시 필요한 작물을 의뢰받아 결정하고, 1주일에 두 번 정도 서울의 직거래 식당으로 택배 배송하고 있음. 협업농장은 영농조합의 작목반에 소속되어 있음.

○ 홍성 유기농 유통 특징

- K씨는 풀무학교 교사를 하다 본격적으로 농사를 짓기 시작했음. 현재는 협업농장에 참여하여 유기농업 확대를 위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음. 특히 유통에 관심이 많음. 홍성은 자체 유통 구조를 갖고 있다는 점이 다른 유기농 지역과 다름. 구체적으로 풀무생협이나 농협작목반을 통해 생산물을 유통시킬 수 있어 판로 때문에 고민하는 다른 지역보다는 유리한 상황임.

○ 조직화의 필요성

- 홍성에 지금처럼 유기농업이 자리 잡게 된 배경은 조직화임. 본래 풀무생협에서 활동하던 사람들이 독립하여 조직을 만들었음. 풀무생협은 홍성, 농협 친환경작목회는 홍동면이 주 활동 영역이었음. 2005년 무렵 홍성유기농영농조합을 설립하여 본격적인 지역유기농업에 뛰어듦.

○ 주민 모임의 중요성과 직능 단체의 강화

- 현재 총회를 열고 있음. 형식은 대의제를 택하고 있음. 홍동면 소재지 농가의 90%가량이 어떠한 형태든 조직에 가입되어 있음. 단체들이 늘어나면서 단체들 간 네트워크와 실무자들 간 연대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 이러한 관계가 유기적일수록 지역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됨. 곧 자치의 기본은 직능단체의 강화이기 때문에 어떤 전문 분야를 갖고 있는 직능단체를 어떻게 강화할 것이냐가 핵심임.

○ 바람직한 조직화의 가능성

- K씨는 조직화의 성공을 위해서는 개방된 완결성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

곧 지켜야 할 최소한의 원칙만 규정하고 나머지는 개방해야 함. 또한 적정 규모도 유지해야 함. 면 단위가 적절함.

○ 귀농자를 위한 적응 기간

- 귀농자를 위한 적응 기간이 반드시 필요함. 마치 벤처기업처럼 귀농자도 지역에 자리 잡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인큐베이터 체제가 있어야 함. 협업농장은 지역에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위한 교육기관을 목표로 하고 있음. 농업을 계속 하든 안 하든, 농업과 지역을 이해하는 통로 역할을 하고자 함. 농업을 가르치고 주민들과 연결시키고, 지역을 이해시키고, 지역사업에 참여시켜야 함.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 지역의 아이들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시킬 것임.

4.3. 사회성 분석

4.3.1. 홍성유기농영농조합 F

- 홍성유기농영농조합 F는 사회적 요소로 농법, 네트워크, 교육, 가치/인식/태도를 들었음. 특이한 점은 조합이 운영하는 식당이나 매점, 동아리 활동과 같은 내부 조합을 강조했다는 점임. 이는 농사 자체도 중요하지만 농사를 짓는 사람들 간의 유대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함.
- 한편 사회적 조건으로는 판로를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선정하였음. 조합 대표를 맡고 있어서이기도 하지만 농산물의 수요를 확보하는 것이 생산과 더불어 핵심 요소임은 분명함.

표 4-9. 홍성 사회성 분석(홍성유기농영농조합 F)

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내용)
요소	생산자의 가치/인식/태도	가격 경쟁력 딜레마	· GMO 사료 사용, 무농약 등에 비해 순수한 유기축산 및 유기농은 가격 경쟁력이 떨어짐
	교육	주변 농가 환경 및 설득	· 유기농은 혼자만 하기 어려우므로 주변 농가들을 설득시켜서 함께 하는 것이 중요
	교육	풀무학교	· 풀무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이 지역에 정착하기 쉽지 않음
	교육	귀농자 교육	· 귀농자들이 초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시켜주는 프로그램이 있으며, 육묘사업도 함께함
	내부 네트워크	동아리 활동	· 농업 외적으로 재미있는 활동들을 함께 함
	내부 네트워크	식당 운영	· 조합 차원의 식당 운영
	내부 네트워크	매장 운영	· 조합 차원의 식당 운영
	농법	오리농법	· 이 지역에서의 초기 유기농농법
	농법	우렁이농법	· 이 지역에서의 초기 유기농농법
	농법	자연순환농법	· 유기농은 순환농업이 필요하며, 순환농업이 지속가능하려면 축산이 필요함(축분 비료)
	교육	내부 역량 강화	· 구성원 스스로의 역량 강화도 필요함
	내부 네트워크	소통	· 다양한 연령층 간의 소통도 필요
	농민 충원	농촌 유지	· 귀농, 재교육 등의 방식으로 인력이 보강되어야 함
	농민 충원	젊은협업농장	· 정민철 선생 같은 분은 젊은협업농장을 운영하며 실제로 정착할 사람들을 육성(교육)하고자 함
	외부 네트워크	외부 공동체와의 네트워크	· 홍성 협동사회네트워크에 참여함
	조직	작목반의 역할	· 상호 감시(농약 사용 등에 대한), 격려, 정보 교환 등
	조직	홍성유기농의 역할	· 주로 유통 사업을 담당함

표 4-9. 홍성 사회성 분석(홍성유기농영농조합 F) (계속)

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내용)
조건	소비자의 가치/인식/태도	소비자의 요구	• 요즘에는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생산방식이 바뀌기도 함
	가치/인식/태도	농업에 대한 인식	• 농업에 대한 인식이 좋아져야 사람도 많이 올 수 있음
	가치/인식/태도	행복한 농촌	• 여기 있는 사람이 행복한 모습을 보여줘야 제대로 된 사람들의 귀농을 이끌 수 있음
	지도자	리더의 역할	• 리더는 인재를 양성하고,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해줘야 함
	제도/정책	정책 분리	• 대농정책, 소농정책 등 상황에 맞는 다양한 정책 운영이 필요함
	판로	대형 시장 진입 어려움	• 발작물은 다품종이라 대형 시장 진입이 어려움
	판로	생협	• 주요 거래처
	판로	학교급식	• 주요 거래처
	판로	로컬푸드	• 주요 거래처
	판로	생협	• 생협 중 주로 아이쿱에 납품함
	판로	조합과 생협의 관계	• 조합 이사장과 생협과의 친분도(관계)에 따라 납품처가 결정되기도 함(아이쿱, 두레, 한살림 등의 생협과의 관계)
	판로	조합 차원 판로 구성	

4.3.2. 마을활력소 G

○ 마을활력소 G씨는 홍성 지속가능한 농업의 사회적 요소로 농법, 네트워크, 교육, 가치/인식/태도, 인물을 들었다. 다른 지역과 다소 다른 점은 교육과 인물의 중요성을 특히 강조했다는 점임. 이는 풀무학교를 모태로 형성된 이 지

역의 특징을 잘 반영하는 것임.

- 한편 사회적 조건으로는 제도를 들었음. 사회적 조건이 상대적으로 적은 이유는 지역의 자생력이 그만큼 강하다는 방증임.
- 각 분류별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농법: 친환경농업, 기계농, 오리농법, 유기농, 순환농업, 대안농업, 무투입 지향
 -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서는 토양 생태계가 건강하게 유지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임.
 - 이를 위한 농법인 친환경농업을 지향하고 유기농의 방법으로 오리농법을 도입하고 국내에 오리농법을 확산시켜 왔음.
 - 환경적 지속성을 중심으로 순환농업과 무투입 농사를 지향하는 대안농업을 모색하고 있음.
 - 큰 규모의 농지를 유기농(유기농쌀)으로 농사짓기 위해서는 기계를 사용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지속가능함.
- 네트워크: 마을활력소, 풀무생협, 흥동 농협
 - 풀무생협, 농협의 경우 흥동면의 유기농업 형성기에 도움이 되었고, 마을활력소는 직접적으로 농업활동을 지원하지는 않지만, 농민들의 일상생활을 돕는 중간 조직임.
- 교육: 농업교육, 풀무학교
 - 흥동면에서 농업을 지속가능하게 한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을 수 있음.
 - 지역에서 농업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풀무학교는 농업의 중요성과 올바른 방법, 철학과 가치를 교육함.
- 가치, 인식, 태도: 협동, 도농일심, 생명가치, 주체적 농민, 소비자

- 농업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 농업 활동을 하는 농업 지역 내부에서는 협동이 가장 중요하고 농민 스스로 주체적 농민임을 인식하고 농사를 지어야 함.
- 농민뿐만 아니라 농산물을 먹는 소비자 모두 농업이 생명 유지에 가장 기본이 되는 중요한 가치임을 인식했을 때, 농업에 대한 긍정적인 분위기가 형성되고 지지층이 생긴.
- 농업은 농사를 짓는 곳에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농업 지역과 도시가 한 마음으로 농사를 지어야 지속가능함.

○ 지도자

- 유기농을 알고 시작하게 되기까지 홍순명 선생의 가르침이 가장 컸음.
- 올바른 농업이 확산되기 위해서는 스승 또는 선배의 경험과 가르침이 중요함.
-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함께 농민들이 살아가는 마을의 지속가능성도 함께 고민해야 하고 이 과정에 전문가(양병이, 임경수)의 역할도 필요함.

○ 제도: 계약재배, 보조금

- 유기농업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판로가 확보되는 것이 도움이 되고 계약재배는 판로를 확보할 수 있는 제도가 될 수 있음.
- 유기농과 같은 새로운 농업이 정착하기 위해서는 정부 지원이 필요하나 보조금이 너무 많이 투입되면 부작용이 생긴.

○ 계획: 문당리 발전 100년 계획

-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100년을 내다보고 생태와 환경을 기반으로 한 마을 계획을 세움.

○ 지자체와 관계: 충남지사 특보

- 충남지사 특보를 하면서 농업의 가치를 도시민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음.

표 4-10. 홍성 사회성 분석(마을활력소 G)

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내용)
요소	농법	친환경농업	· 35년째 유기농업하고 있음
	농법	기계농	· 주로 쌀농사이고 논이 1만 5,000평 정도여서 기계가 필요함
	농법	오리농법	· 오리농법이 우리나라 유기농 쌀에 큰 역할을 함
	농법	유기농	· 90년대 초에는 유기농이 적었는데, 오리농법을 시작하면서 급격하게 증가함
	농법	순환농업	· 사람이 먹고 남은 것을 동물에게 주고 동물은 다시 식물에게 주고 식물은 사람에게 줌
	농법	대안농업	· 생태와 환경을 저해하지 않고 같이 가는 농업이어야 함
	농법	무투입 지향	· 미생물이 풍부한 농사가 지속가능한 농업이라 생각함
	내부 네트워크	마을 활력소	· 주체가 아닌 활력을 넣어주는 인큐베이터 역할
	내부 네트워크	홍성친환경 연합회	· 지원 역할
	내부 네트워크	풀무생협	· 1980년대에 홍성 유기농업 형성에 도움이 됨
	내부 네트워크	농협	· 풀무생협과 마찬가지로 유기농업 형성에 도움 줌
	교육	농업교육	· 교육 현장에 텃밭 및 동물농장과 같은 생명과 사랑의 공간이 있어야 함
	교육	풀무학교	· 농업교육 중심의 고등학교 과정으로 ‘더불어 사는 사람’을 중시함
	생산자의 가치/인식/태도	협동	· 가래문화, 두레문화, 나눔문화

	생산자의 가치/인식/태도	생명 가치	· 농업을 경제적 잣대로 판단하지 말고 생명의 가치로 보아야 함
	생산자의 가치/인식/태도	주체적 농민	· 농민이 주체가 되는 농업이 되어야 함

표 4-10. 홍성 사회성 분석(마을활력소 G) (계속)

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내용)
조건	제도	계약재배	· 지속가능한 농업으로 가려면 계약재배 해야 함
	제도	보조금	·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는 보조금(지원)도 중요하지만 50%가 넘으면 안 됨
	소비자의 가치/인식/태도	도농일심	· 도시와 농촌이 한 마음으로 농사짓자는 것
	소비자의 가치/인식/태도	농업가치 인정	· 소비자가 농업의 가치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함
	지도자	양병이	· 문당리 발전 100년 계획 작업 함께 함
	지도자	임경수	· 한울마을 만들기 진행 함께함
	지도자	원경선, 오제길	· 유기농 시작할 때 원경선 선생님의 영향을 받음
	지도자	홍순명	· 결정적으로 유기농 시작할 수 있도록 안내 해주심

4.3.3. 귀농인 H

- 귀농민인 H씨는 홍성의 사회적 요소로 농법, 인물, 농민 층원 등을 들었음. 같은 지역이라 해도 자신들이 처한 상황에 따라 중요도가 달라지고 있음을 보여줌. 이를테면 귀농민의 경우 농민 층원에 관심이 많음. 귀농민이 농촌에 새로운 활력이 될지 소외 집단이 될지는 귀농정책의 방향에 따라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큼.
- 한편 사회적 조건으로는 G씨와 마찬가지로 제도와 외부 네트워크를 선정하였음. 지역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사회적 조건은 공통적임을 보여주고 있음.

○ 각 분류별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농법

- 유기농, 저(무)투입 자연농, 종자 받기.
- 토양을 지속가능하게 하는 방법으로 농사를 짓고 있음.

○ 지도자

- 흥동면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토종종자를 확보하고 관리하며 교환하는 역할을 하는 분을 소개함.

○ 판로

- 꾸러미: 저(무)투입한 자연재배 농산물은 작황이 시기마다 불규칙하고 상품성이 떨어져서 상품성과 규격을 중심으로 하는 다른 판로로 농산물 판매는 어려움.
- 꾸러미 방식으로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하고 있음.

○ 농민 층원

- 지역 농업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귀농인들이 유입되어 농업활동을 해야 함.

○ 가치, 인식, 태도

- 귀농자 수용, 생산자 소비자 간 신뢰가 중요.
- 농촌 지역에서 농업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귀농자가 필요함을 인식해야 함.
- 꾸러미를 통한 소비자와의 소통 속에서 농업의 가치를 인식하게 됨.
- 무엇보다도 소비자들이 먹을거리의 소중함에 대해 인식해야 함.
- 의식 있는 소비자들이 유기농산물을 사먹고, 투자하는 등 유기농업을 지지해주고 있음.

○ 제도

- 친환경육성법: 친환경농업, 유기농업이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가 필요함.

○ 개선: 공동체 복원, 농사 책임, 식량 자급률

- 마을이 지속가능해야 농촌이 지속가능하고, 농촌이 지속가능해야 농사가 계속 이루어질 수 있음.
- 마을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공동체가 복원되어야 함.
- 현재는 농사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개인이 지고 있으나 지역 농업 체계를 만드는 등 사회가 함께 농사를 책임져야 함.
- 식량 자급률을 높이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농업의 지속가능성이 높아질 것임.

표 4-11. 홍성 사회성 분석(귀농인 H)

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내용)
요소	농법	유기농	· 우리나라 기후와 상황에 맞는 방법이어야 함
	농법	저(무)투입 자연농	· 퇴비, 비닐, 오리, 우렁이, 기계 등을 쓰지 않음
	농법	종자 받기	· 종자가 땅에 익숙해질 때까지 기다림
	외부와의 네트워크	소비자	· 의식 있는 소비자들이 유기농에 투자
	판로	꾸러미	· 자연재배는 상품성이 떨어져 꾸러미가 아니면 어려움
	농민 충원	귀농인	· 귀농자의 역대 매출을 희망하는 그룹과 소박하고 생태적 삶을 꿈꾸는 그룹이 있음
	생산자의 가치/인식/태도	귀농자 수용	· 지역 농업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유입되어야 하는데 현지 농민들이 이들에 대한 거부감이 없어야 함
조건	제도	친환경육성법	· 유기농 기반이 부족하지만 법 기반 필요
	소비자의 가치/인식/태도	신뢰관계	· 생산자와 소비자 신뢰 관계 형성됨 (3~4년 걸림)
	소비자의 가치/인식/태도	먹거리의 소중함	· 먹거리는 귀하다는 인식이 필요함
	지도자	안완식	· 종자 교환회와 토종종자 관리함

- 로컬푸드: 로컬푸드를 통한 꾸러미, 파머스마켓, 유기농 식당, 직판장 등 지역농산물체계를 갖추는 것이 지속가능한 농업의 중요 기반이 될 것임. 로컬푸드에서 생산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소비자와 잦은 왕래가 필요함.

4.3.4 여성농업인센터 I

- 농촌 지역에서 여성의 역할은 남성들과는 다름. 가사와 육아, 농촌 일이라는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음. 따라서 농촌을 바라보는 시각도 다를 수 있음.
- 우선 여성 농업인이 보는 사회적 요소는 교육, 가치/인식/태도, 조직, 주민 층원, 내부 네트워크임. 눈에 드러나는 것보다는 결속을 다지기 위한 요소를 상대적으로 더욱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알 수 있음. 특히 농업에 직접 종사하지는 않지만 지역에 필요한 부분을 제공하는 사람들의 지역 정착을 위한 농민 층원을 강조하고 있음. 이는 농촌이 농업 외에 다른 인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음.
- 한편 사회적 조건으로는 여성농업인센터와 전국 여성농업인센터의 역할을 매우 중요하게 보고 있음. 이는 역설적으로 여성 농업인을 지원하는 제도나 기관이 적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보다 다양한 지원체제가 갖추어져야 함.

표 4-12. 홍성 사회성 분석(여성농업인센터 I)

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내용)
요소	교육	폴무학교	홍성 지역의 대안 고등학교
	생산자의 가치/인식/태도	중심가치	경제적 풍요보다 만족감/행복 우선시
	조직	홍성 여성농업인센터	여성 농업인들을 위한 교육, 문화 기관
	주민 층원	농민 외 지역 정착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지역 주민
조건	외부와와의 네트워크	전국 여성농업인센터	전국의 다른 여성농업인센터와 연대
	제도/정책	여성농업인센터	농림부에서 설립/운영 지원

4.3.5. 풀무학교 전공부 졸업 J

- J씨는 사회적 요소로 농법, 농민 충원, 가치/인식/태도 등 홍성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드러난 공통점을 골고루 들었음. 그만큼 지속가능한 농업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이 크다는 것임.
- 한편 사회적 조건으로는 귀농인이 갖추어야 할 조건이나 지원 방안을 선정하였음. 앞으로 농촌의 고령화가 더욱 가속화됨에 따라 귀농인이 새로운 농촌의 주인으로 등장할 날이 멀지 않았음. 이들 귀농인들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함.

표 4-13. 홍성 사회성 분석(풀무학교 전공부 졸업 J)

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내용)
요소	생산자의 가치/인식/태도	양심, 신념	농사 일은 양심, 신념 등에 관한 갈등을 만들지 않음
	생산자의 가치/인식/태도	귀농자에 대한 인식	현재 농장 지역은 귀농자에 대한 인식이 호의적임
	생산자의 가치/인식/태도	먹을거리에 대한 관심	농사 중 특히 유기농을 하는 이유
	교육	풀무학교	풀무학교 전공부에서 농업기술을 배우고 시작함
	교육	풀무학교 조직문화	풀무학교가 폐쇄적인 구조가 아니라 마음에 들었고, 이를 통해 귀농에 도움을 받음
	교육	인턴교육	젊은협업농장의 큰 역할 중 하나는 귀농자들에 대한 교육임(무급)
	교육	농업 적응	젊은협업농장 등과 같은 조직을 통한 귀농 적응이 필요함
	내부 네트워크	마을합창단	전공을 살려 마을에서 합창단을 운영하고 있음
	내부 네트워크	소통	초기 정착 시 지역 주민들과의 관계(소통)이 중요함
	농민 충원	농사에 대한 의지	풀무학교를 나온 사람 중 농사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경우는 농업에 정착하지 못함
	농민 충원	인구증가	농업이 지속가능하려면 농업 인구가 증가해야 함
	농민 충원	협업농장 활성화	젊은협업농장 같은 형태의 시스템을 활성화하여 실질적 귀농 교육 및 적응의 단계를 거치도록 해야 함

표 4-13. 흥성 사회성 분석(풀무학교 전공부 졸업 J) (계속)

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내용)
요소	농법	규칙적 출퇴근	협업농장의 장점
	농법	고정적/ 정기적 수입	협업농장의 장점
	농법	백업 가능	협업농장의 장점
	농법	비닐하우스	수막재배를 하는데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 편은 아님
	외부와의 네트워크	지역과의 협의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작물을 재배함(쌈채소)
	외부와의 네트워크	지역 영농조합	장소 선택 시 지역 영농조합과의 관계가 고려됨
	조직	협업	협업이 농사 실패 시의 상실감이나 경제적 손실에 대한 완충 작용을 함
	조직	협동조합	젊은협업농장의 형태
	주민충원	마을자립	인구 증가를 통해 마을이 자립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함
	생산자의 가치/인식/태도	자세	초기에는 배우려는 자세가 중요함
	생산자의 가치/인식/태도	귀농 준비	귀농을 하려면 사전 준비가 중요함(농사기술, 경제적 문제 등)
조건	지도자	정민철	정민철 선생의 제안으로 협업농장에 참여
	제도/정책	귀농인의 집	정부 지원을 통해 귀농인의 집을 운영하고 있지만 부족함
	조직	젊은협업농장	귀농 후 젊은협업농장을 함께 운영하며 일하고 있음
	판로	흥성유기농영농조합	주요 판로
	판로	직거래 식당	주요 판로
	판로	개인 직거래	주요 판로
	판로	마르쉐 장터	직거래 판로 연결
	판로	판로 리스트	협업을 하다 보니 많은 아이디어가 나오고 판로 리스트가 축적됨

4.3.6. 젊은협업농장 K

- K씨는 사회적 요소로 가치/인식/태도, 농법, 네트워크, 유통, 조직이 중요하다고 하였음. 특히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지역 간 네트워크와 단체 실무자들 간 유대가 강하면 강할수록 더욱 큰 효과를 가져온다고 강조하였음. 반면 사회적 조건에 대해서는 지역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외부 지원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고 함.
- 한편 대안으로 제시한 농업후계자 정책은 현실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였음. 도시에서 살다 귀농하는 새로운 세대에 대한 지원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하였음. 곧 일정 기간 적응을 거쳐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벤처기업처럼 인큐베이팅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표 4-14. 홍성 사회성 분석(젊은협업농장 K)

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내용)
요소	생산자의 가치/인식/태도	지역순환	· 농촌 자체의 완결성
	농법	유기농	· 유기농 지향
	내부 네트워크	규모	· 먼단위
	내부 네트워크	지역성	· 장소 기반
	외부와와의 네트워크	개방성	· 폐쇄주의 탈피
	내부 네트워크	과도기 인정	· 인큐베이팅 도입 필요
	유통	직거래 강화	· 생산자-영농조합 작목반-생협연합회 (물류팀)-소비자의 유통구조
	조직	유기농영농조합	· 풀무원생협을 보고 장곡면 홍성유기농영농조합으로 이전, 독립. 풀무생협은 홍성, 농협친환경작목회는 홍동면이 활동 무대.
	조직	조직화비율	· 홍동은 풀무신협, 풀무생협, 홍성유기농, 농협작목반이 홍동면에 있는 농가의 90%가 소속
	조직	형태(대의원제)	· 리 단위별로 1,2명씩 총 150-200명 정도. 대의원 선출은 추천에 의해서 마을에서 한 명씩 선출
	조직	조직화(자치)의 기본	· 전문 분야 직능단체의 강화

5. 완주

5.1. 현황

- 완주군은 전라북도의 중앙에 위치하여 전주시를 둘러싸고 있으며, 동은 진안군, 서는 김제시, 남은 임실군과 정읍시, 북은 익산시와 충청남의 논산시, 금산군에 각각 인접하고 있음. 경천, 동상, 화산, 운주, 비봉, 고산, 구이, 소양, 이서, 상관, 용진 등 10개 면과 봉동, 삼례 등 2개 읍이 있음.
- 2013년 8월 31일 기준으로 총 세대수는 3만 6,057가구이고 총 인구수는 8만 6,621명임. 노인인구는 65세 이상 1만 6,665명이고 완주군 전체 인구의 19%임. 완주군의 재정자립도는 25.7%로 군 평균 17.28%보다 높은 편임.
- 완주군은 2008년 5월 완주군의 농업 활성화와 농촌 활력증진을 위해 농업농촌발전 ‘약속(Promise)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추진하였음. 약속 프로젝트는 생산과 유통, 농업 회생과 농촌 활력을 위해 12개 시책사업에 대해 5년간 100억 원의 군비를 집중 투입하는 사업임.
 - 생산혁신: 조사료의 기획생산과 축분의 퇴비화로 순환농업을 실현함.
 - 유통혁신: 로컬푸드 중심의 유통 체계를 확립함.
 - 경영회생: 5년간 100억에 달하는 농가경영회생기금을 조성하고 경영회생을 위한 컨설팅을 해줌.
 - 농촌활력 증진: 도농교류 거점마을 100개소를 조성(파워빌리지)하고 체험마을의 통합관리를 위한 도농교류센터를 설립함. 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 연계 추진으로 체계적으로 농촌을 개발.
 - 복지혁신: 농촌노인복지형 두레농장 조성으로 생산적 복지를 실현.
- 완주군의 농업 인구는 2만 6,990명(9,304가구)으로 전체 인구의 31%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음. 완주군의 농경지 현황은 총 1만 3,573.4ha이고, 논 4,653.3ha, 밭 8,889.3ha, 과수원이 30.8ha를 차지함.

- 완주군의 친환경농산물 인증 건수는 총 83건이며, 친환경농산물 인증에는 유기농산물, 전환기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저농약농산물이 포함됨.
 -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총 농가수는 271가구(완주군 농가수의 2.9%)이며, 총 면적은 276.5m²(완주군 경지면적의 2.0%), 총 생산량은 5,081.4M/T에 달함.

5.2. 특징

5.2.1. 인덕마을 두레농장 L

- 두레농장
 - 현재 인덕마을 두레농장은 3천 평에 상추, 참나물 등을 재배하고 있음. 대부분 건강밥상, 로컬푸드 매장에 팔고 있고, 일부 농수산물 시장을 통해 판매 중임. 인덕마을은 40여 가구에 60여 명이 거주 중이고, 현재 65세 이상 노인 10여 명이 두레농장에서 일하고 있음.
 - 두레농장은 노인 일자리 사업 겸 노인 복지 사업으로 완주군 ‘약속 프로젝트’의 지원을 받아 시작함.
 - 작물: 노인들이 앉아서 일할 수 있는 상추, 참나물 등을 재배 중임.
 - 자격 요소: 65세 이상 노인들.
 - 임금: 일당 3만 원. 인원이 많아서 3일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참여.
 - 토지 임대: 총 3천 평에 땅 주인 5명에게 매년 4백만 원씩 지급함.
 - 판로: 건강밥상과 로컬푸드 두 곳에서 거의 전량 판매가 됨. 안 받아주는 소량은 시장으로 감.
 - 정착도: 올해(2013년)가 지원을 받는 마지막 해인데 적립금 및 자체 노하

우 축적으로 정착 단계에 올랐다고 자체적으로 평가 중임.

○ 리더십

- 완주 군수는 추진력과 리더십이 있으며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평가받고 있음. 로컬푸드, 두레농장 등 여러 사업을 추진함. L 위원장은 인덕마을 이장으로서 마을사업 공모에 지원 후 선정되자 두레농장 위원장으로 발탁됨.
- 완주군 ‘약속 프로젝트’는 5년 동안 2억 원을 지원해 주는 마을사업임. 단계적으로 지원금을 줄여나가면서 5년 동안 정착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줌.

○ 귀농 정책

- 완주군은 귀농가구를 지원하는 여러 정책을 시행 중임. 집 마련은 물론 매달 80만 원씩 생활비를 지급함(부부일 경우, 160만 원 지급). 신청자의 경우 하우스 시설도 지원함.

○ 로컬푸드

- 로컬푸드는 완주의 지속가능한 농업 사업의 핵심.
- 매주 농약 검사: 로컬푸드에 납품하는 제품의 70%가 유기농임. 농약이 들어가면 품질이 좋아지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일주일에 한 번씩 농약 검사. 농민들이 가져온 작물 중 무작위로 뽑아서 조사함.
- 농민들에게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해 줌. 로컬푸드 매장 직원, 농약 검사자 등 일자리 창출의 역할도 함.

5.2.2. 완주 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 M

○ 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의 특징

- 현재 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는 완주군에서 중간 지원조직으로 만든 네 개의 센터 가운데 하나로 마을사업 육성과 귀농귀촌 지원, 로컬푸드 교육 등을 담당하고 있음. 2010년에 완주군의 지원을 받아 로컬푸드센터, 마을회 사육성센터, 도농순환센터와 함께 들어섰고 현재 중간 지원조직으로는 유일하게 남아 있음.
- 커뮤니티비지니스는 2단계로 사업을 추진함. 첫 단계는 예비 CB 창업단계로 특정한 사업 분야에 관심 있는 주민이 모여 동아리를 구성하고 학습하는 과정으로 주로 학습 활동비를 지원함. CB 창업단계는 창업을 시도하는 과정으로 시설 및 장비 구입, 사업 공간의 리노베이션 등 실질적으로 창업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 2010년부터 시작한 커뮤니티비지니스는 약 30여 개소가 활동 중임.
- 중간 지원조직은 지역사회의 자립, 공생, 협력을 목표로 행정과 민간 사이의 중재와 민간과 민간 사이에서 협력과 조정을 하며, 부족한 민간의 역량을 보완하고 지원하기 위한 전문 조직임. 농어촌 지역의 경우 부족한 인적자원, 열악한 비즈니스 기반, 비효율적인 서비스 전달체계, 복잡한 정책 시행체계 등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기초지자체 단위의 중간 지원조직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활발함(서정민, 2011).

○ 농업의 사회적 측면

- 농산물은 시장에 적합하지 않은 품목이므로 수요와 공급이 아니라 필요와 공급이 적용됨. 필요한 사람과 공급하는 사람 간의 관계를 연결시켜주는 방법이 사회적이어야 함. 시장 거래 방식을 지양하고 소비자와 생산자가 사회적으로 만나는 기회 제공.
- 농촌 사회 내부 커뮤니티, 도시 소비자와의 커뮤니티, 도시 내 농업 정보 교류 커뮤니티가 중요함.

- 시장 대신 사회적인 방식을 찾아내면 판로와 가격이 정해지므로 식량 자급률이 높아짐. 농민들은 안정된 소득을 가질 수 있고, 경제적인 소득이 보장되면 농민들도 더 많아질 수 있음. 나아가 에너지를 많이 쓰는 농업도 변화시키는 것이 가능함.

○ 로컬푸드

- 80평 매장에서 2012년 8개월 동안 46억 원의 매출을 올림. 현재 일 매출이 4~5천만 원에 달함. 매장 및 꾸러미 사업 등 3년의 준비 기간이 있었음. 품목 다양성을 사전조사하고 교육함. 주민들과 정책 담당자들이 같이 진화시켜나가는 시스템.

○ 조직

- 탄탄한 민간조직이 필요함. 진안의 경우, 30여 개의 민간 조직이 존재함. 민간조직이 성장하는 데에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므로 초기에는 안정적인 지원이 필요.

○ 순환경제

- 또한 시장경제 방식의 이면에 있는 경쟁의 논리가 필요 없는 순환경제 시스템을 도입해야 함. 아울러 지연산업과 지장산업을 활성화시켜야 함. 지연산업은 지역 내 생산이 가능한 것, 완주에서 만들어내지 못하는 품목은 지장산업에 해당함. 둘을 구분한 뒤 지연산업은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충분히 키워야 함. 무조건 더 싼 제품과 맞붙이는 것은 시장 논리.
- 농민과 소비자 사이에 사회적 관계가 형성되면 농산물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며 작물의 생김새가 중요 요소가 아니게 됨. 소비자 교육이 중요하며 도시와 농촌 간의 교류 및 사회적 관계 형성이 중요함.

5.3. 사회성 분석

5.3.1. 인덕마을 두레농장 L

- 완주의 지속가능한 농업의 사회적 요소로 판로, 인물, 농법, 농민 충원, 가치/인식/태도, 판로 등 완주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드러난 공통점을 골고루 들었음. 그만큼 지속가능한 농업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이 크다는 것임.
- 한편 사회적 조건으로는 두레농장과 마을사업을 들었음. 이는 현재 두레농장 위원장을 맡고 있는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보임.
-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서는 판로, 인물, 농법, 농민 충원, 가치/인식/태도 등의 요소가 있으며 제도/정책 등의 조건이 필요함.
- 또한 지속가능한 농업의 요소로 안정적인 판로와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일을 추진하는 인물이 있음. 기후 변화에 따른 수확량 및 농사지 변경, 가능성에 대비한 농법을 통해 자재비 절감 및 농사 정보 공유가 가능해짐. 완주군의 지원을 받아 농민 충원을 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임. 소비자의 ‘가치/인식/태도’ 변화와 농민과의 신뢰로 쌓은 로컬푸드 등의 판로도 있음.
- 이밖에 지속가능한 농업의 조건으로 두레농장 및 약속 프로젝트와 같은 안정적인 제도/정책의 필요성과 지속가능한 농업의 대안으로 농산물 가격 상승을 예측하는 비전을 제시하였음.

표 4-15. 완주 사회성 분석(인덕마을 두레농장 L)

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내용)
요소	판로 농법 농민 충원 농법 농법 판로	꾸러미/로컬푸드 기후 변화 고려 귀농 작물 집중 유기농 로컬푸드	완주 농가 대부분 수확량 및 농사지 변경 가능성 완주군의 지원 자재비 절감 및 농사 정보 공유 완주군 농업대학 무상교육 소비자와의 신뢰
조건	소비자의 가치/인식/태도 제도/정책 제도/정책 지도자	소비자 두레농장 하향식 마을사업 군수/이장	소비자의 태도 변화 필요 노인 일자리 겸 노인 복지 사업 완주군 ‘약속 프로젝트’ 주민 의견 수렴 및 추진력

5.3.2. 완주 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 M

- 완주의 지속가능한 농업의 사회적 요소로 조직, 인물, 농민 충원, 가치/인식/태도를 들었음. 특히 조직과 인물을 강조하였음. 이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농업을 선택하고 지속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리더십과 탄탄한 조직이 핵심 요소임을 의미함.
- 한편 사회적 조건으로는 지역 자립도와 활력 사업 등을 들었음. 이는 현재 로컬푸드의 성공에 만족하지 않고 보다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겠다는 의지로 보임.
- 구체적인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서는 ‘조직’, ‘인물’, ‘가치/인식/태도’, ‘농민 충원’

등의 요소가 있으며 ‘제도/정책’이 조건으로 필요함.

- 지속가능한 농업의 요소 중 하나인 ‘조직’은 여러 마을사업 조직들을 지원하는 중간 지원조직, 농촌 내, 도농 간, 도시 내 커뮤니티, 탄탄한 민간조직 등을 의미함. 농업사회학 등 사회적인 시각으로 농업에 접근하는 연구자들도 ‘인물’로서 중요 요소임. 경쟁의 논리가 필요 없는 순환경제 시스템과 도농 간 사회적 관계를 형성한 소비자의 ‘가치/인식/태도’가 한 요소가 될 수 있으며, 사회적인 방식의 ‘농민 충원’ 또한 필요함.
- 지속가능한 농업의 조건으로 높은 지역 자립도를 바탕으로 농촌 활력사업과 로컬푸드 사업 등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정책’이 필요함.
- 하향식 사업에서 리더 교체에 대한 불안감을 대비해야 하는 점이 ‘개선점’으로 지적될 수 있음.

표 4-16. 완주 사회성 분석(완주 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 M)

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내용)
요소	조직	중간 지원조직	여러 마을사업 조직들 지원
	조직	커뮤니티	농촌 내, 도농 간, 도시 내
요소	조직	민간조직	탄탄한 민간조직의 필요성
	생산자의 가치/인식/태도	순환경제	경쟁의 논리가 필요 없는 시스템
	농민 충원	사회적 방식	쿠바의 푸드쿠폰의 예
조건	소비자의 가치/인식/태도	소비자	도농 간 교류와 사회적 관계 형성
	제도/정책	지역 자립도	농촌사업 추진의 기반
	제도/정책	농촌활력사업	5년간 100억 원 지원
	제도/정책	로컬푸드	3년의 준비 기간과 성공적인 매출
	지도자	연구 및 연구자	사회적인 시각으로 농업에 접근

6. 종합 분석

6.1. 지속가능농업의 사회적 요소

- 이 연구에서는 지속가능한 농업의 사회적 측면을 지속가능한 농업의 사회적 요소로 파악함. 관행농업을 넘어 대안적인 농업을 지향하는 농업을 포괄적 의미에서 지속가능한 농업을 지향하는 과정으로 보고 이러한 활동을 하는 농부들과 농업 전문가들과의 심층면담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을 구성하는 사회적 요소를 파악함.
- 지속가능한 농업의 사회적 요소들은 생산자의 가치/인식/태도, 조직(내부 네트워크/외부와의 네트워크 포함), 교육, 농민 층원, 농법, 판로 등임.
- 지속가능한 농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농업활동의 주체인 농민들이 농업의 사회적, 환경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농사에 대한 자긍심과 보람, 의지를 갖추면서 생명과 안전을 주요 가치로 삼아 농업활동에 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파악됨. 경제적 풍요로움보다는 생명의 가치를 추구하며 자신의 활동에 대해 만족감을 느끼며 행복을 추구하고 이를 행함에 있어 농민들 간에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개인이 아니라 협력을 지향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필요함. 또한 농민들은 자신들의 가치를 주변 농민들에게 확산하면서 새롭게 농업활동으로 유입되는 귀농자들을 배려하고 함께하려는 태도를 지녀야 함.
- 생산자들의 이익을 수렴하고 대변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함. 지속가능한 농업은 생명의 가치를 지향하는 의식 있는 농민들을 필요로 하지만 지속가능한 농업을 구현하는 변화의 과정은 개별 농민의 개인적 노력만으로는 어려움. 대안적인 농업의 지속적인 확산과 확장을 위해서는 이들이 생산한 농산물이 적절한 가격에 안정적으로 판매되어야 하고 다양한 종류의 농산물을

적정량 이상의 규모로 갖추는 게 요구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생산자인 농민들의 조직이 필요함. 이러한 조직 활동을 통해 농민들은 친환경농법을 준수하도록 서로 격려하면서 또한 친환경농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상호 견제가 가능하고 정보를 교환하며 소통해 나갈 수 있음. 또한 소비자와 건강하고 대등한 관계를 맺으면서 상호 신뢰의 틀을 구축해갈 수 있음.

- 지속가능한 농업이 건강하게 유지되고 확장되기 위해서는 농민들 간에 내부 네트워크가 단단하게 구축되고 외부와의 네트워크 또한 건강하게 유지되어야 함. 조직 형태로 발전할 수도 있고 조직 수준에 이르기 전 단계에서 농민들은 개인 차원이 아니라 집단으로 행동함으로써 자신들의 가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구현해갈 수 있으며 공동 작업을 수행하고 취미생활 또한 함께 함으로써 보다 결속을 높여갈 수 있음. 또한 판로를 개척하고 유지·확대하기 위해, 아울러 지속가능한 농업이 지속가능한 사회의 한 영역이란 사실에 대한 인식을 토대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실현해가기 위한 다양한 외부 조직들과의 네트워크 또한 구축하고 확대해가야 함. 이러한 내부 네트워크와 외부와의 네트워크 구축은 앞서 기술한 ‘조직’을 통해 더욱 활발하게 구축해갈 수 있음.
- 지속가능한 농업의 주요한 사회적 요소 중의 하나는 ‘교육’임. 앞서 기술한 생명을 중심에 둔 생산자의 가치/인식/태도를 배양하기 위해, 아울러 지속가능한 농업을 실현해 갈 수 있는 농법의 전수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함.
- 지속가능한 농업은 물론 우선 농업이 지속해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농사를 짓는 농민이 지속적으로 충원되어야 함. 지속가능한 농업의 사회적 요소로서의 농민 충원은 두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 하나는 기존 관행농을 대안적인 농업을 실천하는 농민으로 꾸준히 확대해가는 것, 다른 하나는 농업 이외 영역에 존재했던 사회 구성원을 농업인으로 바꾸어 수용하는 것임.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농촌 현실에서 농민의 지속적인 유지와 확

장은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임.

- 지속가능한 농업은 지속가능한 농법을 주요한 구성요소로 함. 농사짓는 기술이 지속가능하지 않을 때 지속가능한 농업은 실현될 수 없음. 땅과 물은 물론 미생물을 훼손하지 않고 농업과 축산업이 함께 맞물려 돌아가면서 영양분이 건강하게 순환될 때, 나아가 에너지 투입이 최소화될 때, 농업의 지속가능성이 구현되고 지속가능한 농업이 실현될 수 있음. 경지 규모가 대규모로 확장되면 기계를 사용하게 되고 이는 땅을 굳게 하여 미생물의 작용을 훼손할 뿐 아니라 환경을 파괴하고 에너지의 지속적인 투입을 요구하게 되므로 지속가능성이 구현되기 어려움. 아울러 농작물의 재생산과 관련해서 궁극적으로 지속가능한 농업은 사료와 종자가 국산화될 때 구현될 수 있음.
- 경제적으로 수익을 낼 수 없다면 지속가능한 농업이 실현될 수 없음. 판로는 지속가능한 농업의 경제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이 중첩되는 영역으로서 지속가능한 농업을 구성하는 요소이자 지속가능한 농업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조건이기도 함. 지속가능한 농업의 구성요소로서 판로는 단순히 경제적 관계가 아니라 생산자와 소비자 간 신뢰를 기초로 안정적 판매가 가능하도록 하는 사회적 관계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함.

표 4-17. 지속가능한 농업의 사회적 요소

요 소	내 용
생산자의 가치/ 인식/ 태도	· 농업의 사회적, 환경적 중요성 인식 · 농사에 대한 자긍심과 보람, 의지 · 경제적 관점을 넘어 생명의 가치 지향 · 경제적 풍요보다는 만족감과 행복 추구 · 안전한 먹을거리, 생명을 살리는 먹을거리 생산 추구 · 농민들 간 신뢰와 협력 지향 · 농민과 소비자 간에 신뢰에 기초한 사회적 관계 추구 · 새로운 귀농자 포용

표 4-17. 지속가능한 농업의 사회적 요소

요 소	내 용
조직	· 생산자의 이익을 수렴하고 대변할 수 있는 조직 · 판로를 개척·유지·확대할 수 있는 조직 · 일정량 이상의 생산물 공급이 가능할 수 있는 공동 출하체제 · 친환경농법 준수 상호 감시 · 상호 격려와 정보 교환, 소통 · 소비자 조직과의 집단적 연계
내부 네트워크	· 함께 하는 농업: 유기농의 경우 개인이 아니라 ‘우리’가 중요하므로 내부 구성원들 간 네트워크 구축 · 농업공동체 구성원들 간 소통과 생산물(가공품 포함)의 생산과 판매를 위한 네트워크 · 공동작업을 위한 네트워크 · 지역 내 조직 간 소통 · 함께 하는 취미생활
외부와의 네트워크	· 판로 보장을 위한 외부와의 네트워크 · 지속가능한 사회를 지향하는 농업 외 조직과의 네트워크
교육	· 농업에 대한 공동의 가치/인식/태도를 공유할 수 있는 교육 · 생명의 가치를 내재화할 수 있는 교육 · 유기농업, 무농약농업, 저투입농업 등에 필요한 농법의 전수
농민 충원	· 농업인구의 확대 재생산 · 영농후계자 확대 · 관행농으로부터 대안농으로의 전환 · 농가의 기본 생계 유지 가능 · 귀농인에 대한 기존 농민의 배려
농법 (농업기술)	· 생태와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농법 · 땅을 훼손하지 않는 농법 · 땅의 지력을 살리는 농법 · 기계를 되도록 사용하지 않는 농법 · 에너지 투입이 적은 농법 · 농약과 화학비료, 살충제 사용 자제 · 천연살충제, 자연퇴비 사용

표 4-17. 지속가능한 농업의 사회적 요소 (계속)

요 소	내 용
농법 (농업기술)	· 농업과 축산업의 결합으로 순환체계 구축 · 미생물을 풍부하게 사용하는 농법 · 순환농법 · 협업 방식 지향 · 우리나라 기후에 맞는 농법 · 국산 사료 · 국산 종자
판로	· 안정적 판매 가능 · 안정적 수입 보장 · 소비자와의 신뢰 바탕

6.1. 지속가능한 농업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조건

- 지속가능한 농업은 농업 내부의 지속가능성을 높여가는 것을 필요로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음. 농업을 둘러싼 제반 사회적 조건이 지속가능한 농업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마련되지 않으면 달성되기 어려움.
- 지속가능한 농업은 소비자의 가치/인식/태도, 교육, 제도/정책, 판로, 지속가능한 농촌이란 조건들이 갖춰지지 않으면 실현되기 어려움.
- 지속가능한 농업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가치/인식/태도가 바뀌어야 함. 농업의 사회적·환경적 가치를 인정하고 농업과 농민의 역할에 대한 존중이 요구됨. 생명을 중심에 두기보다 색깔과 크기, 별레 먹지 않은 제품을 선호하게 되면 유기농산물이 확산되기 어려움. 또한, 소비자들이 제철이 아닌 농산물을 요구하게 되면 이를 생산하기 위해 가온 재배를 하거나 유기농

으로 생산된 제품이라 하더라도 저온저장 출하방식을 취하게 되면 상당한 에너지 소비가 수반될 수밖에 없음. 이러한 소비자 요구는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해치게 됨. 유기농을 비롯한 대안적인 농업에 대해 소비자들이 꾸준히 관심을 두고 적절한 가격으로 구매해주고자 하는 태도를 지니는 것이 지속가능한 농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중요한 조건이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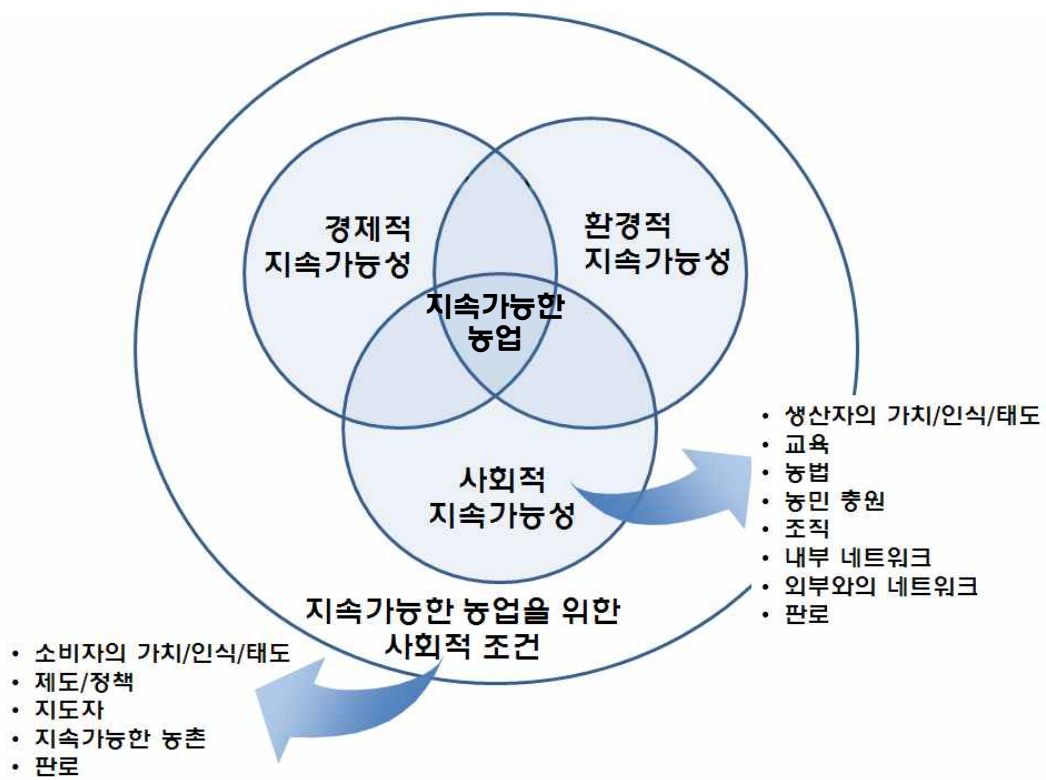
- 지속가능한 농업이 구현되기 위해서는 지역별로 이를 추동해 나가는 지도자가 중요한 역할을 함. 우리나라에서 지속가능한 농업을 시도하며 실험 중인 지역들에서는 대안농업의 가치를 지향하며 대안농업을 스스로 실천하면서 주변 농민들을 설득하고 이들의 신뢰와 지지를 얻으면서 대안적인 농업을 확산시켜 나가는 의식 있는 지도자들이 존재함. 이들은 지속가능한 농업을 실현해 나가는 데 있어 마중물 역할을 함.
- 농업에 대한 건강한 소비자들의 가치/인식/태도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교육이 중요함. 건강한 소비자 교육을 통해 농민을 존중하고 신뢰하며 꾸준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는 소비자들이 존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생산자와 소비자가 서로 신뢰하고 연대할 때 지속가능한 농업이 보다 확실하게 실현될 수 있음.
- 지속가능한 농업이 실현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사회적 조건 중의 하나는 이를 지지하고 지원하는 제도와 정책임. 농촌 지역 지자체장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가 상당히 중요하며 소비자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인 인증체제를 확실히 구축하고 다양한 사업과의 연계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지원이 요구됨. 법과 조례 등을 통해 안정적인 제도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판로는 지속가능한 농업의 사회적 요소이자 지속가능한 농업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조건이기도 함. 계약재배를 비롯하여 안정적인 판매와 수익을 보장해 주는 소비자 조직 간의 연계 중요. 지역 먹을거리체계가 구현될 수 있는 판로가 마련될 때 지속가능한 농업의 가능성은 한층 높아짐.

표 4-18. 지속가능한 농업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조건

조 건	내 용
소비자의 가치/ 인식/ 태도	· 농업의 사회적 환경적 가치 인정 · 농업과 농민에 대한 사회적 존중 · 제철음식에 만족하는 소비자 · 소비자의 유기농 가치에 대한 인식 제고 · 소비자의 꾸준한 관심과 소비
지도자	· 의식 있는 뛰어난 지도자: 대안농업에 대한 가치와 농법을 앞서서 실천하고 주변 농민과 지역에 확산시킬 수 있는 지역의 지도자 필요 · 지역 외부에서 대안농업을 주창하는 분들에게 영향 · 지역 외 지도자들과의 연계
교육	· 농업과 농민을 존중하고 착한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제도/정책	· 친환경농업육성법이나 조례를 통한 안정적 기반 조성 · 지방자치단체 지원 · 제도적 인증 · 학교 급식과의 연계 · 마을체험사업과의 연계 · 정책환경변화의 위험: 예) 4대강 사업 · 초기 농가에 대한 시설자금, 운영자금 지원 · 국산 종자 기술개발 지원
판로	· 판로는 지속가능한 농업의 구성 요소이자 지속가능한 농업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조건 · 소비자 조직과의 연계 · 대안농가의 안정적 판매와 안정적 수익 보장 · 지역 먹을거리(local food) 체계 구축
지속가능한 농촌	· 농촌공동체 회복 · 농가만이 아니라 비농가가 함께 지속가능한 농촌 공동체 구성 · 농촌에서도 자녀를 교육할 수 있는 교육 여건 · 의료서비스와 문화적 혜택이 공유되는 농촌

- 지속가능한 농업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우선 관행농이라 하더라도 농업 행위 자체가 지속될 수 있어야 하며 궁극적으로 농업이 이루어지는 공간인 농촌이 지속될 수 있어야 함.
- 지속가능한 농업의 사회적 요소와 지속가능한 농업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조건을 그림으로 나타내보면 <그림 4-1>과 같음.

그림 4-1. 지속가능한 농업의 사회적 요소와 사회적 조건



제 5 장

전문가 좌담회/인터뷰

- 농업 전문가 4인(임경수 완주 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 대표, 윤형근 성남용인 한살림 상무, 허남혁 충남발전연구원 연구위원, 김철규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과의 전문가 좌담회에서 이 연구를 통해 귀납적으로 도출한 지속가능한 농업의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구성하는 요소와 지속가능한 농업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조건에 관해 토론하고 전문가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함.
- 전문가들은 이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사회적 요소와 조건은 농업 내부의 특정 주체(농민이나 조직)가 통제할 수 있느냐에 따라 구분될 수 있다는 의견을 개진함. 농업 내부 주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라면 요소로, 통제할 수 없는 것이라면 조건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음.
- 전문가들과의 논의를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생산자의 가치/인식/태도”와 “사회적 관계”란 사실을 확인하게 됨.
- 전문가들은 현재 연구팀에서 도출한 사회적 요소들이 병렬적으로 나열되어 있는데 이 요소들 사이에 위계가 있을 수 있음을 지적함.

- 전문가들은 생산자들의 가치/인식/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사회성이란 결국 사회적 관계임을 강조함. 가치를 매개로 조직이 만들어지고 가치를 재생산하고 공유하며 확산하기 위해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 또한 가치에 기반을 두어 어떤 농법을 사용할 것인지가 결정되며 같은 가치를 내재한 농민들을 길러내어 지역으로 받아들이는 게 필요함. 따라서 가치가 다른 모든 요소보다 좀 더 폭넓은 개념이자 보다 중요한 개념이라 할 수 있음.
- 또한 관계는 조직으로 더욱 정형화되기도 하지만 내부 네트워크나 외부와의 네트워크라는 방식으로 보다 유연하게 맺어질 수 있음. 농민과 농민, 농민과 지역 내 비농민, 더 넓게는 농민과 소비자들의 네트워크로 구성됨. 가치가 관계를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일정한 관계를 통해 가치가 공유되고 확산하기도 한다는 사실이 중요함.
-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여가면서 지속가능한 농업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재 사회적 관계를 압도하고 있는 경제적 관계를 사회적 관계에 의해 지배받는 것으로 전환해 가는 것임.
- 사회적 관계란 신뢰와 호혜를 바탕으로 하는 것으로 농민과 농민, 농민과 (지역 내) 비농민, 농민인 생산자와 소비자 간 관계가 신뢰에 기반을 두어 유지되는 것임. 이러한 사회적 관계가 확장되고 강화될 때 농업의 지속가능성이 확보될 수 있음.
- 경제적 관계를 기반으로 한 조직은 지속가능하기 어려움. 더욱 든든한 신뢰와 호혜를 바탕으로 가치를 공유한 조직이 필요하며 조직 자체가 중요하기 보다는 조직의 다양성이 중요함.
- 내부 네트워크는 조직 내 농민과 농민의 네트워크만이 아니라 농민과 농민 이외 지역 주민이나 조직 외 농민과의 네트워크까지 포괄해야 함.

- 외부와의 네트워크는 비단 소비자단체만이 아니라 지방정부나 중앙정부와의 네트워크 또한 포함함.
- 지도자란 말보다는 지도력(leadership)이란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함. 개인이 지도력을 발휘할 수도 있고 조직이 지도력을 발휘할 수도 있기 때문이며 관계 속에서 지도력이 발휘될 때 사회적 힘을 가지고 변화를 견인할 수 있기 때문임. 또한 지도력은 농촌 내부에서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사회적 조건이라고 보기보다는 농업 내부의 사회적 요소로 보는 게 적절함.
- 판로란 표현은 상당히 경제적인 용어임. 판로는 현재 연구 결과에서 요소와 조건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양쪽에 포함되는 게 문제 되지 않음.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사회적 요소로서의 판로는 “소비자와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거라면 사회적 조건으로서의 판로는 유통구조를 의미하는 개념으로 보는 것이 적절함.
- 사회적 요소에 하나 더 추가하자면 지역공동체란 요소가 추가될 필요가 있음. 지역공동체가 건강하고 튼튼해야 지속가능한 농업이 유지될 수 있음
- 사회적 조건에 제시된 지속가능한 농촌은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농촌사회서비스라고 할 수 있음. 농촌도 하나의 사회로서 의료, 교육, 문화 서비스가 일정 수준을 갖추고 있어야 농민의 지속적인 충원도 가능하고 지역 자체가 건강하게 유지됨으로써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농업의 지속가능성도 꾀할 수 있음.
- 이러한 논의를 정리하면 <표 5-1>과 같음.

표 5-1. 지속가능한 농업의 사회적 요소와 사회적 조건

구 분	내 용
사회적 요소	· 생산자의 가치/인식/태도 · 조직의 다양성 · 내부 네트워크 · 외부와의 네트워크 · 지도력 · 교육 · 농민 충원 · 농법 · 판로(소비자와의 관계) · 지역공동체
사회적 조건	· 소비자의 가치/인식/태도 · 교육 · 정책/제도 · 유통구조 · 농촌사회 서비스

○ 하지만 이렇게 나타내게 되면 요소 간의 위계가 잘 드러나지 않으므로 이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그림 5-1>과 같음. 생산자의 가치/인식/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런 가치/태도/인식에 기반을 두어 관계가 만들어지고 역으로 이런 관계가 가치/인식/태도를 만들거나 강화함. 지도력은 바로 이런 과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 지속가능한 농업의 사회적 요소라 할 수 있는 교육, 농민 충원, 농법, 판로, 지역공동체는 바로 이런 가치/인식/태도와 관계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만들어지고 유지됨.

○ 이러한 지속가능한 농업의 사회적 요소들과 사회적 조건들은 관련 주체들 간의 “관계”를 중요한 매개로 하며 사회 주체들의 관계는 일정한 가치를 기초로 함.

그림 5-1. 수정된 지속가능한 농업의 사회적 요소와 사회적 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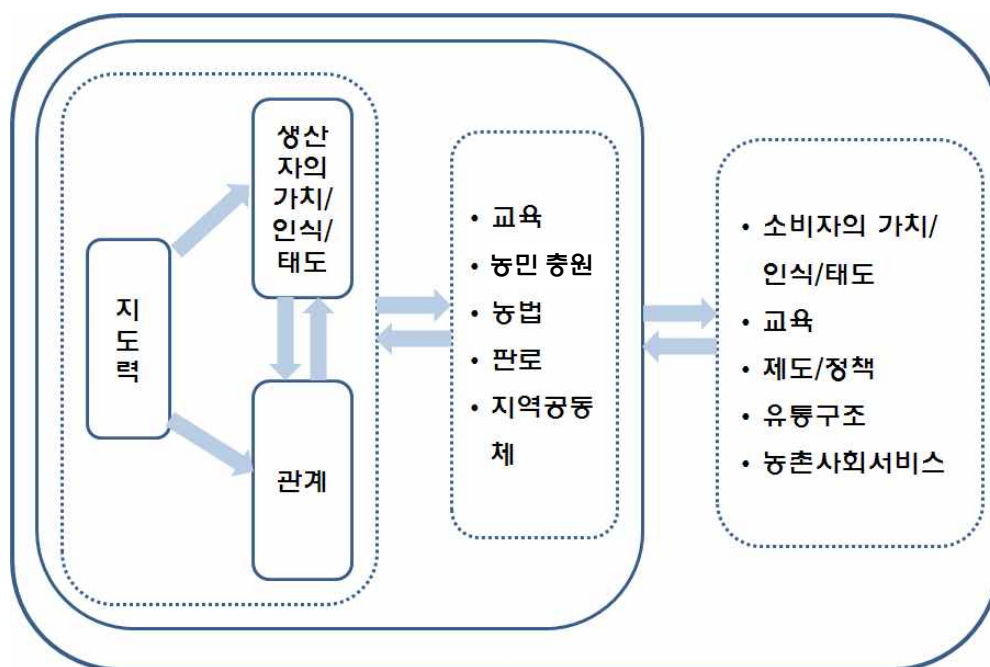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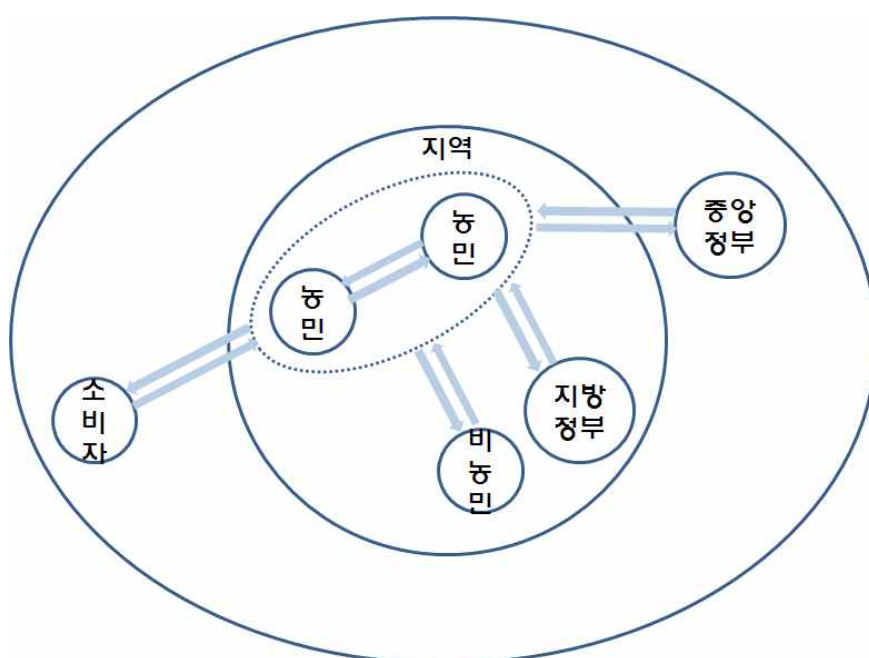


그림 5-2. 관련 주체들의 관계와 가치



- 전문가 좌담회를 통해 정리된 지속가능한 농업의 사회적 요소들과 사회적 조건들에 대해 각 지역별 심층면담을 통해 언급된 내용을 정리해보면 <표 5-2>와 같음. 하지만 <표 5-2>는 주의해서 이해되어야 함. 지역별로 심층면담을 했던 피면접자 수가 다르므로 지역별로 언급된 요소와 조건의 빈도수가 다를 수 있음.
- <표 5-2>를 보완하기 위해 <표 5-3>에서는 지역별/면접자별로 총 언급된 내용 중 해당 요소와 조건의 상대적 비중(%)을 제시함. 그러나 여전히 많이 언급된 내용이 반드시 더 중요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왜냐하면, 면접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대화가 진행되었으므로 맥락에 따라 좀 더 깊이 논의된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이며 지역별 특성에 따라 논의된 내용이 다르기 때문임.
- <그림 5-5>는 전 사례 지역의 응답 비중을 통합하여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고 <그림 5-4>는 지역별 응답 비중을 나타냄.

표 5-2. 지속가능 농업의 사회적 요소와 사회적 조건(지역별, 면접자별 키워드 언급 빈도)

단위: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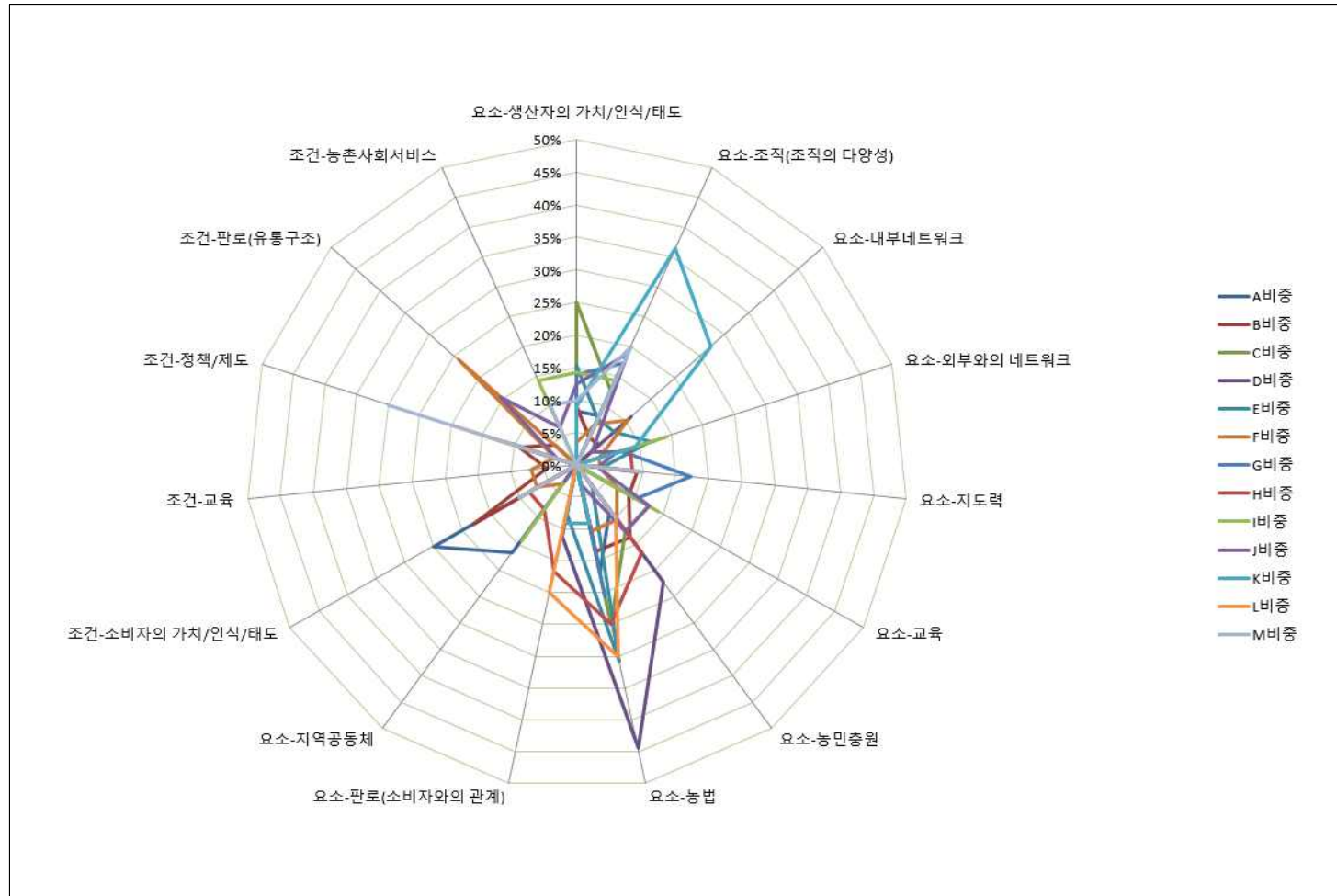
구분	내 용	두물머리			제주				홍성							완주			총 계
		A	B	총	C	D	E	총	F	G	H	I	J	K	총	L	M	총	
사 회 적 요 소	생산자의 가치/인식/태도	1	2	3	2	1	4	7	1	4		1	4	1	11		1	1	22
	조직(조직의 다양성)	1	1	2	1		2	3	2	5		1	6	4	18		2	2	25
	내부 네트워크		1	1		1	2	3	3				1	3	7			0	11
	외부와의 네트워크			0	1		3	4	1	2	1	1	2	1	8			0	12
	지도력	1	2	3			1	1	1	5	1		1		8	1	1	2	14
	교육		2	2	1			1	2	3		1	4		10			0	13
	농민 충원	1	3	4	1	2	1	4	3		2		4		9	1	1	2	19
	농법	2	3	5	2	4	8	14	3	6	3		1	1	14	3		3	36
	판로(소비자와의 관계)			0		1	2	3			2			1	3	2		2	8
	지역공동체	2		2				0	1		1	1	1		4			0	6
사 회 적 조 건	소비자의 가치/인식/태도	3	4	7				0	2	1	1				4	1	1	2	13
	교육		1	1				0	2						2			0	3
	정책/제도	1	2	3			3	3	1	3	1	1	1		7	2	3	5	18
	유통구조		1	1				0	7				5		12			0	13
	농촌사회서비스			0				0				1	2		3		1	1	4

표 5-3. 지속가능 농업의 사회적 요소와 사회적 조건(지역별, 면접자별 총 언급 내용 중 각 키워드의 언급 비중)

단위: %

구분	내용	두물머리			제주				홍성							완주			총계
		A	B	총	C	D	E	총	F	G	H	I	J	K	총	L	M	총	
사회적 요소	생산자의 가치/인식/태도	8	9	9	25	11	15	16	3	14	0	14	13	9	9	0	10	5	10
	조직(조직의 다양성)	8	5	6	13	0	8	7	7	17	0	14	19	36	15	0	20	10	12
	내부 네트워크	0	5	3	0	11	8	7	10	0	0	0	3	27	6	0	0	0	5
	외부와의 네트워크	0	0	0	13	0	12	9	3	7	8	14	6	9	7	0	0	0	6
	지도력	8	9	9	0	0	4	2	3	17	8	0	3	0	7	10	10	10	6
	교육	0	9	6	13	0	0	2	7	10	0	14	13	0	8	0	0	0	6
	농민 충원	8	14	12	13	22	4	9	10	0	17	0	13	0	8	10	10	10	9
	농법	17	14	15	25	44	31	33	10	21	25	0	3	9	12	30	0	15	17
	판로(소비자와의 관계)	0	0	0	0	11	8	7	0	0	17	0	0	9	3	20	0	10	4
	지역공동체	17	0	6	0	0	0	0	3	0	8	14	3	0	3	0	0	0	3
사회적 조건	소비자의 가치/인식/태도	25	18	21	0	0	0	0	7	3	8	0	0	0	3	10	10	10	6
	교육	0	5	3	0	0	0	0	7	0	0	0	0	0	2	0	0	0	1
	정책/제도	8	9	9	0	0	12	7	3	10	8	14	3	0	6	20	30	25	8
	유통구조	0	5	3	0	0	0	0	24	0	0	0	16	0	10	0	0	0	6
	농촌사회서비스	0	0	0	0	0	0	0	0	0	0	14	6	0	3	0	10	5	2

그림 5-3. 인터뷰 대상자별 응답 비중



1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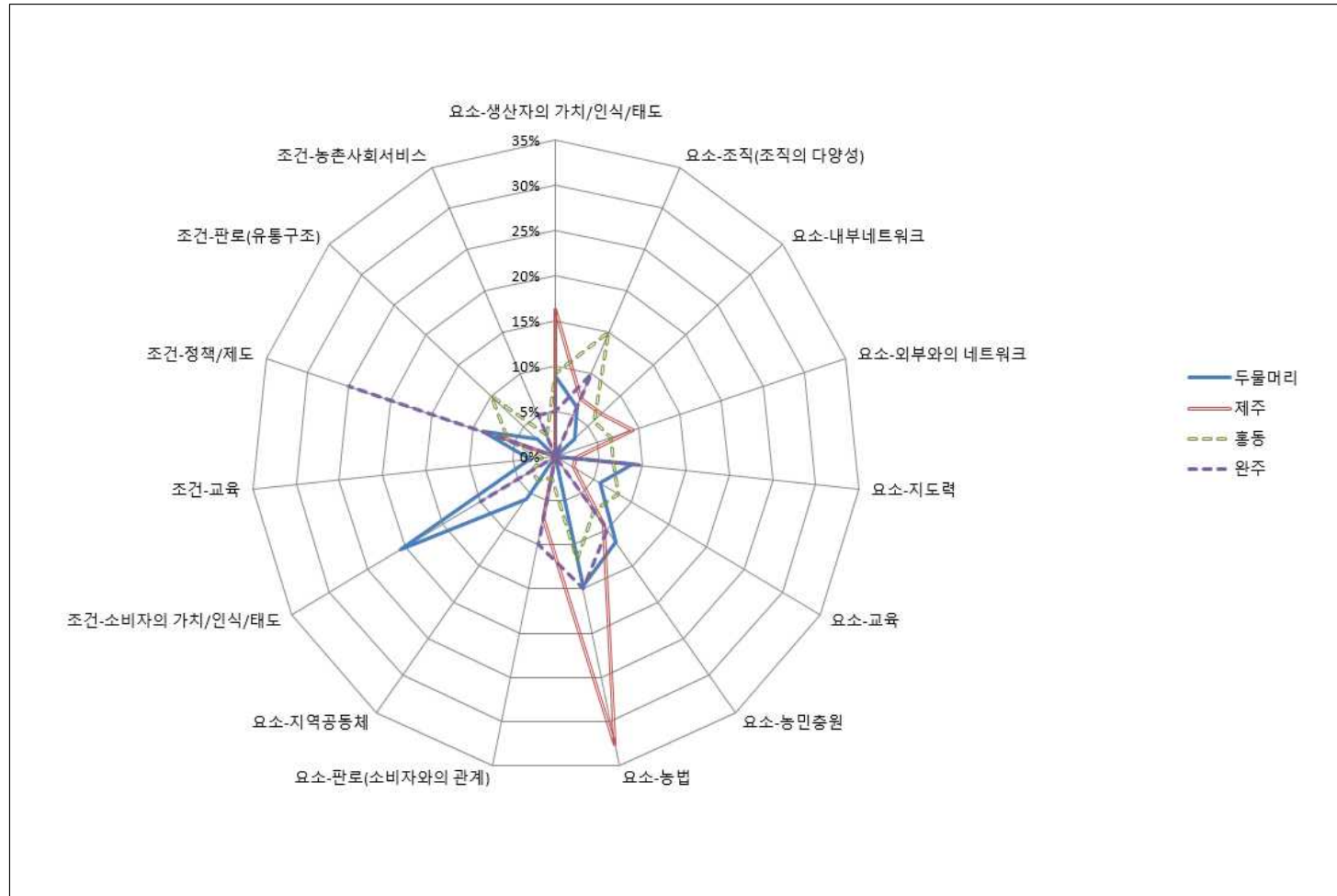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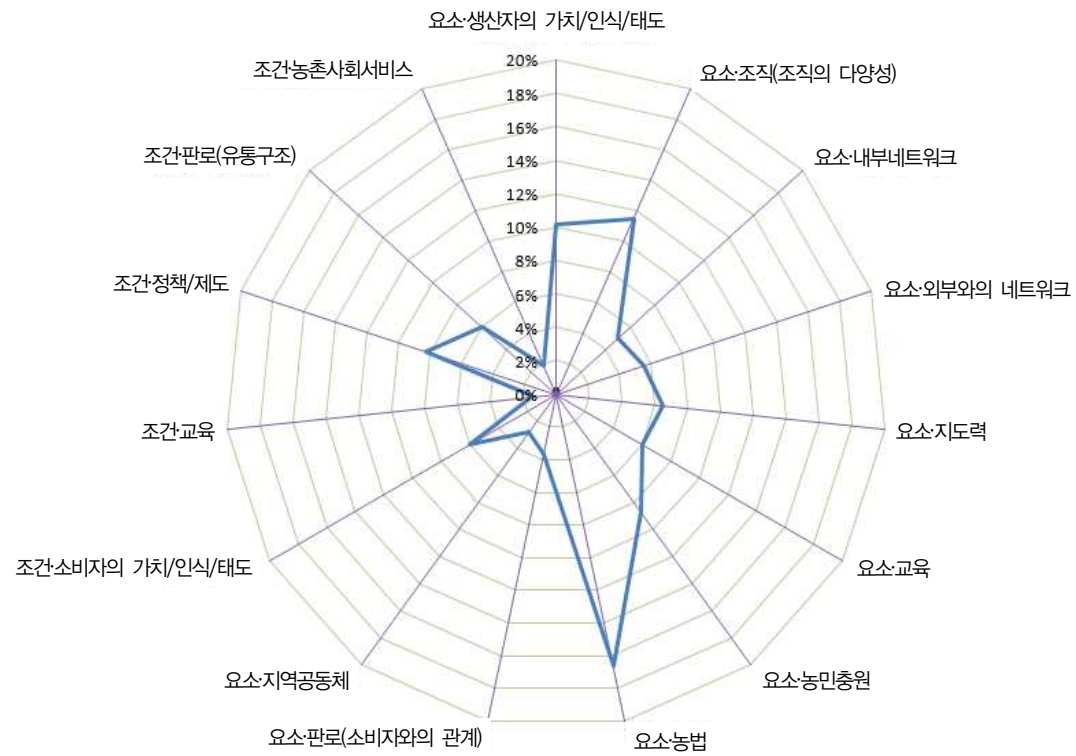


그림 5-5. 응답 비중 종합



- 농법의 언급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제주에서 과도하게 많이 언급된 것이 전체 평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 정책/제도의 경우 <그림 5-5>에서 비중이 높게 표현되었으나 이는 완주에서 언급 비중이 높았음에 기인함. 완주라는 사례 지역의 선정에서부터 로컬푸드의 정책지원에 대해 묻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언급 비중이 높음.
- 두물머리나 완주보다 제주와 홍성은 정책/제도의 언급 비중이 낮는데, 이는 실제 이 지역들이 정책의 혜택을 입고 있기보다는 지역공동체의 단단한 유대관계나(홍성) 생협 등과 같은 소비자단체 및 외부와의 관계에 더 많이 의지하고 있기 때문임.
- <그림 5-5>와 <그림 5-4>를 비교하여 특정지역에 편중된 요소/조건은 제외했을 때 공통으로 중요하게 언급된 부분은 생산자의 가치/인식/태도, 조직의 다양성, 교육, 농민 충원, 농법, 지도력 등임.
- 이는 <표 5-4>의 항목별 상대적 중요도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와도 대체로 일치함. 전문가들에게 항목별 중요도에 대해 평가할 수 있도록 간단한 설문지를 작성하여 요청하였는데 그 결과는 <표 5-4>와 같음.
- 전문가 좌담회를 통해 임경수가 다른 전문가들에 비해 조직을 낮게 평가한 이유에 대해 현재의 조직이 경제적 관계를 기초로 하기 때문에 이런 식의 조직은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실현하는 데 크게 기여하지 못한다는 판단에서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했다는 사실을 언급함. 또한 여기서의 평가 점수는 절대적인 평가치가 아니라 다른 요소나 조건들과의 상대적인 중요성을 평가한 것이므로 조직에 2점을 부과한 것이 조직이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는 아님.
- 지역별 심층면접 결과와 전문가 평가 결과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은 조직과

표 5-4. 전문가들의 항목별 상대적 중요도 평가

구분	내 용	김철규	윤형근	임경수	허남혁	종합
사회적 요소	생산자의 가치/인식/태도	5	5	5	5	20
	조직(조직의 다양성)	5	4	2	5	16
	내부 네트워크	5	4	3	3	15
	외부와의 네트워크	4	4	2	4	14
	지도력	4	4	3	4	15
	교육	5	4	5	5	19
	농민 충원	5	5	4	4	18
	농법	4	4	3	3	14
	판로(소비자와의 관계)	4	4	4	3	15
사회적 조건	소비자의 가치/인식/태도	5	5	5	4	19
	교육	5	4	5	5	19
	정책/제도	4	4	3	5	14
	판로(유통구조)	4	4	4	3	15
	농촌사회서비스	5	4	5	5	19

주: 숫자는, 1: 전혀 중요하지 않음, 2: 중요하지 않음, 3: 보통, 4: 중요함, 5: 매우 중요함.
기울인 글씨체는 농민들에 비해 전문가들이 강조한 조건들임.

농법, 교육, 농촌사회서비스임. 농민들의 경우 조직과 농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며 전문가들의 경우 농민에 대한 교육과 소비자 교육, 농촌 사회서비스를 상대적으로 더 강조하는 경향이 있음. 농민들의 경우 개별 농민으로서는 농업을 지속가능하게 유지해 나가기 어려우며 특히 판로의 개척과 유지를 위해, 농민의 이해를 대변하기 위해 조직이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친환경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이 진행된 결과 농법에 대한 언급이 높았던 것으로 추론됨. 전문가들의 경우 가치/인식/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이는 비단 농민들만이 아니라 소비자들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음. 다른 요소나 조건들 모두 가치/인식/태도에 의해 영향을 받는 종속변수로서 가치/인식/태도의 함양을 위해 교육이 중

요하다고 평가하고 있음. 또한 농가인구가 지속해서 충원되고 농촌이 유지되어야 농업의 지속가능성이 유지될 수 있기에 농촌사회서비스가 충실하게 제공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평가하고 있음.

- 지속가능한 농업의 사회적 요소들과 사회적 조건들에는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중첩된 영역들이 존재함. 또한 병렬적인 관계라기보다 “가치”와 “관계”라는 다소 상위적인 개념들이 존재하며 각 요소끼리, 조건끼리, 또 요소와 조건 간에 상호작용이 존재함.
- 사회적 요소에서의 “판로(소비자와의 관계)”와 사회적 조건에서 “소비자의 가치/인식/태도”는 실제 인터뷰 내용의 분석에서 구분하기 어려울 만큼 상당부분 중첩됨. “가치/인식/태도”가 내재한 것이라면 그것이 현상으로 드러나는 것이 “판로(소비자와의 관계)”이기 때문이며 가치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전문가들은 “소비자의 가치/인식/태도”를 더 강조함. <그림 5-5>에서 이 두 항목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것으로 표현되었지만, 이는 두 항목의 중첩성 때문에 응답이 분산되었기 때문이며 두 응답을 합한 빈도수로는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함.

제 6 장

결 론

- 본 연구의 목적은 지속가능한 농업의 사회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그 방안을 연구하는 것임. 이를 위해 지속가능한 농업을 지향하고 있는 지역들을 선정하여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들과 농촌에 거주하면서 지속가능한 농업을 실현하기 위한 활동을 해나가고 있는 인사들에 대해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지속가능한 농업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요소와 사회적 조건을 귀납적 방법으로 도출하였음. 또한 농업분야 전문가들로 좌담회를 열어 포커스 그룹 인터뷰 방식으로 지속가능한 농업의 사회성, 지속가능한 농업의 사회적 요소와 이를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조건들에 대해 토론하고 의견을 수집하고 별도로 간략한 설문조사 방식으로 전문가 의견을 서면으로도 수집하여 분석하였음.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을 구성하는 사회적 요소와 지속가능한 농업이 구현될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조건을 파악하였음.
- 인터뷰를 통해 농민들의 의견을 취합 정리한 후, 전문가들의 검토를 통해 귀납적으로 도출한 결과, 지속가능한 농업을 구성하는 사회적 요소는 생산자의 가치/인식/태도, 조직의 다양성, 내부 네트워크, 외부 네트워크, 지도력, 생산자에 대한 교육, 농민 충원, 농법, 판로(소비자와의 관계), 지역공동체이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구현하는 데 요구되는 사회적 조건은 소비자의 가치/

인식/태도, 소비자에 대한 교육, 정책/제도, 유통구조, 농촌사회서비스로 정리할 수 있음.

- 지속가능한 농업의 사회적 요소와 조건에 대해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생산자와 소비자의 농업에 대한 ‘가치/인식/태도’와 ‘사회적 관계’가 중요하다는 의견이었음. 구체적으로는 사회적 요소에서는 생산자의 가치/인식/태도, 생산자에 대한 교육, 농민 충원을, 사회적 조건에서는 소비자의 가치/인식/태도와 소비자에 대한 교육, 농촌사회 서비스를 상대적으로 중요하다고 평가함. 생산자나 소비자 모두 생명을 중시하면서 생명을 살리는 농업과 농민을 존중하는 가치/인식/태도가 가장 중요하며 이러한 가치/인식/태도를 형성하는 도록 하기 위해 생산자와 소비자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을 의미함. 또한 사회적 조건인 농촌사회서비스가 형성되는 것은 농민 충원의 윤희유가 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음.
- 지속가능한 농업을 구성하는 사회적 요소들과 이를 구현하는 사회적 조건들이 충분히 충족되지 않을 경우, 지속가능한 농업으로의 진행과 전환은 이루어지기 어려움.
- 현재 지속가능한 농업에 관련된 정부 정책인 농림축산식품부의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사업’은 친환경농업지구, 친환경비료, 친환경농업직불제에 대한 지원에 집중되어 있으면서 이 연구에서 확인한 지속가능한 농업의 핵심적 요소인 생산자의 생명 중시와 자긍심을 함양할 수 있는 가치/인식/태도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고 농민 충원에 대한 지원이 부족함.
- 각 지자체와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 민간 단체에서 농업민과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나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가치/인식/태도를 확산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함.

- 지속가능한 농업의 실현을 위해서는 지도력 또한 중요한 사회적 요소로 작용함. 덕망 있는 개인만이 아니라 양평이나 완주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지자체장의 리더십 또한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함. 이 경우 지자체장의 교체로 인해 지원정책이 중단되거나 축소되지 않도록 제도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지역의 문화로 정착하는 것 또한 필요함. 아울러 농업만이 아니라 농촌의 지역공동체성이 회복되고 농촌의 교육, 문화, 의료 서비스가 구비됨으로써 농촌이 지속가능할 수 있어야 함.
- 사회 전체적으로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구현해 나가는 것은 한 사회의 지속가능성의 유지와 실현이란 차원에서 무엇보다 중요함. 특히 기후변화로 인해 내수는 물론 수입을 통한 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농업은 지속가능한 사회의 핵심적 기초가 됨. 바로 이 점에서 개인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보다 구체적으로는 기초 지자체나 중앙 정부가 함께 농업을 유지하고 지속가능성을 높이려는 책임감을 가져야 함.
- 지속가능한 농업은 생명의 가치를 중시하는 가치관을 기초로 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농업이 생명 유지에 가장 기본이 되는 중요한 가치임을 인식하고 상호 신뢰와 연대를 기초로 지속적인 교육과 상호교류를 넓혀가면서 사회적 거리를 줄이고 이 과정을 통해 다시금 신뢰와 연대를 강화하고 확신시켜 나갈 때 구현될 수 있음. 중요한 것은 화폐를 매개로 한 경제 관계가 아니라 신뢰와 호혜를 기초로 한 사회적 관계임.
- 지역에서 생산한 것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지역 먹거리체제를 구축하고 지역의 민간단체와 조직이 자생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초기에는 정부와 지자체의 안정적인 지원이 필요함.
- 지속가능한 농업을 지향하고 이를 실현해 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농업과

농민의 역할을 인식하고 생명가치를 존중하는 소비자의 가치/인식/태도가 중요함. 이를 위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음.

참고 문헌

- 김경덕, 김정호, 김종선. 2012. 「농업 생산·경영 구조의 변화와 전망 - 2000·2005·2010 농업총조사 분석」 R686: 36-40.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창길, 김정호. 2002.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전략」. 농촌경제연구원.
- 김창길. 2003.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을 위한 전략과 추진과제」. 농촌경제연구원.
- 김호, 허승욱, 이지은. 2010. “친환경농산물 소비자의 소비 및 의식실태에 대한 분석과 마케팅전략 수립에 대한 시사점.” 「식품유통연구」 27(3): 43-63. 한국식품유통학회.
- 농림축산식품부. 2013. 「농림축산식품 주요통계」. 40-52.
- 농림축산식품부. 2012.5.29. “친환경농업과 친환경농업육성법 전부개정안 공포.” 보도자료.
- 마리아 로데일 지음. 장호연 옮김. 2011. 「유기농 선언 : 지구를 치유하고 세계를 먹여 살리고 우리를 지키는 첫 번째 실천」. 백년후.
- 서정민. 2011. “농어촌형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의 현황과 과제.” 「제2차 농어촌형 사회적기업 활성화 포럼」. 지역재단.
- 신용광, 황운재. 2008.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 개선 방안.” 「농촌경영·정책연구」 35(4): 871-888. 농업정책학회.
- 신은정. 2003. 「전문가와 지역농민간 학습 네트워크에 관한 연구 : 환경농업기술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신필식. 2007. 「환경농업 도입지역 여성농업인의 농업 양상과 성평등 의식 변화에 관한 성분석(gender analysis) 및 생태여성주의적 분석- 충청남도 홍성군 홍동면 사례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안철환, 정경식. 2000. 「21세기 희망은 농에 있다 : 한 젊은 농부의 생태주의 선언과 유기농 실천의 기록」. 두레.
- 이상만. 2012. “CAP(공동농업정책) 개혁. 미래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하여.” 「나라경제」. 2012 May: 84-86.
- 이상범. 2013. 「친환경 유기농 잡초방제 기술」.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유기농업과.
- 임경수. 1998. 「쌀 경작체계의 환경친화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자연농업편집부. 2001. 「자연농업선집」. 자연을 닮은 사람들.
- 전국귀농운동본부. 2012. 「생태농업이란 무엇인가?」. 들녘.

- 정은미. 2007. “한국 생활협동조합의 특성.” 「농촌경제」 29(3): 1-18.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정지영. 2012. 「지속가능한 마을 만들기를 통한 생태적 계획공동체의 견고화와 사회화: 민들레 공동체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정학균, 문동현. 2013. 「친환경농산물 저농약인증제 폐지에 따른 대응방안」 p.17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제주특별자치도. 2012. 「제주통계연보」.
- 케이티 차매즈 지음. 박현선, 이상균, 이채원 공역. 2013. 「근거이론의 구성: 질적 분석의 실천 지침」. 학지사.
- 최종혁. 2011. 「질적연구방법론 : 근거이론과 수정근거이론의 실제」. 신정.
- 통계청. 2013. 「2012년 농업면적통계」. p.45.
- _____. 2013. 「2012년 농림어업조사」.
- _____. 2011. 「농(어)업총조사」.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2. 「농업 농촌에 대한 2012년 국민의식 조사」. 연구보고서.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평생교육원 종합교육연수원. 2002. 「친환경농업과 생명·환경교육 : 지속가능한 발전 패러다임」.
- 허승욱. 2007. “친환경농업 특화지역 농업인의 농업·농촌에 대한 의식조사.” 「한국유기농업학회지」 15(3): 257-275. 한국유기농업학회.
- 허장. 2007. “유기농업의 ‘관행농업화’와 위기에 관한 논의.” 「농촌경제」 30(1): 1-30.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흙살림연구소. 2005. 「유기농업이 희망이다 : 유기농업을 전국민 생활과제로」. 흙살림출판부.
- David Norman, Rhonda Janke, Stan Freyenberger, Bryan Schurle, and Hans Kok. 1998. “Defining and implementing sustainable agriculture” KANSAS SUSTAINABLE AGRICULTURE SERIES.
- Dan Rigby, et al. 2001. “Constructing a farm level indicator of sustainable agriculture practice”. *Ecological Economics* 39: 463-478.
- Hall, Alan and Vernika Mogyorodi. 2001. “Organic Farming in Ontario: An Examination of the Conventionalization Argument”. *Sociologiai Rurails* 41(4): 399-422.
- Hans-Peter Piorr. 2003. *Environmental policy, agri-environmental indicators and landscape indicators*. Agriculture, Ecosystems and Environment 98. 17 - 3
- Kaltoft, Pernille. 2001. “Organic Farming in Late Modernity: At the Frontier of Modernity or Opposing Modernity?” *Sociologiai Rurails* 41(1): 146-158.
- Michelsenm Johannes. 2001a. “Recent Development and Political Acceptance or Organic

- Farming in Europe.” *Sociologia Rurails* 41(1): 3-20.
- _____. 2001b. “Organic Farming in a Regulatory Prespective. The Danish Case.” *Sociologia Rurails* 41(1): 62-84.
- OECD. 2001. *Environmental Indicators for agriculture*.
- Ray V. Herren. 2007. *The science of agriculture*. Clifton Park, NY : Thomson/Delmar Learning.
- Tovey, Hilary. 1997. “Food, Environmentalism and Rural Sociology: On the Organic Farming Movement in Ireland.” *Sociologia Rurails* 31(1): 21-37.
- 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 2012. *Agri-Environmmetal Indicators*.
- Wolfgang Büchs. 2003. *Biodiversity and agri-environmental indicators –eneral scopes and skills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habitat level*. Agriculture. Ecosystems and Environment 98: 35-78.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친환경인증통계정보<<http://www.enviagro.go.kr>> 및 자료.
- 경향신문<<http://www.khan.co.kr>>.
- 두산백과<<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82197&cid=2000000000&categoryId=200002727>>.
- 위키피디아<<http://ko.wikipedia.org/wiki/%ED%99%8D%EC%84%B1%EA%B5%B0>>.
- 한겨레<<http://www.hani.co.kr>>.
- Agricultural Sustainability Institute at UCDAVIS<<http://www.sarep.ucdavis.edu/sarep/about/def>>.
-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FAOSTAT) <<http://faostat.fao.org>>.
- GRACE Communications Foundation<<http://www.sustainabletable.org>>.
- Sustainable Agriculture Initiative<<http://www.saiplatform.org/sustainable-agriculture/definition>>.

R708 연구자료-2

지속가능한 농업의 사회성 평가

등 록 제6-0007호(1979. 5. 25)

인 쇄 2013. 12.

발 행 2013. 12.

발행인 최세균

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30-7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117-3

전화 02-3299-4000

<http://www.krei.re.krr>

인쇄처 동양문화인쇄포럼

전화 02-2242-7120

e-mail: dongyt@chol.com

ISBN 978-89-6013-567-3 93520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